



12

1993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3. 12호

(루계 554)



## ◆◆◆◆◆◆◆◆◆◆ 차 례 ◆◆◆◆◆◆◆◆◆◆

잊지 못할 그 봄날.....	4
수령님 찾아오신 우리 농장별 .....	4
이해는 가지 않는다 .....	5
백두산장수와 수돌이 .....	6
명언 .....	9
태양이 눈부시다 .....	9
은혜로운 빛발아래.....	10
아버이를 뵈옵는다면 .....	11
<b>김정일</b> 동지께 드리는 헌시 .....	12
강철의 령장을 우러러 .....	12
위대한 령도자를 따르는 인민의 절대적신념이 낳은 위대한 송가 .....	13
이 기쁜날 더욱 그리워.....	18
독립성 .....	19
명제해설 .....	21
위대한 믿음의 글발 .....	22
위대한 힘 .....	23
가사혁명의 불길속에서(4).....	25
우리는 같이 있네 .....	27
밝게 웃어라! .....	28
김정숙어머님,나의 어머님 .....	34
12월의 그날이 있어 .....	34

하나의 피줄 이은 형제들처럼 .....	35
민족의 넋을 새기며 .....	36
당에 대한 단상 .....	37
위대한 수령을 모신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38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민족의 공지와 자부심을 노래하는 작품을!.....	38
친필 (외 1 편).....	39
스물 지난 사나이로 우리는 자랐는데… (외 1 편).....	39
은별 .....	41
웃는 봉선화.....	50
흐르라 아름다운 물결이여 .....	50
3 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중요한 과업 .....	51
영예군인메달.....	54
소개글 .....	55
세번째 가족사진 (외 2 편).....	56
향나무 .....	58
사신행차 .....	65
위원장어머니.....	72
청춘시절이란 무엇인가 (외 2 편) .....	77
버드나무, 네가 설레이는 소리… (외 1 편).....	78
직포기소리 .....	79
화장품과 속삭이네.....	79
혀바닥을 한번 봐야겠네 .....	80

# 잊지 못할 그 봄날

김련실

봄날의 실바람  
꽃향기 실어오듯  
정다운 개학의 종소리  
잊지 못할 그 봄날을 불러와라

보통강 봄버들에 새움이 틀 때면  
이 가슴에도 움트는 그날의 기쁨  
못잊을 그 봄날의 감격이  
꽃속에 어려있는 나의 학교

어버이수령님 오셨던 그 봄날  
그날을 못잊어 터치는 진한 향기  
세월은 가도  
뜨거운 마음들에 지지 않아라

아이들의 웃음속에  
아이들의 노래속에  
포화속 만리길을 달리시던 그 피로  
기쁨으로 다 푸시던 화창한 봄날

감격에 겨워  
걱정을 터치며  
어버이수령님 품에 달려가 안기던  
아이들의 그 숨결 붉은넥타이에 날려라

아, 봄날은 꽃피는 계절  
교정의 봄날은  
어버이수령님 오셨던  
그날을 영원히 꽃속에 맞이하는 계절

친히 쓰시던 피아노도  
사랑으로 보내주신 따뜻한 손길  
아이들의 노래속에 봄향기속에  
그날의 그 은정이 넘쳐나는 교정이여

온 세상 사람들 모두 찾아와  
그 노래 그 봄날을 가슴에 새기며  
그들을 모르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 봄날을 안고가는 나의 학교여

아, 세월은 흘러 아이들은 자라고  
세월은 흘러 개학의 날은 다시 와도  
어버이수령님 안고오신 그 봄날에 살며  
언제나 아이들은 밝게 웃어라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  
웃음이고 미레인 아이들은  
영원히 그 봄날에 뿌리내리고  
영원히 그 봄날에 활짝 피고있어라

가사

## 수령님 찾아오신 우리 농장벌

정수옥

수령님 찾아오신 우리 농장벌  
만풍년 펼쳐안고 기쁨 드리네  
한평생 인민 위해 견고걸으신  
풍년든 농장벌은 수령님 기쁨

비바람 불어와도 수령님 마음  
농장벌 여기에 닿아있었네

한평생 인민 위해 기울이시는  
그 사랑 꽃피여 풍년이 왔네

수령님 웃으시며 못떠나시니  
내 고향 풍년벌도 감격에 젖네  
수령님 그 사랑이 꽃피는 벌에  
영원히 만풍년을 펼쳐가리라

# 이해는 가지 않는다

차영도

헤어지면 다시 못을  
님을 바래듯  
쉽게는 잡은 손 놓지 못할  
1993 년이여!  
너는 얼마나 많은 못잇을 사연들을  
이 땅에 남기고 가느냐

한해를 바래올적엔 어쩐지  
산야에 내리는 흰눈에 앞서  
마음속 하늘천정 그 어디메선가  
자꾸만 내리는  
애틀한 눈송이...

나는 지금  
그 눈송이를  
조국이 걸어온  
이해의 생각깊은 자욱우에  
조용히 뿌려본다

하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기다리신듯 찾아오시는 분이시여  
조국을 이끄시고 혁명을 이끄시고  
거룩히 마주오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여

이분이 아니셨던가  
그 어느해보다도 준엄했던  
1993 년의 조향륜을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돌리신분

이분이 아니셨던가  
원썩들의 준동에  
철추를 내리시며  
최고사령관의 단호한 명령으로  
이해의 봄하늘을 지켜내신분

내 경건한 마음안고  
삼가 머리 들어 우러르니  
아, 그이께선 지금

언제나와 같이 자애에 넘치신 미소로  
나의 눈길을 어디론가 조용히 이끄신다

거기엔  
해빛 부신 창가 평화로운 요람속에  
그런듯 단잠든 아기,  
그리고 가없이 맑은 하늘가에  
신기루마냥 일어난 무수한 새 집들...

어디냐,  
우리의 로병들이  
혁명의 피를 다시금 사품쳐끓게 하던  
그 대회장은  
그 승리의 열병장은

저기 전승기념탑은 지금  
그이의 업적을 끝없이 속삭이고  
수령님을 기쁨속에 모시였던  
이 나라 풍년벌은  
그날처럼 알찬 이삭 무거이 흔들며  
그이의 은덕을 노래하거니

그이의 뜻으로  
내 조국에 넘치는 군민의 정은  
이해따라 또 얼마나 뜨거웠고  
이 나라 방방곡곡의 아름다운 소행들은  
이해의 날과 날에  
얼마나 무수히 만발했느냐

오,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도 깊은 자욱 남긴 해여  
지나간 하루하루가  
그모두 친애하는 그이를  
가슴깊이 생각케 하는 해여

이해는 가지 않는다, 갈수가 없다!  
우리의 기억속에  
조국의 기억속에  
이해는 가지 않는다!  
1993 년이여!

## 백두산장수와 수돌이

수캐 성나서  
긴칼을 번쩍번쩍  
죄없는 백성을  
사정없이 죽치더니  
하루밤사이에  
모가지가 땡강  
백두산장수가 잡아갔구나

이것은 민요도 아니고 창가도 아니다. 파도가 굽이치는 동해바다가, 흥남지방에서 지금으로부터 50 여년전에 불리워진 동요의 한구절이다.

봉건통치배들의 죄악상을 폭로하고 저주한 조선봉건왕조시대의 참요인 《충성은 사모냐》와는 달리 이 동요는 왜놈순사들을 야유하고 풍자하고있다.

이 동요는 그 유래와 함께 오늘도 이 지방에 전해져 내려오고있다.

화창한 봄날이었다. 옷자락을 스치는 맑은 바람결은 어디서나 그윽한 향기를 실어왔다.

백두산에서 제일 높은 병사봉(오늘의 장군봉) 말기에서 너울너울 날아오는 백학을 바라보며 아까부터 한 장수가 못박힌듯 서있었다.

그는 왜놈들이 말만 들어도 사시나무 떨듯하며 삼심륙계 줄행랑을 놓는 백두산장수이다.

한겨우내 백두산산발을 넘나들며 수하장수들과 함께 힘을 키운 백두산장수는 꽃내가 풍기는 삼천리금수강산을 굽어보았다.

맑은 바람, 향긋한 꽃내- 이것만으로도 장수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한껏 사무쳐왔다.

장수는 가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과 백두산에서 사방으로 런던히 뿔어내린 산발들을 빙 둘러보더니 북쪽 저 멀리 하늘과 땅이 맞붙은 어느 한 곳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자세히 보니 한때의 구름이 우쭈리쪽에서 백두산을 향해 왈악 밀려오고있었다.

울울창창한 수림과 번쩍거리는 강과 넓은 들은 온통 운무에 휩싸였다. 말그대로 구름바다가 백두산으로 밀려오고있었던것이다.

굴뚝거리며 밀려오는 구름바다를 장수는 더욱더 바라보고있었다.

조금 있으면 백두산은 거침없이 밀려오는 구름바다에 삼키워버릴것만 같았다.

그런데 웬일인가, 구름떼는 백두산의 거대한 웅장에 겁을 먹었던지 아니면 장수의 릉림하고 억센 기상에 기가 눌렸는지 산봉우리로는 감히

오르지 못하고 장수의 발아래로 기슭을 어루만지며 조심조심 흘러갔다.

는뿌리 아득한 저 멀리까지 조국산천은 온통 구름이 뒤덮였다. 장수는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머리를 약간 숙일사하고 귀를 강구었다. 왜놈들의 총칼밑에서 신음하는 겨레들의 한숨소리, 신음소리를 듣는것인가, 장수의 눈에선 불씨가 날리고 두손은 으스러지게 쥐여졌다.

《고현놈들!》

장수는 백두산마루에서 조선의 방방곡곡을 손금보듯 자세히 살피었다. 그러다가 왜놈들이 공장을 세운다, 철길을 늘인다 하며 법석하는 동해바다가, 파도가 기슭을 치는 흥남지구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더욱이 바라보던 장수는

《내 흥남에 나가서 왜놈종자들을 좀 다스리고 오리라.》 하고 빙 둘러선 부하들에게 말하더니 홀연 가뭇없이 사라졌다.

어느새 술법을 써서 백두산을 내린것이다.

장수는 두만강연안의 소도시인 남양에서 하루밤을 류숙하고 새벽녘에 다시 축지법을 써서 눈깜짝할사이에 흥남비료공장에까지 날아갔다.

웃은 보통사람 나들이가는 차림을 하고 어깨에 피나리보짐까지 가뜰하게 짊어져 장수는 얼핏 보면 조금도 남과 다른 점이 없었다. 좀 류다르다면 체구가 우람하고 첫눈에도 인품이 높아보이는 것이라랴.

장수는 곧장 로무계사무실로 찾아가 일자리를 얻으려 온 사람이니 아무 일이나 시켜달라고 하였다.

키가 작고 체소한 로무계장은 낯선 젊은이를 한참이나 훑어보더니 입이 헤벌쭉해졌다.

힘꼴이나 쓸 상일군이 제발로 찾아왔으니 이게 웬떡이나 하는 기색이었다.

계장은 젊은이에게 그자리에서 당장 나무로 깎아만든 일패쪽을 하나 내주었다.

그날부터 장수는 흥남비료공장합숙에서 노동자들과 같이 기숙하였는데 그의 높은 인품과 너그러운 성품에 끌려 모두 그를 친형처럼 대하였다. 그러나 그가 백두산장수이리라고는 그 누구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들중에는 수돌이라고 부르는 소년 노동자도 있었다. 아버지는 선주님의 강요에 못이겨 풍랑사나운 날 고기잡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얼마전에 전염병으로 어머니까지 잃은 불쌍한 수돌이었다. 장수는 의지가치할데

없는 수돌이와 껍 가까운 사이가 되어 그를 각별히 사랑해주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그날 수돌이는 진종일 무거운 벽돌짐을 지고 높은 사다리우로 오르내리었다.

그는 온몸을 땀으로 미역 감으며 백번도 넘게 사다리우를 오르내리느라니 지칠대로 지쳤다.

더는 제몸조차 지탱할수가 없었다. 수돌이는 저도 모르게 그자리에 펄쩍 주저앉고말았다. 눈앞이 가물거리고 하늘과 땅이 엇바뀌어 빙글빙글 돌아갔다.

이때 갑자기 눈앞에서 불이 번쩍 일더니 《이놈의 새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감독놈이 수돌이의 따귀를 친것이다.

수돌이는 비칠거리면서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애는 왜 때리오?》

어느새 장수가 감독놈앞에 나타났다.

감독놈은 무슨 상관이냐는듯 장수를 한번 흘겨보았다. 장수의 기상에 겁이 났던지 놈은 슬그머니 쫄무니를 빼려고 하였다.

장수가 달아나려는 그놈의 손목을 슬쩍 잡았다 놓았다.

그놈은 아파서 죽는다고 소리치며 뱅글뱅글 돌아갔다.

그러거나말거나 장수는 또 감독놈의 귀를 잡아당기며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놈은 찢찢매매 허리를 갑작거렸다.

《네 이놈, 다시한번 조선사람을 못살게 굴었다간 가만두지 않을테다.》

장수는 감독놈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한번만,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 제발 잘못했습니다.》

그놈은 손을 짹짹 마주 비비었다.

그때부터 감독놈들은 노동자들에게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오히려 힐끔힐끔 그들의 눈치를 보곤하였다.

수돌이는 아저씨를 각근히 따랐다.

그러나 수돌이는 날이 갈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저씨는 밤마다 어디론가 갔다가 새벽녘에야 돌아오곤하였는데 그다음날이면 어김없이 놀라운 일들이 생기곤하였다.

홍남에 등지를 틀고있던 일본수비대의 한 부대가 갑자기 전멸하는가 하면 어디에서는 왜놈주재소가 하늘로 날아갔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 소문과 함께 이것은 다 백두산장수가 왜놈들에게 내리는 징벌이라는 말이 사람들속에 퍼졌다.

(아저씨가 혹시 백두산장수가 아니실까?)

수돌이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곳 주재소의 털보순사는 무슨 기미를 켜는지 장수를 의심하며 노동자들을 감시했다.

털보순사는 순사들중에서도 가장 악질이었는데 바로 수돌이 아버지가 죽은것도 실은 이놈의 작간이었던것이다.

이놈은 비료공장에서 얼마 멀지 않은 수돌이네가 살던 어촌마을에 자주 나타나곤하였다.

대가 바른 수돌이 아버지는 원체 남에게 허리를 굽히는 습성이 아니었다.

언젠가 밭살스러운 털보순사가 또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긴칼을 번쩍거리며 어촌마을에 나타났다.

그놈은 다짜고짜로 칠순이 넘은 한 로인의 수염을 잡아쥐고 그에게 못매질을 가하였다.

내용인즉 동네늑은이 몇이 모여앉아 한담을 하였는데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는것이였다.

세명이상 모여앉으면 일본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는것이였다.

마침 그옆을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수돌이 아버지는 참다못해 바위같은 주먹으로 그놈의 면상을 후려쳤다.

유도에 격검까지 한다고 소문이 난 이놈은 아근의 왜놈들중에서 제일 힘이 세고 날파람이 있다는 놈이였다.

조선사람들은 물론 왜놈들도 이 털보순사와는 아예 맞서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놈은 마치 민충이 축대에 올라간것처럼 멋없이 우쭐해져서 코를 들고 돌아쳤다.

제가 무서워서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천하게 여기던 조선사람 어부한테 뽀매를 맞았으니 창피해서 어디에다 말하겠는가. 그놈은 수돌이 아버지와 한번 겨뤄보려 하였으나 항소같은 힘앞에 자기의 격검술과 유도재간이 아무런 맥도 못춘다는것을 알고있는지라 어찌지 못하고있었다. 빙어리 뺨가슴알듯하던 이놈은 선주에게 강요하여 풍랑사나운날 기어이 수돌이 아버지를 바다에 내보내게 하였다.

후에야 이것을 알게 된 수돌이는 그 털보순사놈만 보면 눈에서 불이 일었다.

어느날 수돌이는 아저씨에게 스스럼없이 이 말저말하다가 바로 이 털보순사놈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다.

장수는 수돌이의 말을 귀담아듣고는 동정도 해주고 같이 왜놈을 미워하며 격분하기도 하였다.

장수예겐 수돌이가 더없이 불쌍하고 측은하게 보였다.

그날밤이였다. 장수는 수돌이 몰래 깨어나 또 어디론가 나갔다.

한밤중에 수돌이가 눈을 떠보니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다.

아저씨는 새벽녘에야 돌아왔다. 그 이튿날 소문이 나기를 백두산장수가 나타나 수캐(왜놈순사를 말함) 털보순사의 목을 베고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또 백두산장수가 나타났구나.)

수돌이는 한번도 보지 못한 그 백두산장수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가득 차올랐다.

긴칼을 번쩍거리며 죄없는 백성을 사정없이 죽치던 원한많은 그 털보순사놈이 하루밤사이에 모가지가 땡강 달아나자 모두들 속이 시원해하고 동쾌해하였다.

그러면서도 장수를 직접 제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못내 서운해하였다.

수돌이는 아저씨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저씨, 아저씨 백두산장수를 아시나요?》

《뭐? 백두산장수? 글썄 말은 들었다만 한번도 보지 못했구나.》

아저씨는 전혀 모르쇠를 하였다.

그후에도 아저씨는 가끔 밤마다 없어지곤 하였는데 그다음날이면 어김없이 왜놈들이 무리로 돌아갔다는 소문이 나곤 하였다.

수돌이는 아저씨가 백두산장수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왜놈들은 찢찢매며 돌아쳤다.

《백두산장수가 나타났다!》

《백두산장수가 나타났다!》

왜놈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기를 펴지 못하고 비실거렸다. 어떤놈들은 무서워서 방에 들어 박혀 머리도 내밀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날 그 마음좋은 아저씨-장수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다음날도 그다음날도 아저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돌이는 몹시 섭섭했다.

다른 노동자들도 수돌이 못지 않게 궁금해하였고 서운해하였다.

수돌이는 마치 친형이나 부모를 잃은 듯한 심정이였다.

(어디로 가셨을까? 혹시 신변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게 아닐까?)

사람들은 모두 걱정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흥남비료공장 노동자들에게 편지가 왔다.

그 편지는 보통사람들이 주고받는 편지와 조금도 다름이 없이 서두에 문안을 한 다음 그동안

많이 도와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왜놈들과 잘 싸우면 반드시 조선독립이 이룩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떠나올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사를 하지 못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달라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맨밀엔 백두산장수라고 쓰고 활달한 필치로 수표까지 했다.

편지를 받아본 흥남비료공장 노동자들은 깜짝 놀랐다.

(아니 백두산장수라구? 우리와 함께 자고 같이 일하던 그분이 백두산장수라니?...)

노동자들은 웅성거렸다.

《우리가 청명파니지, 청명파닐세.》

《백두산장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모르다니, 이런 실책이 어디 있겠니?》

이 순간 노동자들은 고마운 백두산장수님께 따뜻한 물 한사발 제대로 대접해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이 가슴가득 괴여올랐다.

노동자들은 너무나 기쁘고 황송하여 머리를 들지 못했다.

그후 누가 지었는지 이런 노래가 동네방네 퍼져갔다.

수캐 성나서

긴칼을 번쩍번쩍

죄없는 백성을

사정없이 죽치더니

하루밤사이에

모가지가 땡강

백두산장수가 잡아갔구나

사람들은 이 노래를 신나게 부르면서 백두산장수가 흥남에 와서 왜놈들을 징벌하던 그때 일을 칭송하였다.

이 노래를 수돌이가 지었는지 그것은 딱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수돌이또래들이 백두산장수를 칭송하여 이 노래를 부른것만은 사실이였다.

얼마전 흥남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신흥지구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쓴 수백대의 구호나무들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서곡리 돛대재에 있는 꺾질 벗긴 나무에서는 《백두산장수 왜놈치러 왔다》고 쓴 구호가 현출되었다.

이 부전령산줄기에서 나온 수많은 구호나무들과 혁명 유적, 유물들은 이 동요가 나온 유래에 신빙성을 더해주고있다.





《혁명가의 일생은 대중속에 들어가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수 있고 혁명의 실패는 인민 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지 않는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수 있다.

나는 오중성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말하였다.

출신이 좋은 몇몇 사람들만으로는 혁명을 할수 없다. 대중을 대담하게 믿고 그들을 위해 조직의 문을 넓게 열어놓아야 한다.形形色색의 간판을 가진 청년단체들이 저마다 청년들을 끌어당기고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공청조직은 피동에 빠지지 말고 적극적인 공세를 벌려 많은 청년대중을 전취해야 한다. 청년동맹이나 신간회조직들에 관여했던 청년들, 당재건파분자들에게 불어다니거나 무의식적으로 리용당하고있는 청년들도 잘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어 한사람한사람씩 우리편에 쟁취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2)중에서

## 태양이 눈부시다

문동식

오늘도

조선의 하늘땅엔 태양이 눈부시다

안개 걷히는 맑은 하늘

고요히 밝아온 지평선 아득히

금빛해살 누리에 퍼진다

푸른 강산은 환희에 설레인다

아름답구나 나의 조국이여

쏟아지는 억만줄기 따사로운 해빛에

신록이 우거진 푸른 숲이여

수정인양 반짝이는 맑은 시내여

일새마다 풍기는 향기속에 깃을 펴고

새무리 창공에 날아오른다

들길에 피어난 온갖 꽃들은

이슬에 얼굴씻고 해를 향해 웃는다

훈훈한 땅 맑은 바람 달디단 향기

옥야천리에 익어가는 금나라

이삭들은 훈풍에 춤가락 펼치고

은빛 궤도우에 질풍을 일으키는

기관사의 가슴속엔 노래가 넘치여라

아이들은 활개치며 학교로 가고

녀인들은 포근한 탁아소요람에

애기들을 눕혀놓고 앵두볼 튕겨보고

푸른 공원의 회전비행기는

또 하루 웃음신고 날아오른다

삶이 이처럼 즐거운것임을

소리치며 자랑하고픈 이내 마음

노상 얼굴들엔 웃음꽃이 피어나

반백은 다시 겹어지고

청춘의 기상은 강산에 넘치고...

누리에 흐르는 이 기쁨

고마움에 젖는 인민의 이 감사

뜨겁게 어리는 창문을 여시고

오늘도 인민의 지도자 **김정일** 동지

꽃피는 강산에 미소를 보내시나니

아 그 자애의 해빛안고

시름없는 가슴펴고 미래로 내려치는

인민의 약동, 비약하는 시대

세기를 밝히시는 그이의 빛발속에

화원처럼 만발하는 사회주의락원이여

향도의 태양 **김정일** 동지

그이께서 계시여

조선은 오늘도 세계에 빛나는

행복의 나라

승리의 나라

영광의 나라

아, 언제나 조선의 하늘땅엔

인민의 자애로운 태양이 눈부시다

《인민대중이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우리 수령님은 인민대중의 마음을 한몸에 체현하신 인민의  
래왕이십니다.》

김 정 일

수기

## 은혜로운 빛발아래

박선국

저는 이름난 문학가도 아니며 글짓는데 취미를 가진적도 없는 평범한 농장원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된것은 자신이 받아안은 영광이 너무도 크고 감격에 겨운것이여서, 이것을 혼자 알고있기에는 너무 아까운것이여서 없는 재간이지만 글을 써보고저 한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9월 11 일부 《로동신문》을 보았을것입니다. 그 《로동신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사동구역 송신험동농장과 장천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영상과 함께 수수한 작업복차림의 농장원과 나란히 서시여 찍으신 사진이 모셔져있습니다.

그 영광의 절정우에 선 사람이 바로 접니다. 9월 10일 아침 여느때와 같이 아침 일찌기 포전에 나선 저는 아침이슬을 함뿍 머금고 다소곳이 머리숙인채 바람결에 흐느적이는 벼이삭들을 쓸어보며 흐뭇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것이 우리의 땀과 열정이 고스란히 숨배인 그 이삭들이 저의 속내를 알아주는것만 같아 마음이 한껏 흥떴던것입니다.

질어가는 가을빛과 더불어 더욱 총총히 어물어가는 벼이삭들을 쓸어보느라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얼마전 황해남도의 농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풍년든 포전들을 돌아보시고 너무도 기쁘시여 자신께서는 이렇게 풍년든 농장들을 돌아보는 때가 제일 기쁜 때라고 하셨다는데 우리 이 포전에도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였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과 함께 이 포전이 과연 그이께 기쁨을 드릴수 있을가 하는 위구심도 슬그머니 갈마드는것이였습니다.

저는 깊어지는 생각속에 이쪽 포전에서 저쪽 포전으로 저쪽에서 또 이쪽으로 오가며 밤새 이상이 없었는가를 세심히 살렸습니다.

바로 그때 큰 길쪽에서 승용차들이 질주해오더니 우리 분조포전앞에서 멈춰서는것이였습니다. 차에서는 여러 간부들이 내려서더니 여기가 3작업반 3분조 포전인가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채 여기가 3분조포전이며 제가 바로 기술지도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마침 동무를 찾던중이였는데 잘 만났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습니다.

뒤미처 또 여러대의 승용차들이 달려오더니 글썽 차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려서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방금전에도 우리 포전에 수령님을 모시였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품어보던 저였지만 정작제가 뜻밖에도 그분을 뵈게 되니 무슨 말부터 어떻게 드려야 할지 통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여 저는 그저 경황이 없는 속에서 수령님께 이 포전에는 어떤 종류의 품종을 어떻게 심었는데 생육기일은 얼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환한 미소를 피우시고 몸소 이삭당 알수까지 세여보시면서 농장원들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흐뭇한 만풍년을 이룩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 수령님께서서는 제가 연구한 우량품종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올해에 대풍을 마련할수 있는것은 우리 당의 녹색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잘한데 있다고 하시면서 이름없는 농촌의 평범한 기술지도원에 지나지 않는 저에게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안고 헌신분투하여 지대적특성에 맞는 우량품종을 육종함으로써 알곡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감사를 주시였습니다.

순간 저는 크나큰 감격의 선풍에 휩싸여 아무말씀도 못드리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감동적이고 환희로운 순간에 접해도 자기 의사를 다 표현하지 못한다던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직접 당해보니 리해되는 것이였습니다.

글썽 농장원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수령이 평범한 농장원에게 감사를 주신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인류가 생겨 수천여년, 고대로부터 오늘 21세기초입에 가까울 때까지 세계에는 덕을 체현하여 이름이 난 사람들도 있고 명인으로, 명장으로 소문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을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시신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하루한시도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

기국을 먹으며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만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쉬임없이 현지도의 길에서 시간을 보내시는데 제가 일을 했으면 무엇을 했다고 이처럼 감사를 주시는것이겠습니까.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저를 장천협동농장 현지도의 길에까지 데리고 다니시며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특히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는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농사를 잘 짓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농업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경지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는 녹색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려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우량품종을 많이 육종하여 정당수확고를 부단히 높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농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농업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또한 평양시내 농업근로자들은 벼, 강냉이, 남새 농사를 잘하는것과 함께 콩, 메밀을 비롯한 여러가지 작물들을 많이 심어 시안의 급양망들에 공급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이날 농업생산에서 강령적지침으로 삼아야 할 말씀들을 많이 하시었는데 저는 그 말씀들을 새겨들으며 탄복에 탄복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이의 말씀 하나하나는 땅과 함께 살아오는 농사군인 우리로서도 정말로 머리가 숙여질만큼 리치에 밝고 명철하셨기때문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저에게 감사를 주시면서 우리나라에 박사가 늘어났다고 기뻐하시었는데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진실로 농학박사는 우리가 아니라 몸소 저력의 포전들에 벼와 강냉이를 비롯한 농작물들을 심으시고 그를 하나하나 가꾸

시며 얻으신 귀중한 경험들을 가르쳐주시는 수령님이시라고 소리높이 웨치고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아버지수령님은 은혜로운 태양이시며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위대한 분이십니다.

태양이 없어야 만물의 소생과 백화만발한 락원, 풍성한 열매를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위에 빛나는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그 은혜로운 사랑속에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박사로, 영웅으로 자라는 것이고 그 따사로운 빛발속에 곡식이 익어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지도를 마치시고 떠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차를 바라우며 이제 더는 그이께서 농사일을 두고 심려하지시 않도록 농업기술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리라 굳게굳게 결의다졌습니다. 그러고보니 수령님께 힘이 되고 기쁨이 될 훌륭한 말 한마디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마음이 송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황해남도의 한 녀성관리위원장이 이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는 한 부디 만시름을 놓으시라고 간절히 말씀올렸던 일이 떠오르며 그것은 그 한사람만의 심정이 아니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인것이라고 생각되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은혜로운 주체의 태양 빛나는 땅에 향도의 태양 밝게 비치니 우리에게 두려운것 없고 못해낼 일 없습니다.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영원히 이 땅을 가꾸며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우리의 기후풍토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것으로써 받아안은 은혜로운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가사

# 어버이를 보웁는다면

(총련) 박정순

그리운 어버이를 보웁는다면  
나의 사랑 꽃봉오리 보이교실네  
우리 말을 배워가는 아이들 모습  
교정에서 뛰노는 밝은 그 얼굴  
아, 나와 함께 보여드리고실네

그리운 어버이를 보웁는다면  
꽃봉오리 그 마음도 보이교실네  
가고싶은 조국 향해 꽃을 피우는

아이들의 깨끗한 그 마음들을  
아, 나와 함께 보여드리고실네

그리운 어버이를 보웁는다면  
정성담아 곱게 피운 우리의 화원  
송이송이 꽃다발로 고이 엮어서  
아이들과 손잡고 드리교실네  
아, 나와 함께 보여드리고실네

#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헌시

헤로니모 로베 보마바

조선혁명의 승리를 확신하는  
세계의 청년들  
목소리 합친다

조선에 솟아오른 태양  
땅우에 찬란한 서광을 비치며  
세계만방에 밝은 빛 뿌린다

우리 바라노라  
조선의 드넓은 정원에  
꽃향기 흐르고  
사람들 가슴마다 기쁨넘치기를  
위대한 주체의 빛발아래  
황막한 무인지경에도  
창조의 노래 높이 울리기를

도란속에 해매는  
인민들을 구원하는 생명수  
사랑의 불사약  
암흑을 밀어내는  
향도의 해발

절세의 위인이시며  
위대한 영웅이신  
그이의 존함  
이 땅우에 금빛으로 빛나리

이 세상 그 어디서나  
그이의 업적 칭송하고  
뜨거운 송가를 삼가 드리여라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노라

그이께서 추켜드신 주체의 기치

(필자는 적도기네 기자임)

# 강철의 령장을 우러러

호세 포마체까

**김정일** 그이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인류력사에는 뛰어난 령군술 지닌  
장군도 많고 사령관도 많았건만

**김정일** 그이처럼  
위대한 령장의 풍모를 지닌  
백승의 장군은 없었어라

**김정일**  
그이의 령군술

그이의 비범한 군사적예지는  
원수들에게 무서운 공포를 주고  
그이의 담력과 의지 앞에  
그 어떤 강적도 무릎꿇나니

**김정일** 그이는 세계에 공인된 희세의 령장  
그이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조선인민과 군대는 필승불패여라

(필자는 짐바브웨사회계 인사임)

# 위대한 령도자를 따르는 인민의 절대적신념이 낳은 위대한 송가

리수립

노래가 번개친다. 온 누리에 우뢰친다.

주체의 기치높이 나아가는 우리 혁명대오의  
기개를 떨치며 사회주의를 압살하려 날치는 원쑤  
들의 머리에 철추가 되어.

오늘 우리 혁명은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  
위력한 힘을 가진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리종오, 황진영 작사, 작곡)를 높이 울리  
며 총진군속도를 창조해가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한편의 혁명적인 시는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수 있다. 우리 혁명은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만한 훌륭한 시를 더 많이 창작해낼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려 력사의  
그날 사로청제 8 차대회장에서 충성의 맹세,  
엄숙한 선서와 더불어 이 노래가 울린 때로부터  
세월은 얼마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훌륭한 노래는 삽시에 온 나라 인  
민들속에 퍼져서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고무하고있으며 창작가들을 시대의 지향과 인민  
의 요구를 반영한 충성의 작품창작으로 한결같이  
일떠서게 하고있다.

우리는 오늘 참다운 혁명적노래가 인민대중  
의 자주위업수행과 문학예술발전에서 노는 커다  
란 기능과 역할을 산현실로 통감하고있다.

실로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와 우리 문학의 새로운  
양양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투쟁의 기치이며 국보  
적인 걸작이다.

×

혁명에 신념이고 신념은 승리이다.

준엄한 혁명의 시기일수록 사람들에게는 마  
음의 억센 기동을 세워주는 참된 신념이 요구되  
며 숭고한 리상을 끝까지 성취하고야말 철석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하다면 오늘의 우리 시대에 혁명하는 사람들  
이 지녀야 할 참다운 신념과 의지의 원천을 어데  
서 찾아야 하는가.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준엄  
한 오늘의 시대가 제기한 초미의 문제, 우리의 위  
대한 혁명을 지켜내고 그것을 끝까지 계승완성하  
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인간문제로서 신념과

의지의 문제, 그 근본원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  
고 그에 대하여 완벽하고 정열적인 해답을 주고  
있다.

혁명에 바치는 투철한 신념과 강철의 의지는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 위대한 령도자를 받  
들어모시였을 때 가지게 되는 고결한 사상과 정  
신이다. 그것은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만이 자주  
성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구원해주고  
보람찬 삶의 길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아버지, 영  
생의 은인이기때문이다.

사상에서나 령도력, 인간적풍모에서 가장 뛰  
어나고 위대하신분,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이분만  
이 우리의 운명을 구원해줄수 있고 혁명을 승리  
의 한길로 이끌어줄수 있는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동지, 위대한 인간이라는 신심을 심어주  
며 비길데 없는 인간적매력으로 천만사람을 한대  
오에 묶어세우는 위대한 견인력을 지닌 수령을  
모시게 되고 그러한분의 세련된 령도를 받들어  
살며 싸우는 과정에 생겨나고 자라나며 굳세게  
다져지는것이 바로 투철한 혁명적신념이며 철석  
같은 혁명적의지이다.

우리는 오늘 격동하는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  
이처럼 위대한 신념의 태양, 절세의 위인을 가  
슴벅찬 환희속에 우러르고있으니 그이는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다.

총포탄은 날리지 않아도 지난날의 혁명전쟁  
들에 못지 않게 가렬한 싸움이 벌어지고있는 오  
늘 우리 인민들속에서 언제나 마음의 기둥이 되  
고 승리의 기발이 되어 신념의 목소리로 높이 울  
려나오는 이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 불멸의 그  
존함이다.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우리  
시대의 이러한 신념과 의지, 혁명의 길이 아무리  
간고하고 복잡하여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께서 계시기에 주체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빛나게  
고수되고 영원히 승리할수 있다는 하나의 진리,  
지구가 열백번 깨여지고 세상이 천만번 변한다  
하여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옹위하는 방패가  
되고 성새가 되어 그이와 생사운명을 함께 할 오  
직 하나의 각오와 의지를 정열적으로 구가하고있  
다.

우리의 위대하고 영웅적인 현실과 투철한 혁  
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혁명적 신념과 의지의 근  
본원천을 심오히 밝혀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마음  
의 기둥을 세워주고 그들모두를 일당백의 영웅으

로, 우리 사회를 일심단결의 결정체로 되게 하는 바로 여기에 이 노래가 울리는 사상감정의 철학적 가치가 있고 원쑤를 짓누르는 혁명적위력이 있는 것이다.

무릇 형상의 가치와 힘은 생활의 진실에 투철하고 시대를 강력히 추동하는 진실성과 랑만성의 유기적통일에 있다.

시대를 떠난 허황한 형상이나 시대의 단순한 확인에 그친 기록적인 형상들은 진실감과 감화력이 없다.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의 높은 사상예술성과 혁명적위력은 우리의 위대한 현실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는 형상의 진실성과 창작가들의 충성의 열정이 고동쳐 이루어진 형상의 랑만성의 결합에 의해 튼튼히 담보되고 있다.

령도자의 위대성과 인민대중의 충성심에 관한 진실하고도 랑만적인 형상, 바로 여기에 이 노래의 비상한 견인력과 감화력의 크기가 있다.

1. 사나운 폭풍도 쳐몰아내고  
신념을 안겨준 **김정일**동지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2. 미래도 희망도 다 말아주는  
민족의 운명인 **김정일**동지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3.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인민은 믿는다 **김정일**동지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가사형상의 진실성과 랑만성은 무엇보다도 령도자의 위대성을 신념으로 노래하는 형상에서 감명깊게 나타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사나운 폭풍도 쳐몰아내고 신념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령도자로, 인민의 미래와 희망을 다 말아주시는 민족의 운명으로 노래하는 가사의 서정적형상은 우리 시대가 모시고 받드는 령도자의 위대성을 방불히 안겨주며 령도자를 우러러 느끼는 우리 인민의 체험 그대로를 심도깊게 담은 진실한 것이다.

형상의 외면적특질에서 비상이 랑만적인 성격을 띤 시적표현들을 현실생활과의 대비속에서 고찰할 때 우리는 여기서 창작가들의 주관적인 상념이나 허구적가공의 사소한 경향도 찾을 수 없다.

제국주의의 반사회주의광풍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최근년간에 우리는 자신들의 눈으로 그 광풍을 단순히 막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쳐몰아내는 세기의 영웅이시고 사회주의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영명하신 예지, 무비의 담력과 결단성, 비범하신 령도력을 생생히 목격한 력사의 증전자들이다.

우리 인민만이 아니라 온 세계 진보적인류가 한결같이 《강력한 타격》이라 격찬하며 끝없는 감사를 드리고있는 그이의 비범하신 사상리론적 예지와 세련된 령도는 력사가 일찌기 보지 못한 위대성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숭고한 주체적리념과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온갖 잡사상들의 도전에 강력한 반타격을 가하시며 사회주의의 앞길을 휘황히 열어 사소한 탈선이나 우여곡절이 없이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만 인도하시는 그이.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생명인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과 사회주의의 수호자 일당백혁명무력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여 온 나라를 그 어떤 원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사회주의의 난공불락의 보루로 다지신 그이.

천재적인 예지와 무비의 담력, 강철의 의지로 원쑤들의 약점을 꿰뚫어내시고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시며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시고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가시는 그이.

《사나운 폭풍도 쳐몰아내고 신념을 안겨준》다는 시적형상은 그것이 비상이 거인적이고 랑만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형상이기전에 오늘의 시대가 우러르는 회세의 위인에 대한 가장 생동하고 적중하며 진실한 표현이고 형상인 것이다.

가사가 부각한 위대성형상의 진실성의 높이는 노래가 불리워진 이후의 현실에서 더욱 뚜렷이 확증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규모의 핵전쟁연습과 우리 군사대상들에 대한 강도적인 사찰소동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위협하였을 때 탁월한 지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시여 승리에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웅근 하나의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야 얻을수 있는 이 위대한 승리에 접하였을 때 우리 인민모두는 사나운 폭풍도 단매에 쳐몰아내시는 세기의 위인, 불세출의 영웅의 진면모를 다시금 가슴이 터지도록 받아안았으며 그 벅찬 감격속에 이 노래를 다시 또다시 목매여 불렀었다.

실로 이것은 령도자의 위대성을 구가하는 진실한 형상이 가지는 생명력과 견인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감명깊은 사실이다.

진실한 노래만이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심금에 파고들며 힘을 주는 노래만이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을 고무한다. 이 노래형상의 가치는 위대하고 영웅적인 인간세계에 튼튼히 의거하여 그것을 생동한 형상으로 부각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랑만에 넘치는 형상을 창조한 데 있다.

하기에 사나운 폭풍도 쳐몰아내시는 령도자의 방불하고 위대한 형상으로 하여 그이를 미래

와 희망의 전부로, 민족의 운명으로 노래하는 다음절의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장에 육박하는 것이며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그이를 믿는다는 그 다음절의 주장이 또한 그대로 우리 인민모두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사상감과 완전히 합치되는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를 마음의 기둥으로 억척같이 자리잡게 하는것은 바로 이처럼 진실에 투철하고 랑만에 넘치는 혁명적송가의 위대성형상이다.

가사형상의 진실성과 랑만성은 또한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충성의 의지를 표명하는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노래의 후렴은 위대한 령도자를 옹위하여 일떠선 우리 인민의 심장의 맹세를 특출한 형상으로 부각한다.

우리 인민의 충성의 의지를 절대적 경지에서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이 간명하고 격동적인 시구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와 생사운명을 함께 하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자각과 의지를 심도있게 담고있으며 그이를 옹위하여 총폭탄이 될것을 다짐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사상감정을 비상히 강렬한 느낌으로 천명하고있다.

널리 알려진 박용철의 8형제군관들은 준엄한 시대가 자신들의 어깨우에 지워준 책임을 누구보다 먼저 심장에 받아안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충성의 편지를 삼가 드리면서 그이를 옹위하는 여덟개의 총폭탄이 될 결사의 각오를 열화같이 터친바있다.

이들은 위대한 령도자를 자신들의 운명, 조국의 운명으로 통감하고 목숨바쳐 옹위할 숭고한 정신적높이에 올라선 충실성의 산 본보기였다. 한점의 불꽃은 삽시에 료원의 불길로 타올랐으며 이들의 충성심의 높이는 온 나라 인민들과 청년들의 심장마다에 강렬한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력사적인 사로청제 8차대회장은 위대한 령도자를 옹위하여 500 만개의 총폭탄이 될 결사의 정신으로 불도가니되어 끓어올랐으며 준엄한 시각이 닥쳐왔을 때 혁명의 1 세, 2 세를 이어 우리의 3 세, 4 세들은 민족의 영웅 **김정일** 장군의 휘하에 참군할것을 앞다투어 열렬히 탄원해나섰다.

노래는 바로 위대한 령도자와 생사운명을 함께 할 우리 인민의 이러한 각오와 정신과 의지의 숭고한 높이를 심오하고 격동적인 시적표현으로 밝히는데 성공하였다.

창작가들은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사상정신세계의 정수를 파고들어 그것을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라는 훌륭한 시구에 담아내였으며 그것을 매절마다 후렴구로 반복하여 울려줌으로써 노래를 인민들의 삶의 좌우명으로,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 위력한 혁명의 무기로 전환시켰다.

이 시구야말로 충성으로 높뛰는 우리 혁명대오의 지향과 의지를 기개높이 선언하는 철학적인 표현이며 국보적인 명작으로서의 사상예술적가치를 조건지은 특출한 형상이다.

이 시구가 가지는 사상예술적가치는 그것이 위대한 령도자,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받드는 우리 인민의 정신세계를 집약적으로 명언화한 그 철학적심오성에 있으며 그것을 또한 우리 인민의 생활적감정 그대로 혈연적으로 절절하게 표현한 그 정서적특성에 있다.

이 금언과도 같은 주정토로에서는 령도자와 인민과 조국, 3 자의 운명적인 호상관계가 자주성의 견지에서 제기되고 철학적으로 깊이 해명되었다.

그리하여 이 철학적인 시구에서 우리모두의 운명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연결되어있으며 그것은 오직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혁명의 고귀한 진리,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담보와 근본요인에 관한 심원한 철학이 천백마디의 설명도 미치지 못할 집약된 표현으로 응심깊이, 강한 설득력을 안고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이 시구의 심오한 철학성은 나아가서 령도자와 인민사이의 뉴대의 혈연성, 생사운명을 함께 할 각오의 절박성에 대한 강력한 정서적표현과 결합되었다.

위대한 령도자를 《당신》이라 불러 노래하는 가사형상은 그 얼마나 친근하고 소박한 진정을 질게 안겨주는것이며 령도자를 경애하는 어버이로만이 아니라 친근한 동지, 위대한 인간으로 받아들여모시는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을 방불하게 표현하는것인가.

《당신》이라는 이 인상깊은 어휘는 위대한 령도자를 우러러 노래하는 우리 시가문학의 형상세계에 새롭게 나타나 수령의 인민적이며 동지적인 풍격을 정서적으로 부각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노래는 또한 위대한 령도자를 받드는 인민의 의지를 《있다》라는 존재형의 시문장형식이 아니라 《없다》의 비존재형으로 뒤바꾸어 표현함으로써 보다 절절하고 절박한 감정, 결사의 각오를 내포한 절대적 경지대로 높이 끌어올렸다.

이 시구는 《당신이 계시여 우리도 있다》라는 식의 표현에 비하여 혁명적수령관의 정수, 충성의 의지의 절대적인 경지를 그 얼마나 절절한 체현세계에서 터치며 안겨주는것인가.

이것은 결코 하나의 실무적인 시문장기교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창작가들의 강렬하고 심오한 체험의 결과로서만 얻어낼수 있는 특출한 시적발견인것이며 신념화, 량심화되고 도덕화, 생활화된 충성의 열정만이 터칠수 있는 금옥같은 시구인것이다.

이처럼 진실하고 낭만적이며 숭고하고 절절한 시형상의 감화력과 호소성은 더없이 크다. 그것은 충실성의 산본보기들이 지닌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화의 높이로 사람들을 떠올려세워준다.

하기에 이 시구는 단순한 하나의 노래 후렴구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참된 좌우명으로 숭엄하게 울리고있다.

위대성을 구가하고 충성심을 개방하는 이 노래의 형상들은 다같이 진실과 낭만이 통일된 감명깊은것이면서도 위대성형상은 보다 생활의 진실에 투철함으로써 낭만으로 통하고있으며 충성심의 토로는 보다 강렬한 체험에 의거한 낭만적인 부각을 생활의 본질과 일치시키는 상대적인 특성을 보이고있다.

이 노래에는 우리의 위대하고 영웅적인 시대가 철두철미 창작가들의 혁명적수령관, 충성의 미학관에 기초하여 진실에 투철하고 낭만이 넘치는 형상으로 방불하게 안겨오고 힘있게 울리며 견인력과 설득력, 고무력이 충만된 위력한 형상으로 훌륭히 재현되었다.

이리하여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와 현실, 사회와 역사를 보고 자주성을 기본척도로 하여 전형화와 진실성의 원칙을 고수하는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은 수령을 중심으로 세계와 현실을 고찰하고 충실성을 기본척도로 전형화와 진실성을 해결하는 높은 경지에서 더욱 심오히 구현되었다.

노래는 자주성의 시대에 유일하게 정당한 창작방법인 주체사실주의의 높이와 형상적위력을 과시하는 시대의 송가, 명작으로 빛나고있다.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정교한 절가형식으로 철학적심오성과 혁명적열정을 톤튼히 담보하고있다.

노래는 령도자의 위대한 세계와 인민들의 칭송의 열정이 어울리어 노래되는 쌍곡선형식의 서정구조를 주체적과제와 감정조직의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구사하였다.

쌍곡선형식의 절가적서정구조, 이것은 절가의 매 절을 구조상 크게 두부분으로 구획하고 그 전반부에서 령도자의 위대한 세계를 노래에 담으며 후반부에서 위대성을 칭송하는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충성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두부분을 정서적으로 조화시켜 숭엄한 감정을 울려주는 송가의 절가형식에서 특징적으로 발전한 구조형식이다.

이 서정구조는 한개 절의 범위에서 감정발전의 단락을 크게 두부분으로 조성하여 령도자의 위대성에 대한 칭송의 열정을 충분한 전제와 축적에 기초하여 체험의 깊이에서 개방할수 있게 하며 송가적열정을 철저히 수령과 인민의 운명적인 호상관계에서 폭있고 깊이있게 노래하게 함으로써 위대성형상과 충성의 열정을 진실하게 철학

성있게 부각하는 담보를 주는 우월한 절가형식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1960 년대말에 송가 《충성의 노래》를 두고 쌍곡선형식이라고 밝혀주시는 이 특징적인 절가형식은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에서 정서적일반화의 힘을 더욱 높이 발휘하며 창조적으로 활용되었다.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쌍곡선형식의 서정구조에 령도자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념과 충성의 의지를 뚜렷이 담아 노래하면서 신념과 의지의 조화로운 통일속에서 혁명적열정을 철학성있게 부각하고있다.

절가구조를 립체적으로 활용하면서 노래가사는 위대성이 신념을 낳고 신념이 또한 의지를 북돋아 충성심을 기개높이 개방하는 웅심깊은 세계를 논리성있게 조화롭게 피력함으로써 혁명적 신념과 의지의 근원을 심도있게 밝히고 인민의 충성심을 열화같이 터쳐 노래하는 주체적과제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였다.

노래의 절가형식은 이처럼 주체형의 인간의 혁명적수령관을 철학성있게 밝히는데 이바지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체험의 깊이에서 기개높이 터치는 감정선의 심화와 양양을 위해서도 창조적으로 활용되었다.

노래는 쌍곡선형식의 서정구조를 고정격식화된 틀로써가 아니라 감정을 축적하고 심화시키며 정열적으로 개방하는 감정조직의 요구에 맞게 활용하고있다.

첫절의 전반부에서 령도자의 위대성과 위대성에 대한 신념을 함께 노래한 후 가사는 둘째 절의 전반부에서는 위대한 령도자를 민족의 운명으로 우러러 노래하면서 위대성형상에 중점을 두고 감정선을 한층 심화시켰으며 마감절의 전반부에서는 세상이 열백번 변할지라도 결코 변치 않을 절대화된 인민의 믿음을 정열적으로 토로하면서 신념과 의지의 기개높은 개방에 기본을 두어 감정선을 최절정으로 떠밀어올렸다.

이것은 쌍곡선형식의 절가구조를 종횡으로, 전면적으로 활용한 창조적탐구를 보여주는것으로써 정교한 가사형식을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 힘있는 담보로 전환시킨 성과로 된다.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수령에 대한 노래창작에서 숭고하면서 전투적인 양상을 새롭게 개척함으로써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수령에 대한 노래를 전투적이고 호소성이 강한 혁명적가요로 발전시켰다.

형상의 정서적색갈을 의미하는 양상은 시가문학의 사상예술성과 교양적기능을 보장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형상요소이다.

창작가들은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미감에 맞는 새로운 양상으로 뚜렷하게 형상함으로써 시가문학을 혁명발전에 끊임없이 따라세워야 한다.



노래는 위대하고 영웅적인 우리 생활의 본색과 작품의 교양적목적에 맞게 형상의 색깔을 새롭게 둔구어 숭고하면서도 전투적열정이 넘치는 송가적이며 전투적인 독특한 양상을 개척하였다.

우리 시가문학에서 수령에 대한 노래들은 오랜 시기를 거쳐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장중하고 격조높은 양상을 위주로 발전해오고있으며 1970 년대에 들어오면서 현실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렵니다》와 같이 흡모적이며 절절한 양상, 《수령님께 드리는 축원의 노래》와 같이 밝고 약동적인 양상들을 개척하여 다채로운 발전을 보이고있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에 대한 체험이 영광찬란한 혁명활동과 불멸의 업적에 대한 전폭적인 감수와 함께 위대한 인간세계에 대한 매혹과 절절한 흡모, 위대한 령도아래 마련되는 행복과 희망찬 미래에 대한 감수로 하여 더욱 심화되고 다양화되는 새로운 시대적조건의 필연적결과였다. 양상탐구의 이러한 특성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여 그이의 위대한 인간세계에 완전히 매혹되었으며 혁명의 밝은 앞날을 더욱더 희열에 넘쳐 내다보게 된 새로운 시대현실에 토대하여 한층 강화되었다.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와 같은 흡모적이고 절절한 양상의 작품 《사랑의 미소》와 같이 밝고 약동적인 양상의 작품들은 그 대표적인 레들로 된다. 허나 준엄한 시련을 뚫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전진시켜야 할 투쟁의 임무가 나선 새로운 력사적시기는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전투적으로 고무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으며 그것을 위대하고 영웅적인 생활로써 담보하여주었다.

창작가들은 준엄한 시대, 투쟁의 시대가 문학앞에 제기한 요구를 혁명적시가문학에서 기본의 기본을 이루는 수령송가창작에서 전투적인 양상으로 훌륭히 해결하였다.

창작가들은 불세출의 영웅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활동이 안고있는 생활의 고유한 본색과 결사의 각오로 충만된 인민- 서정적주인공의 사상감정의 색깔을 똑바로 잡아쥐고 그것으로 형상을 전반적으로 통일시켜나감으로써 숭고하면서 전투적인 양상으로 노래를 일관시켰다.

그리하여 노래에서는 레찬의 정서가 투쟁에로의 열망과 신심과 호소를 안고 힘차게 울려나오게 되었다.

노래는 수령에 대한 송가인 동시에 그대로 전투적인 혁명가요로 기개높이 울리고있다.

바로 여기에 사람들을 투쟁으로 고무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 노래의 독특한 정서적기능, 전투적위력이 있으며 양상면에서 수령을 노래한

시가문학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킨 커다란 기여가 있다.

참으로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하고 영원한 승리를 강력히 담보하는 투쟁의 기치이며 국보적인 걸작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혁명은 노래와 함께 승리해온 자랑찬 투쟁의 로정이었으며 노래와 더불어 앞으로 영원히 승리해나갈 장엄하고 기개높은 투쟁의 길이다.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우리 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충성의 작품창작으로 창작가들을 힘있게 고무하는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명작이다.

오늘 우리 문학은 바야흐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직한 새형의 혁명문학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뜻깊은 력사적시기를 맞이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에 충직한 문학건설은 오늘에 와서 비로소 시작된 사업이 아니라 오랜 력사적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온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그러나 혁명위업계승의 숭고한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완성하신 위대한 령도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전당, 전국, 전민, 전군을 이끄시여 준엄한 시대의 앞장에서 절대적인 지위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계시는 오늘의 새로운 시대적 환경과 조건은 이미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그이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문학을 모든 주제, 모든 형태에 걸쳐 전면적으로 창조할데 대한 새로운 높은 단계의 과제를 제기하고있다.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대화된 충실성의 미학을 궁지높이 선언하고 성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주체의 문예관에 더욱 심오한 리해를 주고 주체문학의 새로운 발전의 지표를 마련하였으며 그 양양기를 힘있게 열어준 선구자적작품으로 되었다.

이 노래는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는 절대화된 충성의 관점과 립장으로 작가들의 세계관과 미학적리상을 높여줌으로써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중심에 놓고 현실세계를 고찰하며 그이에 대한 충실성을 근본척도로 하여 전형화의 원칙을 구현하도록 문학발전을 크게 고무하였다.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문학의 높은 사상예술성과 가치, 운명을 전적으로 규정짓는 유일무이한 척도로 확고히 전환되고있다.

우리 문학의 모든 주제방향에서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와 같은 충성의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투쟁이 적극 벌어지고있다.

우리 문학의 총적인 방향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우리 당의 성스러운 위업을 형상하는데 있다.

우리 문학은 《우리 식 사회주의총진군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생활, 그이의 사상과 경도를 관철하기 위한 충성의 투쟁에 모를 박아 빛나게 형상하고있으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도 그이를 《친, 지, 김, 동》이라 심장속에 새기며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우러러 따르며 싸우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생활을 주류로 뚜렷이 형상하고있다.

우리 문학은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그이의 혁명활동을 높이 레찬하며 그이를 세계의 향도성으로 흠모하며 뭉쳐나서는 새로운 시대조류에 형상의 각광을 집중하여 부각하고있다.

시대를 전도하는 투쟁의 기치인 시가문학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흠모와 충성의 열정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서정으로 일색화되고있으며 소설문학도 온갖 낡은 소설미학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형의 현대적인 소설문학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중심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을 세계관으로 삼고 그이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새로운 시대적성격창조에 두고 신심있게 전진하고있다.

참으로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가 우리 혁명의 승리와 주체문학의 새로운 전진에 기여한 몫은 크다.

모든 창작가들은 이 노래가 보여준 실천적본보기를 따라 우리의 주체문학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경도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문학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새로운 력사적단계의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것이며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서 지닌 숭고한 사명을 빛나게 수행할것이다.

## 이 기쁜날 더욱 그리워

황승명

인민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고  
어머님의 념원도 활짝 꽃핀  
참으로 뜻깊은 12월입니다  
이날이 오니 어머님을 그려보던  
전승 40 닢 뜻깊은 그날이 생각납니다

지축을 울리는 발구름소리  
천지를 흔드는 만세의 환호성  
열병단상에 높이 오르시여  
환히 웃으시며 답례를 하시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원수를 우러르며  
인민은 어머님을 생각했습니다

천지에서 방금 솟아오른 룡마런듯  
하얀 백마우에  
어리신 아드님을 앉히시고  
일찌기 백두의 산정에서  
어머님 그려보신 오늘이 아닙니까

귀를집 구름노전우에 놓여있던  
권총과 쌍안경과 쪽무이 조선지도  
엄혹한 눈보라와 항일의 전장에서  
결음마를 익히고 담력을 키우신  
백두산의 그 프락이 어려웁니다

별 나비 꽃을 어리신 나이에  
총을 먼저 익혀주신 김정숙어머님  
귀에 쟁쟁히 울려웁니다  
잠자는 아드님의 머리맡에서  
첫 군모에 별을 새기시고  
바지에 붉은줄을 누비시며  
어서 자라 속히 자라 총칼을 메고

나가 싸우자고  
나직이 울리시던 자장가소리...

어머님의 간절한 그 마음  
크나큰 그 뜻을 가슴에 새겼기에  
최고사령부의 작전대앞에서  
수령님의 일당백전법도 익히셨고  
산발을 따라 전호를 따라  
이 땅의 마감 전연초소까지  
몸소 밟아보신 친애하는 그이

원썩들의 준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신  
탁월한 지략과 무비의 그 용맹  
명장의 천품을 한몸에 지니신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원수

아, 영웅의 뒤에는 영웅의 어머니가  
명장의 뒤에는 명장의 어머니가 있거니  
우리는 그날에 보았습니다  
터지는 환호속에  
우러러 다함없는 거룩한 그 영상  
김정숙어머님의 못잇을 그 모습을...

인민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고  
어머님의 념원도 활짝 꽃핀 행복에 넘쳐  
전사들은 받들어 총을 합니다

최고사령관 무적의령장을 안아올리신  
조선의 어머님을 우러러  
인민들은 만세, 만세를 웨칩니다

## 독립성

량강도 운흥군 읍거리에서 백두산쪽으로 뻗은 골짜기를 따라 40 리가량 올라가면 수림에 둘러싸인 오붓한 마을이 있다.

원래 이곳은 북두칠성조차 비쳐들지 않는다는 깊고 험한 골안이어서 사람이 살고있지 않았다.

일제놈들의 모진 탄압과 천대를 피해 인간세상을 등진 어느 한 처서군이 이 깊은 산중에 피나리보짐을 풀어놓은 다음부터 여기저기서 한사람 두사람 모여들기 시작하여 자그마한 마을이 생겨났다.

마을사람들은 해가 서산에 기울어지기 바쁘게 저녁 한술 대충 뜨고는 70 고령에 가까운 최달수아바이네 집에 밤마다 모여들어 살아갈 이야기며 옛말 같은것을 나누면서 긴긴 겨울밤을 보내곤하였다.

그 겨울밤 이야기엔 오르지 않은것이 없었다.

오래동안 폐궁으로 남아있던 경복궁재건공사의 나날 《아리랑》 노래에 깃든 피눈물나는 이야기도 하였고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구호를 들고 싸운 전봉준농민전쟁이야기도 올랐다.

그러나 하면 리순신, 강감찬 장군 이야기도 하였고 봉이 김선달 이야기도 하여 사람들을 웃기였다.

최달수아바이는 원래 아는게 많은데다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녀서인지 이야기관을 펼쳐놓기 시작하면 명주복실 풀어놓듯 온밤 그칠줄 몰랐다.

마을사람들은 최달수아바이의 이야기가 하두구수하여 저녁마다 광술불둘레에 모여앉아 밤가는줄 모르고 듣곤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이 마을에는 자그마한 보짐을 둘러멘 나이 들직한 길손이 들었는데 그도 마을사람들의 이야기관에 끼여들었다.

최달수아바이가 구수한 이야기를 늘어놓자 길손은 담배쌈지를 풀어헤치고 방망이같은 담배를 말아 연거퍼 뒤대 빨아넘기더니 아바이의 말을 이어받았다.

길손이 어찌나 이야기를 구수하게 했던지 마을사람들은 그의 무릎앞에 바짝 다가앉으며 귀를 강구었다.

그는 점점 더 신이 나서 제눈으로 모든 사실을 본것처럼 생동하게 이야기를 엮어댔다.

...어느날 밤, 길을 가는데 갑자기 백두산마루에 구름이 뭉게뭉게 피여오르더니 그속에서 커다

란 불덩이가 나타나 하늘높이 솟아오르더라는것이였다.

하도 신기하여 솟아오른 불덩이를 바라보느라니 그것은 전에 볼수 없었던 유난히 밝은 달인데 그빛이 어찌도 찬란한지 칠칠야밤이던 수림속이 대낮같이 밝아 개미가 기여가는것까지 다 보였다고 하였다.

그는 손을 뻗치면 닿을것 같은 달덩이를 더 가까이에서 보고싶어 수림속을 헤치며 백두산쪽으로 걸음을 다그쳤다고 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몸이 뚱뚱 뜨는것같이 가벼워져서 산등성이라도 쉽게 넘을수 있었다고 하였다.

길손은 백두산의 정기가 온몸에 뻗쳐와서인지 단숨에 산봉우리 몇개를 넘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 백두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높은 산마루에 올라섰다고 하였다.

깎아지른듯한 벼랑밑으로 이깎나무숲이 무연히 펼쳐졌는데 엷은 안개가 그우를 감도는것이 마치도 신선이 되여 하늘나라에서 땅을 굽어보는듯했다고 하였다.

동쪽을 바라보니 밝은 달빛을 받아 푸른 물결이 번쩍이는 동해바다가 지척에 보이는것 같고 남쪽으로도 멀리 푸르스름한 남해바다가 보이는것 같았다고 하였다.

마을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너무도 신기하여 모두들 자리에 못박혀있었다.

최달수아바이도 희끄무레한 광술불밑에서 곱방대를 찾아들었으나 부시를 칠 생각은 하지 못하고 희끄무레 밝아오는 창호지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국운이 열릴 새로운 조짐이 아닐가?

그게 사실이라면 나라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게 틀림없네. 천기조화는 그저 범상히 여길게 아닐세.》

최아바이는 마디마디 생각을 담아 말하였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흥분에 찼다. 그 어떤 희망의 빛이 고달프기만한 그들의 생활에 비껴드는듯싶었다. 그들은 재미나기만 한것이 아니라 희망을 안겨주는 이야기를 들려준 길손이 고마와서로 자기 집으로 가자며 이끌어갔다.

최달수아바이는 마을사람들이 헤어져간 다음 자기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싶었으나 처서관에서 돌아와 곧히 잠든 모습을 보자 단념하고 저혼자 밖으로 나갔다.

푸름푸름 밝아오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행여나 방금 길손에게서 들은 그 밝은 달이 어디 있을가 두리번거리는데 멀리 백두산쪽에서 우르릉 우르릉 하는 우뢰소리가 동안을 두고 세번 울리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별찌가 긴꼬리를 달고 내려왔다.

그런데 또 이상한것은 별찌가 이깔나무숲속에 떨어지자 화광이 번쩍 일더니 흰구름이 몽게 몽게 피어오르는것이였다.

(아니, 이것참 희한한 일이로구나.)하며 최달수아바이는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내려가 잠자는 아들을 두들겨 깨웠다.

《애야! 빨리 일어나거라. 희한한 일도 있구나! 어서!》

영문을 모르고 일어난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둔덕우에 올라서서 아버지가 가리키는데를 바라보았다.

멀리 숲속에서는 신기한 구름이 몽게몽게 피어오르고있었다.

아버지에게서 어제밤 길손이 들려준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아버지와 의논한 끝에 아침밥을 일찌기 해먹고 흰구름이 피어나는곳을 향해 떠났다.

이들 부자가 수림속을 헤치며 반나절이나 걸어 어느 한곳에 이르니 아름답리 이깔나무들마다에 글들이 내리썩여져있었다.

하지만 그들 부자는 글을 모르다나니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수 없었다.

한동안 주먹같은 글들을 바라보며 궁리를 토했던 최달수아바이는 아들에게 글자를 그대로 옮겨 그려가지고 돌아가자고 했다. 아들의 베적삼을 벗겨서 땅우에 놓고 주변에 널려진 숯덩이를 가져다가 글자를 그대로 옮겨그려가지고 마을로 돌아온 최달수아바이는 30 리 떨어진 아래마을에 아들을 띄워 글아는 늙은이에게 그 내용을 알아오게 하였다.

그날저녁 마을돌이군들은 최달수아바이에게서 별찌이야기며 나무에 쓴 글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가는줄 모르고 듣고있었다.

그들은 글자의 뜻을 해석해가지고 돌아올 최아바이의 아들을 기다렸다.

밤이 이슬하여 아들이 왔다.

《어떻게 되었느냐?》

아들이 문턱을 넘어서기 바쁘게 최달수아바이가 재촉하였다. 그만큼 그들은 목이 타게 기다렸던것이다.

《어떻게 되긴요, 알아왔지요뉘. 그 글의 내용 인즉은 백두산에 조선독립의 별이 떴으니 오래지 않아 우리 백의민족이 새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는것이였어요.》

《뉘? 조선독립의 별이 떴다구?》

《예. 그래 오면서 백두산쪽 하늘을 보니까 장군별옆에 또 새로운 별 하나가 떠서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어요.》

《독립성이 떴구나!》

마을사람들은 약속이나 한듯 모두 자리를 차고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백두산쪽 하늘을 보니 정말 보지 않던 새로운 별 하나가 떠서 유난히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마을사람들은 너무도 놀랍고 희한하여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별 이야기를 하였다.

그들은 우뢰가 세번 일었으니 해마다 마을에 3 복이 내린다고도 하였고 3 년후에 밝은 세상이 온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마을사람들은 그후 3 년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오던 끝에 조국광복의 새날을 맞이했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독립성이 떠오르던 그날의 이야기가 길이길이 전해내려오고있다.

이 전설과 관련하여 한마디 덧붙이려고 한다.

백두산밀영의 한 강사의 말에 의하면 어느해인가 깊은 밤에 때아니게 정일봉우에 해가 솟은듯 붉은 화광이 하늘로 뻗치였다고 한다.

이런 신기한 현상은 그날밤 답사빠스 운전수도 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다음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여기 백두산밀영을 찾으시였다는것이다.

그들은 천기조화는 범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늘이 낸 위인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찾아오시는것을 미리 예고하여 때아닌 밤중에 해가 뜬것이라고 한다.

우연히 일어난 자연현상이라고 하지만 너무도 신통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독립성전설이야기를 하면서 즐겨 그때 일을 결부시키군한다.

# 명제해설

《지성도가 높다낮다 하는것은 작품에 보통사람들이 알고있는것보다 얼마나 더 깊고 풍부한 지식이 담겨져있는가, 사람들이 경탄하고 높이 올려다볼만한 고상한 미의 세계가 개척되었는가, 형상미와 문화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한마디로 말하여 작품의 세계가 높은가 낮은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김정일

지금까지 문예학계에서는 작가의 지성, 문학 작품의 지성도에 대하여 작가적준비, 작품의 품격과 관련시켜 개별적인 낱말로 강조하였을뿐 학술적으로 개념을 정식화하거나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지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작가의 지성, 문학의 지성도를 중요한 미학적문제로 제기하시고 그의 본질과 중요성, 표현과 요구, 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우의 가르치심은 문학의 지성도의 본질적내용을 명확히 밝혀주고있는 고전적명제이다.

지성이란 사물의 리치를 깨달아 아는 능력, 또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특성이다. 인간이나 인간의 창조물에는 반드시 일정한 지성이 체현되어 있다. 그것이 보통수준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것을 가르쳐주는것이 있을 때 지성이 있다고 말하군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의 지성도는 한마디로 말하여 형상세계의 리성적인 높이라고 정식화하시었다.

문학의 형상은 리성적인것과 감성적인것의 통일로 이루어진다.

감성적인것은 독자들에게 인간과 생활을 생동하게 표상시키고 정서를 체험시키는 구체적이고 개성적인 화폭이라면 리성적인것은 이 화폭을 통해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인간과 생활, 시대와 력사의 진리이며 그것을 체현한 인간성격과 성장의 본질이다.

이 감성적인것과 리성적인것의 호상관계에서 리성적인것이 주도적이다. 물론 문학은 그자체의 미학적특성으로 하여 감성적인 요소를 중시하지만 감성적인것은 리성적요소의 주도적인 작용을 떠나서는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 아무런 기여도 할수 없다.

빨간 장미가 그아무리 방불하게 그러지였어도 그것이 체현한 인간학적미, 생활에 대한 리해와 성격의 본질과 관련시켜 형상하지 못하였다면 예술로서의 가치를 가질수 없다.

단편소설 《푸른 잎사귀》에서 주인공의 시점에 안겨오는 장미등굴의 조용한 흔들림 그리고

물우에 푸른 잎사귀가 떨어져 가벼운 무늬를 새기는 섬세한 묘사는 단순히 감성적인것에 머무는것이 아니라 공로없는 한 전상자의 아픔을 헤아리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중의 괴로움을 표현하는것으로 하여 뜻도 깊고 정서도 강하게 체험된다.

이처럼 구체적형상을 지배하면서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리성적인것의 높이가 바로 작품의 지성도이다.

어떤 작품이나 할것없이 구체적인 형상은 작가의 의도, 리성적인것의 지배밑에 있지만 이 리성적인것이 응당한 높이를 가질 때 비로소 작품은 지성세계를 지닐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품의 지성도가 높다낮다 하는데 대하여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주요요소들과의 련관속에서 알기 쉽게 밝혀주시었다.

문학의 지성도는 우선 보통사람들이 알고있는것보다 더 깊고 풍부한 지식이 담겨있을 때 사람들을 깨우치고 경탄하게 할만한 새로운 철학의 세계, 미의 세계가 개척되었을 때 응당한 높이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작품의 지성도가 무엇보다도 생활과 성격, 즉 작품의 내용에서 담보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지성인의 기본표징의 하나가 지식이 풍부하고 뜻이 높는데 있는것처럼 문학작품도 어디까지나 사상적내용이 심오하고 고상하여야 높은 지성세계를 보장할수 있다.

내용의 지성도는 작가에 의해 새롭게 발견된 생활철학이 있고 아름답고 고상한 미의 세계가 탐구형상될 때 사람들이 새롭게 알고 받아들일만한 인간과 사회, 자연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담고 있을 때 보장될수 있다.

작품에 작가에 의하여 발견된 생활철학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지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것은 철학적발견이 인간의 리성적활동의 정화물로서 작품의 지성도를 대표하고 작가의 리성적사유활동의 수준을 뚜렷이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문학의 지성도는 객관세계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과도 관련되지만 중요하게는

독자들이 문학을 통해서만 받아안게 되는 생활철학을 새롭게 탐구하여줄 때 사람들을 깊은 사색으로 이끌수 있다.

작품의 지성도는 또한 형상의 구성과 묘사와 같은 형상 수단과 수법들을 활용하는 형상기교와 문화수준에 따라 그 높이가 결정된다.

작가의 지성, 문학작품의 지성은 내용과 함께 그를 표현하는 형상능력에서 나타나게 된다. 작가가 형상을 창조하는 과정은 그자체가 예술가적인 능력과 자질의 발현과정이다. 인류가 쌓아올린 예술창조경험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독자적인 생활탐구와 미학적의도에 맞게 형상 수단과 수법

들을 능숙하게 활용할줄 아는 작가만이 작품의 지성도를 원만하게 보장할수 있다. 촌티를 벗지 못한 작품, 누구나 쓸수 있는 수법으로 씌여진 작품, 작가의 독특한 재간이 엿보이지 않는 작품은 결코 지성세계가 높다고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문학의 지성도에 관한 주체적문제이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생활의 박식가로 뜻이 높고 수양있는 문화인으로 준비하며 예리한 철학적안목과 지성적인 사고력, 높은 형상능력을 지니고 우리 문학의 지성수준을 더욱 높이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위대한 믿음의 글발

오영재

당보를 받아볼 때마다  
눈앞을 가득 채우며 불현듯 목메여오는 글발  
어제는 8 형제군관과 7 형제운전사에게  
오늘은 또 6 형제군관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련이어 적어주시는 뜨거운 회답의 글발

감격의 열풍이  
온 나라를 휩싸안았습니디  
밖에서는 모진 찬바람이 아우성치고있어도  
이 땅에서는  
따사로운 사랑이 내립니다  
뜨거운 믿음이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민의 충성에서 천하를 얻으시는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령도자와 인민의 이 믿음은  
가장 순결한 심장과 심장의 융합입니다

준엄한 시대는 우리에게  
하나의 새로운 진리를 주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력한것  
그것은 믿음임을  
그 믿음은 그 어떤 핵탄으로도 소멸할수 없고  
그 어떤 요염한 바람으로도 녹일수 없음을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인민은 힘에 넘치고  
령도자는 인민에게서 힘을 얻으시는  
우리의 이 믿음

그것은 주체입니다  
일심단결입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그것은 승리입니다

한자한자 생각깊이 써주신 글발  
번쩍이는 총창끝에는 멸적의 서리발을 돌쳐주고  
탄전의 하늘밑엔 검은금의 폭포를 비껴주고  
설레이는 벌에는 풍년기쁨 없어주는 그 글발  
내 눈에 어리는 그 글발은  
해불입니다  
신념입니다  
붉은 기발입니다

그것 없이는 살수 없는  
위대한 사회주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지키는 힘을  
인민에게 주신 지도자동지  
죽음도 물리치고  
쓰러진 전사도 안아일으키는 생명의 그 글발  
활달하고 신심이 가득담긴 그 글발은  
인류의 진리가 고수되는 모습입니다  
사회주의가 고수되는 조선의 녀입니다

주체의 붉은 노을이 지구를 덮고  
세계에 사회주의가 승리한 날에  
간고한 20 세기의 마지막 년대에  
사회주의의 보루를 끝까지 지켜낸  
그 요인을 후대들이 묻는다면  
우리는 이 글발을 높이 들어  
이 글발에 그이는 이미 승리를 새겼다고  
력사앞에 자랑높이 말할것입니다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투쟁력사는 탁월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인민대중이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때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습니다.》

김 정 일

수필

## 위대한 힘

허창근

원시생활을 하던 최초의 인류가 계급으로 갈라지고 나라가 형성된 다음부터 매개 나라는 자기의 무력을 가지게 되었다.

반동들은 무력으로 남을 먹어치우기 위해서였고 평화를 바라는 인민들은 침략자의 공격앞에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힘을 키워왔다.

열병식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흔히 무력시위라고 부르는... 말 그대로 자기 나라의 군사적힘에 대한 일대 시위일것이다.

강유력한 우리의 군사적힘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올해 여름에 있었던 전승 40돐 열병식과 지난해 4월 25일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창건 60돐기념 열병식장면들을 회상하게 된다.

특히 건군절에 즈음하여 진행되었던 열병식은 나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있다.

그날 나는 울렁이는 가슴을 안고 열병식장으로 달려갔다.

이 나라의 공민된 심정에서 으리으리하고 장엄한 우리의 무력을 보게 된다는 자랑과 긍지감이 짙 차올라 마음은 어린애마냥 즐거웠다.

누구나 열병행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목이 쉬는줄도 모르고 만세를 부르며 손을 흔들었다.

또 제가 우는줄도 깨닫지 못하며 눈물을 줄줄 흘리었다.

온 광장을 쨍쨍 울리는 일당백 병사들의 그 힘찬 모습, 기계화부대의 장엄한 위용...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현대적인 무장장비들, 하늘이 통채로 무너지는듯한 동음속에 광장상공을 날아지나가는 최신식 비행기의 편대들...

정녕 세상에 우리를 감히 건드릴자들은 없다.

위대한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여 우리의 전사들은 저처럼 당당하고 뚝뚝하게 위용차게 나아가는것이 아닌가...

그날 내가 특별히 깊은 감동을 받은것은 열병대오의 맨앞에서 두손을 흔들며 걸어나가던 항일의 로투사대렬이었다.

참으로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였다.

일반적으로 열병식이라 하면 끝끝한 병사들이 총창을 비껴들고 철갑모를 눌러쓰고 장화를 번쩍거리며 쨍쨍 발맞춰나가는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

하기에 열병대오를 편성하기에 앞서 해당 부문의 일군들도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고...

그러나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항일의 로투사들을 열병대오의 맨앞에 세우도록 새로운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여기에는 로투사들을 혁명의 핵심으로 모범으로 내세워주고 아끼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뜻과 고매한 사랑이 깃들어있다.

혁명의 1세대, 항일의 로병들의 수령에 대한 고결한 충성심을 본받아 새 세대들모두가 열렬한 혁명가로 준비되길 바라시는 심원한 뜻이 집대성된 화폭이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고 고령의 나이에 이른 항일혁명투사들을 영원히 혁명대오의 한 성원으로 맨앞자리에 내세워주시려는 그 웅심깊은 사랑과 믿음!

혁명전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긍지와 행복은 없다.

오직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지도자로 모신 우리 인민만이 누릴수 있는 영광이며 행복인 것이다!

전사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충성심을 낳기 마련이다.

주석단을 향해 두손을 높이 추켜들고 환호를 울리며 광장을 걸어나가는 로투사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얼마전의 일을 회상하게 되었다.

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제 6기 제 19차 전원회의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가장 훌륭하게 이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혁명무력의 령수로 되시었다!

지혜롭고 과감하며 대범한 젊으신 우리의 최고사령관!

민족 역사에 크게 기록될 이 기쁜 소식이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알려지자 사람들은 새로운 흥분에 싸여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싸워갈 결심을 다지고다지였다.

나역시 그러하였다.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의 슬하에서 항일전의 총포성을 자장가처럼 들으시며 나서 자라신분!

일제와 미제를 때려부시고 우리 인민을 오늘의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몸가까이 모시면서 뛰어난 지략과 백전백승의 령군술을 익혀오신분!

그분께서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나서시였다.

이제 우리 앞길에 또 얼마나 세상을 놀래울 빛나는 승리가 이룩될것인가!

그로부터 며칠후 조선중앙방송에서는 평양시 중구역 련화 1 동에서 살고있던 20명 항일의 로투사들이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올린 편지내용이 보도되였다.

《위대한 지도자동지, 안녕하십니까?

진정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국력사에서 가장 뜻깊은 한해로 수놓아질 1992년 설날을 앞두고 자나깨나 흥모하여 마지않는 지도자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평양시 중구역 련화 1동 11세포의 20명 당원들인 항일의 전사들은 위대한 지도자동지께 삼가 전투적경례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50년전 백두산밀영 고향집에서 지도자동지께서 탄생하시였을 때 너무 기뻐 밀림속의 나무껍질을 벗기고 〈조선아! 백두광명성 탄생을 알린다!〉라고 북박아 썼던 그날을 다시 맞은것만 같습니다.

막 달려가 몸가까이 우러르며 이 감격과 기쁨을 아뢰이고만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 든든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복무함!〉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맹세이며 삶의 최종목표입니다.

어쩔수 없이 이제는 70, 80고령에 이른 몸들이지만 우리의 힘과 지혜를 오직 위대한 지도자동지를 위하여 깡그리 바치겠습니다...》

로투사들의 절절한 심정이 글자마다에서 느껴지는 참으로 소박하고도 뜨거운 편지였다.

그날 나는 스무명 로투사들이 살고있는 인민반으로 찾아갔다.

그들을 만나 좋은 이야기를 듣고싶어 건달수 없었던것이다.

백두밀림의 세찬 바람에 거칠어진듯한 절절한 목소리와 번쩍이는 눈빛, 기백이 느껴지는 시원시원한 동작...

로투사들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중에서도 한사람같이 절절하게 외우던 투사들의 마지막 말은 나의 가슴속에 영원히 지울수 없는 신념의 목소리로 아로새겨져있다.

《...사령관동지를 잘 받들어모시는 길에 혁명의 승리가 있소. 그 심정이...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편지를 올리지 않고서는 못견디게 했던거요.》

수령을 잘 받들어모시는 길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

이것은 비단 투사들의 심정만이 아니다.

멀고도 시련 많은 혁명의 길을 헤쳐오는 과정에 우리 인민모두가 심장으로 체득한 진리이다.

수령은 전사들을 믿고 전사들은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어모시고...

수령과 전사의 이 혈연적인 통일단결!

이것은 우리 혁명승리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

군대의 수나 무장장비만으로는 계산할수 없는 이 힘은 지구우에서 이미 자기의 위력을 시위하였다.

그 힘앞에 일제가 멸망하고 미제가 꺾꾸러졌다.

올해에도 제국주의자들은 위대한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우리 나라를 굴복시켜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지만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전당, 전민, 전군이 떨쳐일어나 놈들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지 않았던가.

하여 조선은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는 사회주의보루로 지구우에 거연히 솟아 빛을 뿌리고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성장이 왕성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세찬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불패의 대오- 우리 인민이 나아가는 앞길에 조국통일의 그날도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아침도 찬연히 밝아오리라.



《우리의 노래가 혁명투쟁과 대중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가사문학에서부터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김정일

위대한 업적

## 가사혁명의 불길속에서(4)

### 한편의 가사를 대작으로

대작이라는 말은 지난날 사회생활을 폭넓게 반영하고있는 규모가 큰 서사시적형식의 작품만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쓰이었다. 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에 하나의 짙막한 가사를 대작으로 꽃피워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1982년도 다 저물어가던 12월 23일 밤이었다.

이날은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 동지의 탄생 65돐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밤하늘에서는 축복의 꽃보라인양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고 라디오와 텔레비존에서는 김정숙동지를 노래한 시와 음악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오로지 한평생을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찬란한 향도의 태양을 안아올리시는 성스러운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며 잠 못드는 밤이었다.

이 밤 자정도 가까와오는데 한 시인의 집 방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작가동맹의 한 일군이었는데 가쁜숨을 몰아쉬며 시인더러 창작실로 빨리 나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시인이 그를 따라 창작실에 나오니 당중앙위원회 한 일군이 기다리고있었다.

당중앙위원회의 일군은 시인의 손을 꼭 잡아 주더니 이윽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가 지은 가사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를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전해주는 것이었다.

(내가 쓴 미숙한 작품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보아주시다니!)

너무도 뜻밖의 소식에 접한 시인은 귀가 다 멍멍하고 가슴이 막 방망이질을 하였다.

그는 뿔어오르는 흥분과 격동속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전달받았다.

새로 지은 노래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의 가사와 곡이 잘되었는데 오늘중으로 가사를 조금 고쳐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는 것이었다. 그러시면서 가사 1절에 《해방된 삼일포에 단풍

이 타는데 장군님 모시고 어머님 오셨네》라고 되어있는데 표현이 너무 직선적인 감이 있으므로 그 표현을 《항일의 녀전사 여기에 오셨네》라고 하든지 《항일의 명사수 여기에 오셨네》라고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가르쳐주시었던 것이다. 계속 하시여 《항일의 명사수 여기에 오셨네》라고 하면 2절에 《항일의 명사수로 빛나던 그 모습》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항일의 명사수라는 말이 두번 나온다고 말씀하시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노래의 제목이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이므로 일없겠지만 아무래도 반복되는 감이 있으므로 이 노래를 지은 작가에게 가사의 일부 표현을 고칠데 대하여 알려주어 고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었다는 것이었다.

격동으로 뛴뛰는 가슴을 안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구절구절 새겨가던 시인은 가사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놀랐다.

시인이 써올렸던 가사구절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활달한 필치로 《항일의 명사수 여기에 오셨네》로 친히 수정하여 내려보내주시었던 것이다.

그이의 사랑어린 필치를 더듬는 순간 시인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두볼을 적시었다.

이토록 따뜻이 손잡아주시어 가사작가로 내세워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친애하는 그이께서 근 반년나마 시인이 안타까이 모대기면서도 찾지 못했던 표현들과 어휘들을 순간에 찾아내시여 완성시켜주기 위하여 이렇듯 깊은 심혈을 기울이시니 그가 어찌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있으랴.

시인은 이름할수 없는 걱정을 안고 그이의 말씀을 받들어 가사를 고쳐나갔고 지도일군들은 무릎을 마주하고 도와주었다.

온 나라 인민들이 행복의 요람속에 깊이 잠든 이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만이 주무심을 잊으시고 수정한 가사를 기다리고계신다고 생각하니 잠시도 지체할수 없는 그들이었다.

시인과 창작지도일군들은 토론회에 2절 첫단 《항일의 명사수로 빛나던 그 모습》을 《혈전의

언덕우에 빛나던 그 모습》으로 고치자는데 합의를 보았다.

이렇게 수정은 하였지만 아직도 확고한 신심을 가질수 없어 10 개의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올리기로 하였다.

수정한 가사를 안고 당중앙위원회 일군이 달려가던 그 시각은 어느덧 밤 2시가 꺾 지나 북두칠성도 저 멀리 기울어진 때였다.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새벽 4시가 넘도록 쉬지 못하시고 록음한 가사를 다시 들어보시며 해당 일군들에게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여러개 수정안을 놓으시고 일일이 보아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가운데서 《진달래 품에 안고 조국을 그리던 그 모습 물결우에 정답게 비꼈네》라는 안이 좋겠다고 하시다가 그러면 3 절에 동백꽃이 나오므로 꽃이 반복된다고 하시면서 《혈전의 언덕우에 빛나던 그 모습》이라는 표현을 그냥 두자고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노래를 방송과 신문들에 내보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하여 김정숙동지의 탄생 65 쉰이 되는 뜻깊은 24 일 아침부터 녀성독창으로 된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가 방송으로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되었다.

해방된 삼일포에 단풍이 타는데  
항일의 명사수 여기에 오셨네  
못잊을 그날에 울리신 총소리  
오늘도 울려가네 하늘가 저 멀리

혈전의 언덕우에 빛나던 그 모습  
푸르른 물결우에 정답게 비꼈네  
못잊을 그날에 울리신 총소리  
충성의 메아리로 우리를 부르네  
...

하지만 이 노래에 대한 친애하는 그이의 지도는 여기서 끝난것이 아니였다.

24 일 오전이였다. 방송으로 나가는 이 노래를 주의깊게 들어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사에 비추어보면 여운이 없다고 하시며 노래를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주제가처럼 늘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창작가들과 일군들에게 편곡과 형상에서 더 기교를 부릴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그 방도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 저녁에 가사도 친히 수정하여 내려보내주시였다.

해방된 삼일포에 단풍이 타는데  
항일의 녀전사 여기에 오셨네  
못잊을 그날에 울리신 총소리  
오늘도 울려가네 하늘가 저 멀리

항일의 명사수로 빛나던 그 모습  
푸르른 물결우에 정답게 비꼈네  
못잊을 그날의 삼일포 총소리  
충성의 메아리로 우리를 부르네

동백꽃 피어나는 남해의 기슭에  
장군님 모시고 갈 그 녀원 불탔네  
못잊을 그날의 삼일포 총소리  
통일의 녀원 담아 끝없이 울리네

천만년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영원히 잊을수 없는 김정숙동지에 대한 그리움을 한가슴에 차넘치게 하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빛나는 구감이신 녀사를 따라배워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성하다도록 우리 인민들의 가슴에 뜨거운 걱정이 차넘쳐흐르게 하는 명가사였다.

구절구절 새겨볼수록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완성시켜주신 가사는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하게 형상된 하나의 서정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처음에 시인이 《장군님 모시고 어머님 오셨네》로 썼던 가사의 1 절 2 행을 《항일의 녀전사 여기에 오셨네》라고 친히 고쳐주신것이였다.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가 것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뜻깊게 울리는것은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백두산에서 싸우실 때 울리신 항일의 충성을 광복된 조국땅 삼일포에서 남녘땅을 해방할 불타는 지향과 의지를 담은 조국통일의 충성으로 다시 울렸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실 녀원과 의지를 담은 그 유정한 삼일포의 충성을 뜻깊게 강조하기 위하여서는 《항일의 녀전사 여기에 오셨네》라고 표현하는것이 가장 적절한 시적표현으로 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1 절에서 《항일의 녀전사》라고 표현하여 시적전제를 인상적으로 충분히 제시하고 점차 심오한 시적세계로 순탄하게 이끌어 삼일포의 총소리를 조국통일의 총소리로 승화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감회를 자아내며 강력한 투지에 불타게 하고 충성으로 가슴눌뿔게 하여주시였다.

초고에 불과하였던 작품을 사상예술성이 높고 창작적사색이 깊은 명가사로 완성하여주시고

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모든 성과를 창작가들에게 돌려주시었다.

다시 편곡하여 재형상한 노래를 25 일과 26 일에도 여러차례 들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사가 시적으로 잘되었다고 하시면서 가사는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처럼 써야 한다고 거듭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정서를 보태주었고 자신의 의도에 접근하였다고 하시며 창조집단에 친히 감사문까지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의 사색적이고 심오한 선율을 들으시면서 자기 수령과 조국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선렬들의 고귀한 생애에 대하여 뜨거운 마음을 안고 회상하게 되며 오늘의 생활이 행복할수록 혁명선렬들의 업적을 잊지 말고 그들의 높은 뜻을 계승완성하여야 하겠다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한편의 명곡이 인민에게 주는 큰 힘에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에 대하여 기율이신 심혈과 창작가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랑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1982 년 문학예술부문에서 성과작들을 친히 지적하시면서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도 중요하게 꼽아주시었다.

온 나라가 환희를 안고 설명절을 즐기던 1983 년 1 월 2 일, 당중앙위원회 한 일군을 부르시여 최근 창작한 노래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는 평범한 가사를 가지고 지은 노래이지만 내용이 깊기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다고, 바로 이런 노래가 대작이라고 하시며 예술작품에서는 내용이 좋아야 대작으로 되지 규모가 크다고 하여 대작으로 되는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었다는것이였다.

인민들이 모두 행복에 겨워 설명절을 즐기고 있는 때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순간의 휴식도 없이 일군들을 친히 부르시여 새해 문학예술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또다시 가요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에 대하여 말씀하시었다는것이였다.

예술작품은 규모를 크게 하여 대작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용을 깊이있게 잘 그려 대작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요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도 실지 생활속에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잡아 깊이있고 생동하게 형상하였기때문에 좋은 노래로 될수 있었다고 하시었다.

이렇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의하여 짙막한 한편의 가사가 명가사로 완성되어 력사상 처음으로 가사대작으로 태어나게 되였다.

## 가사

# 우리는 같이 있네

유국진

해빛밝은 병실에 모셔진 사진  
우러르면 가슴엔 자랑 넘치네  
**김정일** 우리의 최고사령관  
그이결에 웃고있는 우리의 모습  
아 언제나 이 사진처럼  
우리는 같이 있네 그이의 병사로

총잡은 우리 손도 쏘어보시고  
집소식도 다정히 물어주셨네  
**김정일** 우리의 최고사령관

그이 품에 안겨있는 우리의 모습  
아 언제나 이 사진처럼  
우리는 같이 있네 그이의 병사로

미더운 우리의 병사들 있어  
방선은 철벽이라 말씀하셨네  
**김정일** 우리의 최고사령관  
그이 명령 받들어갈 우리의 모습  
아 언제나 이 사진처럼  
우리는 같이 있네 그이의 병사로

# 밝게 웃어라!

김승도

## 1

해방의 감격이 넘치여  
하늘도 더 높이 건듯 들린  
조국의 북관땅  
동해의 파도소리 높은 해안도시

날이 밝으면 새라새소식  
서로서로 속삭이는 기쁨의 소식  
이교장에 큰 경사인듯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라

간악한 일제를 물리치시고  
조국땅에 개선하신 항일의 녀장군  
공장을 찾으셨다고  
학교를 찾으셨다고

거리와 마을에 짙 퍼지여  
가슴 울렁이며 기다리는 마음  
존경과 흠모의 정을 안고  
누구나 그이를 우리러 뵈고싶음이어

위대한 장군님의 건국사상을  
어서 이 땅에 꽃피우시려  
쌓여진 피로도 잊으시고  
인민을 먼저 찾으시는  
김정숙어머님

오늘도 해쫓는 아침에  
건국의 첫 걸음을 댔  
조국의 교육실태를 료해하시려고  
수업종이 울리는 학교를 찾으시는가

찬바람 쐬쐬 부는 겨울에도  
겨우 무릎을 가리운 몽당치마  
덧기운 얇은 홀적삼  
람루한 옷차림 부끄럼도 잊고  
학교의 정문으로 들어서는 소녀

운동장이 좁다하게  
뛰놀며 봄비는 아이들속에 있어도  
류다른 소녀의 그 모습  
그 모습이 인박혀  
생각도 바닥없이 깊어지시는 어머님

어디서 사는 아이길래  
머루알처럼 까만 눈동자에  
그리도 부러운 빛을 가득 담고  
정신이 홀린듯이 모든걸 다 잊고  
제포래 아이들을 바라볼가

천진하게 웃으며 뛰노는 아이들속에  
선뜻 섬쫓리지 못하고  
다 껴진 신발코숭이 오물리며  
한곳에 못박힌듯 서있음은  
그 무슨 남다른 사연 있어서일가

얼굴은 예쁘게 생겼어도  
눈가엔 어두운 그늘이 비끼여  
나이보다 일찌기 숙성해보임은  
고생의 흔적때문이더냐

해방이 되여 새 주권이 섰어도  
아직도 그 혜택이 닿지 않아  
기를 못퍼고 자라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더더욱 무거워지시는 마음

나라없던 그 세월  
사랑하는 부모형제 다 잃고  
의지가 지 할데 없는 고아가 되여  
이국의 광야를 헤매던  
불쌍한 아이들을 생각하시는가

지주집의 아이보개로  
자본가놈들의 심부름꾼으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피지도 못하고 때일찍 시들던  
그 모습이 눈 아프게 떠오르시는가

뜨거운 인정  
남다른 사랑의 세계를 지니시여  
아이들을 두고 눈물도 웃음도  
많으시던 어머님

불쌍한 아이들을 볼 때면  
따뜻이 품에 꼭 껴안아  
다심한 사랑의 그 손길로  
눈물을 가져주고 웃음을 주신 어머님

저기 백두산밑의

유격근거지  
아동단원들도  
어머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빼앗겼던 행복을 다시 찾고  
아름다운 희망의 나래 활짝 폈거니

해방된 3 천리 내 조국  
위대한 장군님 해발아래  
불쌍한 아이들 한명도 없어야 한다  
모두모두 기를 펴고 배워야 한다

따뜻한 정을 안고  
자애론 사랑을 안고  
소녀를 부르시는 어머니  
《애야! 이리 오너라!》

누구를 찾는 목소리일가  
얼핏 고개를 돌리는 소녀  
작은 가슴 와플 놀라며  
어머님의 낫설은 군복에  
얼른 눈길을 피하며  
급기야 뒤걸음쳐라

어릴적 울다가도 멀리서  
일체놈의 누런 군복만 봐도  
울음을 뚝 그치고 무서워 떨던  
그 타성의 연장인가

재빨리 학교 담장을 에돌아  
종종 걸음으로 달아나는 소녀  
-애야! 가지 말아  
어머님은 따라서며 부르시는데

소녀야 나어린 소녀야  
너 어이 정답게 불러주시는  
어머님의 그 마음 모른단 말이나

## 2

저녁 밥짓는 연기 자욱한  
시내의 변두리 골목길로  
김정숙어머님  
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신다

-분이야! 그애 이름이 뭐라구?  
-호호... 이름이 좀 별래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글쎄 부엌녀라고 부르니말이지요?!

부엌녀 부엌녀

입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시며  
얼굴을 흐리시는 어머니의 마음

아들딸이 태어나면  
축복을 담아 사랑을 담아  
가장 아름다운 말을 골라골라  
이름을 지어줌이 부모의 심정이건만

어이하여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 소원과는 어긋나게  
부엌녀, 외양쇠, 마당쇠라고  
천한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되었다더냐

짧은 그 이름 한마디속에서도  
나라없던 그 세월에  
수난자의 운명으로 겪어야 했던  
어린 소녀의 눈물겨운 사연

속속들이 다 헤아리시며  
더더욱 가슴 아프심을  
금하실수 없으시여  
어서 가자 분이의 손을 꼭 잡으시네

한동네 앞뒤집에 나란히  
부엌녀와 이웃을 하고 살아  
길안내자로 뽑힌것이  
분이는 자랑스럽기만 해  
얼굴에 꽃같이 피어나는 웃음

그 밝은 웃음 고운 웃음이  
분이 혼자만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의 얼굴에  
활짝 피어나야 하리라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슴아픈 생각에 잠기시는데  
그 마음 아는듯 모르는듯  
분이는 어머니께 알려여라  
-다 왔어요  
저기 저집이에요!

이영도 눈비에 다 삭아  
바람이 불면 날아갈듯  
밖에서 보기만 해도  
가난에 찌들린 집

울바자도 못두른 프락  
폐창엔 덧불인 색깔은 종이  
그래도 부엌에선 저녁이라고  
그 무슨 동자질인가

키낮은 굴뚝에선 흰 연기 물물 피어올라라

-주인님 계십니까?  
문 열고 들어서니  
두눈이 울롱해서 올려다보는  
나어린 그 소녀

-아니?!  
손에 들었던 물바가지를 떨구고  
부엌너는 황황히 도망쳐  
옷방에 몸을 숨기여라

틀림없이 아침에 본  
군복 입은 그 여자군대다  
내 잘못된것은 없는데  
무엇때문에 또 찾아왔을가

무서워 오돌오돌 떨면서도  
너인의 군복 입은 모습이 더 이상해  
눈을 대고 빠금히 문짚으로  
아래방을 훑쳐보는 부엌너  
순간 의아함을 더 감추지 못해라

낮선 손님의 인기척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부엌너어머니  
-아니, 어디서 오신 손님이시오?

-몸도 편치 않으신데  
어서 자리에 누우세요  
정겹게 울리는 그 목소리  
그 언제 들어봤던가

이마에 베수건을 동이고  
자리에 누웠던 어머니도  
그 고마운 인정에  
병색이 가셔지는듯  
그래도 경계하는 눈치는 감추지 못하는 법

-(이분은 뉘신데  
어디서 사시는분이신데  
이처럼 살뜰하고  
마음이 부드러우실가...)

그 마음 풀어주시려고  
겸허한 품성으로  
자기 소개를 하시는  
김정숙어머님

-저는 백두산에서 싸우다가  
조국이 해방되어 돌아온

장군님의 녀전사입니다

스스럼없이 하시는  
어머님의 그 말씀에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해라

-(**김일성** 장군님을 모시고 싸워온 녀자군대라니  
우리 사는 이고장에  
백두산의 녀장군도 오셨다는데  
혹시 그분과 함께 있는...)

예로부터 기쁜 소문  
발이 있어 날개가 있어  
하루밤에도 천리만리를 간다더니  
온 시내가 다 아는 소식  
이 집이라고 어이 모르랴

바짝 귀를 강구어  
주고받는 말을 듣는 소녀  
기쁨에 후두둑 가슴이 설레는  
부엌너의 밝은 눈빛

내 왜 아까는 피했을까  
정말 내가 땡땡이였어  
제 한 행동 후회하며  
잘못을 빌고싶은데

-애 부엌너야 내려오너라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다  
-어서 내려와요  
우린 벌써 구면이 아닌가요

김정숙어머님  
소녀를 가까이 불러  
포근히 안아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주시여라

썰렁하던 방안에  
후더운 인정의 온기가 차넘치여  
지난날 누구한테도 하소연 못하던  
가정에 맺혔던 설음 다 풀어놓는가

일제놈군대의 공사장에 끌려가  
생죽음을 당한 집주인의 이야기  
일곱살에 아이보개로 끌려가  
삼년석달 종노릇하던 딸의 이야기-

아 이것이 어찌  
한가정에만 한한 일이었으랴  
나라를 빼앗겼던 세월에

이천만 우리 겨레 모두의 운명이었나니

그때문에 오 그때문에  
빼앗긴 제 나라를 찾자고  
민족의 자주권을 찾자고  
장군님을 따라 싸우며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지 않았던가

-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여  
로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  
우리 세상이 왔어요  
...  
들을수록 힘이 솟는 이야기  
들을수록 희망이 넘치는 이야기  
- 어린이들은 누구나 학교에 가서  
새 조선을 위해 배워야 해요

어머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그 말씀이 너무도 꿈만 같아  
수집음도 다 잊고  
재우쳐 묻는 소녀의 물음  
-나같은 애도 정말 학교에 갈수 있나요?!

아 그것이 얼마나 큰 소원이었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희망이었으면  
나서 처음 용기를 내서  
속마음의 진정을 터치는것인가

정하네 가슴을 울리는  
소녀의 진지한 물음에  
어머님은 뜨겁게 말씀하시여라  
-그래 래일부터 학교에 가자  
네가 가고싶었던 학교에 가서  
어서 우리 글을 마음껏 배우자

-그러자면  
우선 네 이름을 지어야겠다  
학교에 가서야  
부엌너라고 부를수 없지 않니?!

그제서야 소녀는  
자기에게 뗏뗏이 부를수 있는  
이름 석자가 없었다는것을 알았는가  
부끄러움이 더욱 커져  
순간에 얼굴이 빨갛게 익어라

어머님의 그 말씀  
어린 소녀의 가슴속에  
일본제국주의 원쑤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감정  
백배천배로 키워주시는가

부엌데기라고

아이보개라고  
멸시하며 구박하던 원쑤놈들  
불쑥 눈앞에 떠올라  
땀이 나게 주먹을 부르짖는 소녀  
소녀는 더 말을 못해라

소녀의 그 마음을  
사랑의 손길로 쓰다듬어주시며  
어머님은 생각에 생각을 고르시다가  
입가에 밝은 미소를 지으시여라

이름 석자에도  
새 조선의 희망이 꽃피나라고  
억눌렀던 어린 그 가슴이  
장군님의 해빛아래서  
희망의 꽃봉오리 움트는 새싹이 되어  
아름답게 피어나 창공에 나래를 펼쳐야 한다고

새봄이 엄혹한 겨울을 이기듯  
그 어떤 폭풍에도 꺾이지 않고  
대지에 뿌리를 내려 돌아나는 봄순처럼  
새 조선의 행복의 열매를 안아오라고  
깊은 뜻을 담아  
이름을 지어주신 어머님 사랑이여

- 네 이름은 오늘부터  
봄순이라고 부르자

걱정의 눈물만을 삼키며  
고개만 끄덕이는 봄순이 어머니  
이 은혜 무엇으로 갚을것인가  
- 봄순아!  
부르며 찾으며 목메여 흐느끼여라

아, 김정숙어머님의  
사랑의 그 품속에서  
두번 다시 새삶을 안고 태어나  
축복을 받은 소녀의 이름이여!

광복의 봄을 안고  
백두산에서 오신 어머님  
따사로운 해발을 안고  
키낮은 봄순이의 집에도  
어두운 그늘을 말끔히 밀어내시고  
행복의 웃음꽃을 한껏 피워주시였어라

### 3

겨울의 찬바람 원형  
문풍지를 울리는 밤  
불빛 꺼질줄 모르는 숙소에서  
김정숙어머님 바느질을 하시네

백두의 풀물오른 배낭속에  
고이 간수했던

군복치마 꺼내드리고  
길어도 줄이시고 품도 줄이시더니

숙소에 밤은 깊어도  
한뼘두뼘 바느질하시는데  
웬일인가고 고개기웃  
서로서로 한마음되어 묻는 너대원들

정겹게 바라보시며  
얼굴에 미소짓는 어머니  
범상하게 말씀하시건만  
너대원들의 가슴 뜨겁게 울리어라

-오늘 시내에서  
입은 옷이 람루하여  
학교에도 못가는 한 소녀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소녀를 눈앞에 그리시는듯  
더 말쑥을 잊지 않으셔도  
어머님의 비단같이 고운 그 마음  
너대원들 어이 모르랴

준엄한 항일의 그날에도  
부모없는 아이들을 만나면  
그들의 친어머니가 되시여  
그들의 친누나가 되시여

옷도 지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글도 배워주시며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시더니

자애로운 그 사랑 그 은정  
고스란히  
그립던 조국땅에 안고오시여  
사랑의 옷을 지으시는 어머니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들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아이들  
구김살도 없이 주눅도 없이  
해방된 이 땅에 뿔뿔이 내세워야 하리라

한뼘두뼘  
바느질에도  
정성담아 곱게 누비시여라  
치마저고리 혼술에도 그 사랑 담아

밤이 깊도록  
바느질도 곱게 옷을 다 지어놓으시고도  
또다시 밤을 새우실듯  
다른 일손을 잡으시여라

-정숙동지  
이제는 피곤하실텐데

무슨 일이든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눈을 좀 붙이세요

-아니 괜찮아요  
하고싶어 하는 일은  
언제나 피곤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 일도 다 제가 하려고 해요

즐겁게 웃으시면서  
하얀 백로지를 접어  
네모반듯하게  
학습장도 손수 매시여라

다 맨 학습장마다  
뚜껑도 정히 씌우시더니  
그 우에 적으시는 이름  
-오봄순

-아이 이름도 좋네  
봄순이라 부르는 그 이름  
그 속에 깃든 뜨거운 사연  
너대원들 어이 다 알랴

이밤  
불밝은 창가에 내려앉아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아  
봄순이를 위해 기울이시는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그 사랑  
아름다운 전설로 길이 전하여다오

#### 4

꿈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사실이였구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군복 입은 너대원들 먼저 뛰어들며  
봄순이를 부르는 목소리

-봄순이 기뻐해요  
김정숙어머님께서 약속하신대로  
봄순이가 학교에 입고 갈 옷이랑 해가지고  
저기 오세요

순간  
침상을 털고 일어난 봄순이 어머니도  
허둥지둥 몸둘바를 모르며  
너대원에게 묻고 또 묻누나

-아니 어제 오셨던 저분이  
김정숙어머님이시란 말이요?!  
그러니 내가 무슨 큰 실수를 했소

봄순이 어머니의 뉘우침에  
옷음을 지으며 너대원은 속삭여라  
- 김정숙어머님께서



이렇게 학습장도 매주시었어요

고마움에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옷매무시를 바로하며  
김정숙어머님을 마중가는  
봄순이 어머니

그늘졌던 가정에 봄빛을 주시며  
행복의 꽃을 피워주신  
고마운 김정숙어머님께  
삼가 큰절을 드리여라

-주책머리없는 이 늙은일 용서하시유  
-이러지 마세요  
저는 봄순이를 학교에 데려가려고 이렇게 또  
왔어요

아,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  
머리도 곱게 빗고  
몸에 맞는 옷도 단정히  
나서 처음 등교길에 오른 봄순이

봄순이 어머니도 트랙에 나서  
김정숙어머님의 손목을 잡고  
좋아라 학교로 달려가는  
딸애를 손저어 바래준다

복술강아지도 꼬리를 흔들며  
함께 가자고 따라서고  
동산우에 솟는 아침해도  
빙글빙글 축복의 빛발을 뿌려주어라

삼짇문을 열고 동네방네 어른들도  
다함없는 경모의 눈빛을 안고  
어머님의 뒤모습을  
오래도록 바래우며 뜨거운것을 삼키여라

학교 정문에서도  
낮익은 교원들 마주 달려나오며  
김정숙어머님께  
정중히 머리숙여 인사드리는데

봄순이의 입학이  
그 무슨 큰 경사인듯  
즐거운 명절처럼  
환희로 들끓는 교정

존경의 못시선을 한몸에 받으시며  
교원실에 들어서신  
김정숙어머님  
조용히 말씀을 이으시여라

-선생님  
오늘부터 이 학생의 이름을 출석부에 올리세요  
오봄순이라고 해요

어머님의 사랑을 안고  
출석부에 새겨지는  
자랑스러운 그 이름  
오봄순!

봄순이를 품에 꼭 껴안으시며  
어머님께서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여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너와 같은 불쌍한 아이들을  
모두 사랑의 품에 안아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주신단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한테도 축잡히지 말고 기를  
쭉 펴고 마음껏 배워야 한다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새 조선의 훌륭한 주인으로 자라거라

뜨겁게 이르는  
그 말씀의 심원한 사상과 뜻을  
가슴속에 소중히 새겨안은 봄순이

아 무엇때문에  
우리 어머님 김정숙어머님  
해방된 내 나라 민주의 첫 기슭에서  
그토록 후대교육에 마음쓰셨는지

이제 너는 다 알게 되리라  
장군님의 위대한 교육사상 받들어  
혁명의 미래를 위해 걸으신  
어머님의 빛나는 불멸의 그 자욱

우리의 어린 주인공 봄순아  
너는 그 자욱우에서  
어머님의 숭고한 사랑을 안고  
자라나는 조국의 귀중한 꽃봉오리

어서 활짝 피여  
밝게밝게 웃어라  
김정숙어머님의 바라심대로  
내 조국의 기쁨이 되거라

축복받은 꽃봉오리 네 모습을 비껴담고  
푸르른 하늘도 거울이 되어 웃는다  
새 삶의 축복을 받아안고  
영원무궁할 앞날을 부르며  
조선의 미래가 웃는다!

# 김정숙어머님, 나의 어머님

김휘조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는 거리로  
만경대학원 원아들이 걸어간다  
아, 못잇을 어릴적 내 모습이  
웃는 저 얼굴들에 어려오누나

새움을 티우는 해방의 봄빛속에  
나도 학원에서 새 삶을 시작한 몸  
해빛속을 걸어왔다 푸른 하늘아래로  
생각하면 오늘도 김정숙어머님  
학원의 마당가에 서 계시는듯  
기다려 옷자락 날리시는듯

하루에도 몇번이었으랴 유자녀들을 찾아  
투사들을 떠나보내시며 하시던 말씀  
한두번 찾다 없다고 돌아서지 말라고  
기어이 찾으라고  
이 세상 끝에 가서라도

한달이 걸려도 좋다고  
두달이 걸려도 좋다고  
기어이 데려오라고  
이 세상 끝에 가서라도

멀고 험한곳이 따로 없었구나  
그 어느 오솔길 험한 풀숲에  
내 피를 묻고 쓰러졌대도

기어이 찾아 안아주셨을 어머니  
깜깜한 외진섬에 홀로 있대도  
기어이 찾아 손잡아주셨을 어머니

눈보라 우는 이역땅에 구울던 돌덩이  
내 아버지 어머니 없어 고아였던가  
수령님 품속에 마음껏 자라라고  
기어이 데려다  
배움의 창가에 앉혀주신 어머니

내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를 이었던만  
못잇는 못잇는 그 사랑이여  
언제나 해빛만을 안고살았기에  
더더욱 못잇는 어머니 모습이여

오늘도 원아들을 보니 눈앞에 어려오는  
날 기다려 날리시던 그날의 옷자락  
어머님 그때 나에게 주신것  
배움의 밝은 창문만이던가  
푸른 꿈 활개칠 운동장만이던가

수령님 품속에 그 행복 다함없을  
나의 유년시절을 주셨네 청춘시절을 주셨네  
밝은 한생을 주셨네  
어머님, 나의 어머니

## 12월의 그날이 있어

리근우

이해도 벌써 다 갔는가  
서둘러 이해의 마지막 달력장을 번지니  
새해가 마중오는 기쁨보다  
가는 해의 나날이 눈에 밝혀오누나

준엄했던 그만큼  
생활도 벅찼던 이해의 날과 날에  
나는 어떤 추억을 안고있는가

내 량심에 또렷이 묻는  
12월의 날과 날을 조용히 더듬는데  
문득 심장의 대답을 청하는 글발  
12월 24일이여

이 위대한 날이  
나를 지켜보고있어라  
한해도 저무는 12월  
새해도 서두는 12월에 자리잡고

아 충성의 귀감이신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어머님 탄생하신  
이날을 안고살던 마음에  
세차게 일어번지는 눈보라 눈보라

총탄이 가슴으로 날아오는  
혈전장도 아닌  
끓으며 천리 또 천리 헤쳐가는  
피어린 눈보라길도 아닌

오, 오늘의 초소길을 걸으며  
 너의 마음은 그날에 어머니 헤쳐오신  
 그 눈보라길을 걸어왔는가  
 그 충성의 길 걸음걸음 따라 걸으며  
 땀땀이 남긴것 있는가

12 월  
 자책의 마음만을 안고 살기엔  
 너무도 짧구나 이 한달이  
 허나 하루를 백날 천날로 휘잡고  
 위훈을 남기며 땀땀이 살 때

이 마음에 새해는 환희로이 밝으려니  
 오, 열정에 타는 12 월이여

뜻깊은 날도 많지만  
 생각깊이 펼쳐든 한해의 마지막달이여  
 어머니 탄생하신 그날이 있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이날의 환희가 있어  
 해와 해를 이어  
 내 옮기는 충성의 자욱자욱  
 한해의 마지막기슭까지 변함없는것이여라

## 하나의 피줄 이은 형제들처럼

홍성두

이어받은 피줄이 하나이듯이  
 땀세도 하나같고  
 소원도 하나같은  
 군복입은 형제들

삼가  
 편지를 올렸습니다  
 언제나 뵈고싶은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리러

**김정일** 장군님 보위해가는 길에  
 여덟자루의 총이 되고 폭탄이 되고  
 한몸 그대로 어뢰가 되고 로케트가 되겠다고  
 오늘의 유격대의 5 형제가 되고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가 되어  
**김정일** 장군님을 결사옹위하겠다고...

박용철의 8 형제, 리청송의 5 형제가  
 리장웅의 8 남매, 강명일의 5 형제  
 리종운의 6 형제가 삼가 올린 그 편지

길지 않은 글줄속에  
 어려있는 그 진정 헤아리시고  
 감사하다고,  
 동지들과 같은 전사들이 있어  
 우리 당은 필승불패이라고  
 동지들과 같은 전사들을 가지고있는것이  
 우리 인민과 군대의 큰 자랑이라고...

글자마다  
 세상에 다시없는 믿음을 담아  
 구절마다  
 세상에 다시없을 사랑을 담아  
 친애하는 그이  
 뜻깊은 회답서한 보내주셨을제

울었습니다, 온 나라 전사들이  
 감격에 겨워, 행복에 겨워  
 마치도  
 자기가 올린 편지 보아주시고  
 자기에게 보내주신 회답서한 받아안은듯...

그렇습니다  
 하나의 피줄이은 형제들처럼  
**김정일** 장군님 받드는 길에  
 하나의 신념, 하나의 의지로 뭉쳐진 대오  
 그이의 회답서한 받아안은 전군이  
 박용철의 8 형제, 리청송의 5 형제가 되었습니다  
 리장웅의 8 남매, 강명일의 5 형제  
 리종운의 6 형제가 되었습니다

오오, 형제들 이러한 형제들이  
 모여서 대대를 이루고  
 모여서 군단을 이룬  
 이런 전사, 이런 군대 세상에 있으리까!  
 이런 군대 당할자 세상에 또 있으리까!

## 민족의 넋을 새기며

리종성

무릇 레사롭게 흘러가는 날들에 전해지는 충격적인 소식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오래오래 기억되어있는 법이다.

그날은 9 월말 어느날이었다. 저녁상을 물리고 텔레비존앞에 마주 앉으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단군릉을 돌아보신 내용이 보도되는 것이었다.

월초부터 시작해서 분계연선농촌들과 간석지벌의 농사에 이르기까지 원심을 써가시며 몸소 현지지도의 길을 걸어오신 수령님께서 오늘은 또 단군릉 발굴사업까지 현지도하셨다니 가슴 뜨겁기 그지없었다. 온 가족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는데 종소리와 함께 이종남매간인 동생이 불쑥 들어서는 것이었다.

배낭을 멘 그의 몸에서는 싱그러운 전야의 향기가 풍기는듯싶는데 검실검실한 얼굴에는 노상 웃음이 벅글거렸다.

《오래간만이로구나. 그새 왜 그렇게 꼼짝 안했니?》하고 내가 배낭을 받아내리는데 그는 흥분된 어조로 나의 손을 부여잡으며 《어때요 누이, 오늘은 나를 지지하겠지요?》하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뜻밖의 물음에 어리둥절해졌는데 그는 내 팔을 부여잡고 방바닥에 앉히더니 방금 텔레비존으로 보도를 들었는가고 물었다. 그리고는 자기가 바로 단군릉에서 들어오는 길이라고 하였다.

그제야 나는 그의 물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차렸다. 동생이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하여 역사학부 고고학파에 지망했다는 소릴 듣고 나는 하필이면 20세기 말엽에 들어선 오늘에 와서 먼 옛날의 역사나 연구하겠는가고 하면서 다른 과를 지망하라고 타이른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나라의 역사를 빛내이자면 고고학을 전공해야 한다고 고집을 썼었다. 나는 그의 결심을 지지하지 않았고 그는 끝내 자기 희망대로 고고학자가 되었다. 그러니 그가 큰소릴 치며 들어설만도 한 것이었다.

단군릉에 나가있던 동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뵈었다는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미전에 우리 민족사를 주체적립장에서 정립하기 위하여서는 지난날 일제에 의하여 여지없이 말살된 단군과 고대조선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시며 단군묘를 발굴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고고학자인 동생은 단군릉발굴조에 망라되어

그곳에 나가있었는데 수령님께서서는 또다시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단군릉의 발굴결과에 대하여 깊이 료해하시고 단군과 고조선 역사연구와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를 주체적으로 체계화하는데서 강력적지침으로 되는 교시를 주시었다는 것이다.

들을수록 가슴 후더워올랐다.

나라없던 지난날 일제는 조선의 역사를 말살하려고 조선의 건국시조인 단군과 관련되는 자료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리고 마치도 우리 나라가 일본의 속국인것처럼 떠벌이지 않았던가.

하지만 우리는 오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족사연구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워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

《누이, 난 오늘 위대한 수령님을 뵈우면서 진정 우리 민족의 역사를 그처럼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분도, 조국의 역사에 대하여 제일 깊이 아시는분도 바로 우리 수령님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 술한 역사학자들을 다 합쳐도 수령님 한분을 따르지 못할것입니다.

나는 감격속에 그이를 우러르면서 민족의 위대성은 수령의 위대성에 있다고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의 깊은 뜻을 다시금 절감했어요.》

민족의 위대성은 수령의 위대성에 있다. 과연 명철한 말씀이다.

《그때, 우리가 수령님을 모시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조국의 오늘과 래일을 생각할수 있고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빛내일수 있었겠니...》

끓어오르는 걱정엔 넘쳐있던 나 역시 흥분되어 말했다. 그러자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딸애가 우리들을 번갈아보다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대원수님을 우리 민족의 태양이라고 하지 않나요.》

아직은 철부지로만 보아온 딸애가 이순간엔 어른스럽게 느껴지면서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나는 그를 꼭 껴안았다.

《네 말이 옳다. 정말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우리의 태양이지!...》

하늘의 해는 고대에도 오늘에도 여전히 솟아올랐건만 진정한 나라의 령수를 모시지 못한 그날에는 귀중한 민족의 역사와 유물이 왜적들에게 란도질당하고 흐르는 세월속에 파묻히어왔다.

허나 우리 민족이 위대한 수령을 모신 그날로부터 이 땅에 솟아오르는 아침해도 더욱 밝고 찬

연하였으며 우리는 선조들이 꽃피워온 력사와 문화들을 되찾고 빛내이지 않았던가.

정녕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되살아난 유적들은 그 얼마였던가.

대성산의 광법사, 안학궁터, 동명왕릉, 고려성군관, 이 땅의 수많은 고분들과 유적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절절해진다.

어느덧 텔레비죤화면에서는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의 우아한 선물이 흘러나오고있었다.

이밤따라 그 노래소리도 더욱 절절히 가슴을 파고든다.

《공원속의 도시》, 《아름다운 평양》이라고 온 세상 인민들이 찬양을 아끼지 않는 우리의 수도, 이번에 신화적 전설적 존재였던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그가 반만년전에 오늘의 평양에 수도를 정하고 동방에서 처음으로 《조선》(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것이 해명됨으로써 평양은 인류발상지의 하나이고 조선민족의 발상지이며 우리 민족의 국가형성과 발전의 중심지였다는것이 명백해지지 않았던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여 온 세상 인민들의 마음의 등대로 되고있는 우리 평양은 오늘 유구한 력사와 문화의 중요발상지로서 그 지위가 더 뚜렷해지리라.

가수는 깊어가는 뜻깊은 이밤 잠 못드는 사람들과 조용히 속삭이는듯, 끝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수도의 밤이 지새는것이 안타까운듯 지새지 말라고 열정에 넘쳐 부르고있다.

우리는 광복거리 살림집로대에 나섰다. 어디나 불, 불의 바다다. 저 멀리 본평양쪽이며 통일거리, 락원거리, 수도의 거리들에 행복의 불빛들이 반짝거린다. 아마 우리처럼 민족의 원시조를 찾고 민족의 유구한 반만년력사와 단일성이 확증된 기쁨에 잠 못드는것인지...

그 불빛너머 그 어디에선가 오늘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밤도 잠 못드시며 래일의 행복을 설계하고계실것이다.

꺼질줄 모르는 불빛들을 바라보는 나에게는 문득 우리 《애국가》의 가사가 새로운 의미를 띠며 머리에 떠올랐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력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

그 가사의 뜻을 새기노라니 또다시 우리 조국을 찾아주시고 날에 날마다 빛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슴 그득히 끓어오른다.

밤은 깊어가도 우리의 기억속에 영원할 오늘을 새겨주는듯 가을밤의 또글또글 여문 별들은 더욱 반짝반짝 빛을 뿌린다.

나와 동생 그리고 딸애는 오래도록 그 별들을 바라보며 자리를 뜰줄 몰랐다.

## 짧은시목록

# 당에 대한 단상

김재원

아기에게 젖먹이며 잠설치는 어머니  
그 사랑에 한번 쉬는 날 있던가요

당이어, 인민을 한품에 안고 마음 기울이는

그대 사랑에 정녕 일요일이 있던가요

사랑을 잇는 인간 이 땅우에 하나 없듯  
그대 사랑 잇는 인민 하늘아래 없습시다!

# 사랑에 대한 철학

사랑으로 충만된 나의 시대여  
사랑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던가

영예군인과 언약한 저 처녀에게 물어보라  
사랑이란 심장을 바쳐갈 때 느껴지는 기쁨

두 고아의 어머니된 저 처녀에게 물어보라  
사랑이란 자기를 다 바칠 때 찾아오는 행복

그렇도다! 사랑이란 바치는 그 마음  
그 마음 조금 모자라도 사랑이 아닌것을

##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금지와 자부심을 안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제일주의영예를 펼쳐나가 고있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금지와 자부심은 곧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해방의 구성으로, 창조와 건설의 영재로 높이 모신 금지와 자부심입니다.》

단군릉발굴소식에 접한 나의 가슴은 한세대에 가장 곁찰한 두분의 위인을 모시고 사는 조선민족의 금지와 자부심으로 한껏 들레이고있다.

지금까지 신화적이고 전설적인물로 전해내려오던 단군이 실재한 역사적인물이었다는것과 더불어 그가 반만년전에 오늘의 평양을 중심으로 동방에서 처음으로 《조선(고조선)》이란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진것은 단순히 고고학의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반만년역사와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이며 선진문화국이라는것을 확증한 민족사적인 획기적사변이며 민족의 자랑중의 자랑이다.

나는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되찾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

지의 위대성과 비범성, 로고에 대해 가슴뜨거이 생각하게 되었다.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애국의 높은 뜻을 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긴아 긴 세월 한순간의 휴식도 잊으시고 오로지 조국과 민족, 인민을 위한 끝없는 사랑의 수억만리길을 걷고 걸으시는 아버지수령님.

지난날 역사과학연구에 한생을 바쳐온 역사전문가들도 일체의 단군말살책동으로 외국말살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있을 때 미해명문제로 남아있던 단군릉발굴사업을 발기하시고 조선고대사연구의 강령적지침을 주신분은 아버지수령님이시였다. 그러시고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단군릉발굴결과에 대해 깊이 료해하시면서 그 자료 확증과 개건완성 방도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고 과학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고 자료고증에 필요한 현대적인 최신형과학기술수단들을 보내주시신분도 바로 우리의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다.

실로 우리 역사과학에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와 로고는 끝이 없다.

지금 세계를 둘러보면 민족의 귀중한 역사문화유적들이 무참히 짓

밟히고있는 나라가 많고 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훼방과 책동이 로골화되고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역사문화유적들이 새로 발굴개건되여 미해명으로 남아있던 고대조선의 역사를 되찾게 되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결실이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비상한 천재적예지를 지니신 가장 곁찰한 역사의 영재이시며 민족을 빛내여주시는 민족의 태양이시다.

나는 다시한번 민족이 위대하려면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함을 통감하였다. 나는 민족의 이 자랑, 금지를 심장깊이 새기고 한평생 인민을 위해 조국의 역사를 되찾아 빛내여주시고 조국의 존엄을 지켜가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충성과 지혜, 열정을 다 바쳐나가겠다.

신경애

##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민족의 금지와 자부심을 노래하는 작품을!

단군릉발굴소식에 접한 우리 작가들은 전체 인민들과 함께 커다란 민족적자부심과 금지에 휩싸여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민족은 대대로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으로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이며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사는 존엄있는 민족입니다.》

우리 인민의 반만년의 역사를 실증해주는 귀중한 역사유적인 단군릉의 발굴과 유물의 발견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주체사관의 위대한 승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민족사를 주체적립장에서 정립하는데서 단군과 고대조선의 역사를 바로잡는 문제가 가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이 역사적과제를 해결

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단군릉의 발굴결과에 대하여 깊이 료해하시고 단군과 고조선 역사연구와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를 주체적으로 체계화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교시를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찌기 역사연구에서 사대주의적이며 민족허무주의적인 경향을 철저히 없애고 주체의 역사관에 기초하여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정립하고 체계화하도록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또한 이번 단군릉발굴과 관련한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으며 온갖 조건을 친히 마련하여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되찾아주시고 그를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스승이시다.

나는 우리 민족의 이 끝없는 자랑과 영광을 목청껏 노래하고 그것을 만대에 길이 전하고싶다.

단군릉 발굴과 유물의 발견은 우리 작가들에게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민족의 한 성원으로 살며 일하는 한없는 기쁨과 함께 끝없는 창작적충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나는 지금 우리 작가들을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힘있게 맥박치는 혁명적작품창작으로 추동하며 이 사상적기백을 예술적으로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평론을 쓰리라 마음다지고있다. 또한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예술적으로 확증함으로써 민족대단합으로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며 우리 민족의 금지와 자랑을 더욱 빛내여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오승련

## 친필 외 1편

(총련)홍순련

분명  
친애하는 그이께서  
저에게 써주신 친필입니까

분명  
그이께서  
저의 글을 봐주셨습니까  
저의 이름 석자까지도...

1992년 8월 27일  
평범한 이날을  
내 한생에 영원히 새겨질  
영광의 기념일로 해주셨습니까

자꾸만 눈물이 가리며  
그처럼 보고 또 보고싶은 친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  
저의 심장벽엔  
그 활달하신 친필이 순간에 새겨져  
눈물속에서도 보입니다

김정일 동지  
그이의 친필로 하여  
그이의 품박에 서있는 사람  
없습니다  
정녕 해외에도 없습니다

## 마음도 함께

즐거운 휴식날  
나는 대동강가에 나갔네  
농립모를 폭 눌러쓰고  
뉘시줄을 드리운 아바이도 있었네

실실이 늘어진 버드나무아래로  
젊은이들 쌍쌍이 속삭이며 걸었네  
유보도충계에서 떠들썩한 소리  
웬일인가 나의 발걸음 끌어당겼네

군대가는 동창생을 가운데 놓고  
졸업반학생들이 사진찍고있었네  
그 모습이 정다워 그결에 갔더니  
내 손을 잡아끌며 사진 함께 찍자네

총련에서 찾아온 우리 동포 반갑다며  
저마다 제결을 비워놓네

군대가는 그 학생이 제 모자를 벗어  
내 머리에 얹어 덮석 씌워놓네

사진사도 호탕하게 떨기웃음 지으며  
우리모두의 웃음소리도 찍을듯  
순간을 놓칠세라 짹-

학생은 군대로  
나는 총련으로  
우리 서로 떠나가는 초소는 달라도  
최고사령관동지의 같은 전사

우리의 얼굴만이 사진에 찍혔으랴  
대동강의 경치만이 사진에 찍혔으랴  
우리들의 충성의 마음도 함께  
한장의 사진속에 찍혔네 짹-

## 스물 지난 사나이로 우리는 자랐는데... 외 1편

한광춘

스물 지난 사나이로 우리는 자라  
한창 젊음이 꽃피는데  
흘러간 그 시절의 녀선생님이시여

선생님만은 늙으셨습니다  
신고개는 아직도 앞에 있는데

희끗희끗 내배인 흰서리  
눈가에 쌓으로 간 주름은 어찌합니까  
착하던 선생님이시여  
엄했던 선생님이시여

아마도 흰서리는  
애도 많이 태웠던 우리 제자들에 대한  
그 하나하나의 기억은 아닙니까  
한결음 헛디딜세라 오늘도 마음쓰는  
그 사려가 모여 패인 주름은 아닙니까

그 바깥속에서도 언제나 살쫂한 연화장속에  
교단에 나서시던 선생님  
그래서 이 땅의 선생님이란 다 그런줄 믿었고  
세상에 처녀란  
꼭 선생님같이 아름다와야 한다고 생각했습  
니다

1년 열두달 어느하루도  
편히 집에서 앓을수도 없었던 선생님

졸업의 밤 서투르게 부른 노래는  
선생님께 드리고저 우리가 지은것이였습니다  
그러나 너도나도 마지막까지 부르지 못했거니  
지금의 노력과 위훈은 그 노래의 계속입니다

마음놓으시라 선생님이시여  
오늘은 조국의 출석부에  
하루의 지각이나 공백도 없이 보답을 새깁니다  
짧은 세월에 모두가 끝끝이 자랐거니  
눈내리는 초소에서 건설장에서 과학의 전당  
에서  
이젠 소리치며 제몫을 하고있습니다

아 인생에 어머니란 말이 아름다운것이라면  
선생님이란 그 부름은 하늘아래 신성한것입  
니다  
조국의 장한 아들딸되여  
산갈은 창조물안고 훨훨 달려올 우리는  
다름아닌 선생님의  
어깨 작은 선생님의 열매입니다!

## 나는 여기서 산다

하나의 현관문을 드나들며  
소박한 사람들이 정들어 산다  
보통강반 버들숲속의 고층살림집  
태어나 스무해도 더 산곳이지만  
다른 어디로 떠나고싶지 않다

아침이면  
남편을 떠나보내는 녀인들의 바래움이  
이어부르는 노래처럼  
집집마다에서 한소절씩 올라오는곳  
초저녁부터 복도엔 마음 들떠우는 칼도마소리  
구수한 밥냄새가 코밑을 간지럽히는곳

설날 아이들은 무리지어  
집집의 신문통에 세배꽃을 꽂았더라  
서로 화목했기에,  
문은 호실을 밝히기 위해 있었고  
이웃에 친척이 와도  
서로 칭하는 그 진정에 받들려  
추녀도 하나로 높이 들렸던가

민들레처럼 곱게 자란 처녀들이  
때를 만나 새 보금자리로 날아갔고  
그렇게 미끈한 거목이 된 사나이들이  
하나둘 군대에서 돌아와  
예쁜 처녀들과 가정을 무어 동네식술을 보냈더라

다 꼽으라  
락동강기슭에 전우를 묻고온  
전쟁참가자도 여기 살고  
서해갑문의 영웅도 여기서 아버지 되었고  
아버이수령님을 일터에서 만나뵈온  
방직공처녀- 나의 사랑  
성실한 그도 이웃에 있으니

아 나혼자의 기쁨이란 없고  
너만의 아픔이라는것도 없는 여기  
조국의 하늘아래 창문들이 똑같이 밝고  
피도 나눌 정이 터질듯 짙 찬곳  
우리의 사회주의가 안겨준  
목숨과도 같은 생활이여 생활이여!



어린 자식때문에 무릎이 쭈시고 다 큰 자식때문에 심장이 쭈신다는 말이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라의 어엿한 일군이 되어 새로운 혁명초소에서 일을 잘하는 다 자란 자식을 두고도 늘 강가에 두고온 어린애처럼 마음을 놓지 못해하는것이 부모의 다심한 심정인것이다.

한때 《탁땅크》라고 소문난 목제품공장 지배인 탁정석이 북부철길 급행열차에 몸을 실은것은 립산마을 고등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은별이가 걱정스러워서였다.

탁정석은 키돋움하며 자라는 끝끝한 두 아들보다 퍼그나 더울이 뜨게 태어난 막내둥이 외동딸을 여간만 귀해하지 않았었다.

은별은 아버지의 극진한 애무속에서 무엇이냐 오늘 소원하면 래일엔 성취되는 행복을 마음껏 향유하며 자랐었다. 딸의 생김생김은 신통히도 어머니를 닮았으나 활달하고 손이 큰 성미만은 아버지를 닮았다고들 한다. 안해는 장난 세찬 두 오빠처럼 개방스러워지는 딸의 성미를 두고 남편을 한두번만 나무람하지 않았었다. 귀한 자식일수록 매로 키우라고 하였는데 외동딸이라고 그렇게 어자어자 키우다가 시아버지 수염을 쥐여 뜯는걸 보고싶은가고.

《안할 소리, 이 고마운 제도하에서 나라의 〈왕〉으로 〈세상에 부림없어라〉 노래만 부르며 자라는 애들인데 아무러면 의리를 잊을라구...》

내외간에 칼로 물베는듯한 다툼질도 드문했었다.

그런데 어느날 탁정석은 뜻밖의 일을 당하고서야 자기가 귀한 딸을 《말팔랑이》로 키우고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감에 사로잡히였다.

은별이가 고등중학교 일학년때였던것 같다. 늘 수학교원인 자기네 담임선생이 마음씨도 인물처럼 곱다고 자랑을 아끼지 않던 그애가 의외에도 선생님의 속이 꼬부라졌다고 로골적으로 뒤흔다를 했다는것이였다.

리유인측은 수학시험에서 공식은 다 맞았는데 자만하나머지 마지막답을 틀리게 쓴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것이였다. 선생은 자극을 주느라고 가차없이 3점을 매기고 학생들앞에 공개했었다.

그러나 은별은 되려 제편에서 선생님이 그만한것도 리해해주지 못하는가고 불만을 잔뜩 가지고 토달거리다 동무들한테서 비판을 호되게 받았다고 한다.

그날저녁, 선생님이 가정방문온다는것을 안은별은 늦도록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목에서 아버지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아버지가 딸을 달고 방에 들어서자 안해는 새침하니 눈을 내리깔고있다가 선생님이 웃음을 남기고 두고간 그 시험지를 남편에게 내보이였다. 그 잘난 딸이 어떻게 돼가는가 보라는것이였다. 탁정석은 그것이 정말 자기 딸의 행실이 옳은가를 의심하며 아연해졌었다. ...

세월이 흘러 그 딸이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두메산골 립산마을 학교로 혼연히 떠나버렸다. 안해는 물론 탁정석이까지도 깜짝 놀랐었다. 대견하기보다 우려되는것이 더 많아서였다.

귀염둥이 응석반이로만 살아온 은별이가 어떻게 그런 용단을 내렸을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내린 결심일까?

만약 그것이 구체적인 바탕이 없이 단행된 일이라면 어떻게 외진 산골에 가서 그곳 사람들의 본보기로,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것은 어머니의 심정만이 아니였다. 누구보다 딸을 잘 알고있는 탁정석이자신도 로파심을 앞세우지 않을수 없었다. 한마디로 딸이 그렇게 할수 있다고 자신있게 담보할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초년교생은 금을 주고도 못산다고 도시쳐녀가 부모의 슬하를 떠나 생소한 산골생활과정에 인생에 대해 많은것을 체험할수 있겠기에 선선히 떠나보냈었다.

마침 그곳 립산사업소에 심학철이라는 이름과 함께 《심공병》이라는 별호까지도 추억의 상징처럼 불리우는 막역지우가 있는것이 다행이였다.

립산사업소 기사장인 심학철은 은별이가 세상에 태어나자 이제야 진짜 자기 며느리감이 태어났다고 무릎을 치며 좋아한 사람이였다.

그런데 은별이가 교편을 잡은지 겨우 일년이 되나마나한 지난달에 심학철이한테서 뜻밖의 편지가 날아왔다.

은별에게 사랑하는 총각이 있으니 빨리 와서 선을 보고 결심을 해야겠다는것이였다. 편지에 자세한 내용은 쓰지 않았지만 탁정석이 내외는 그 편지를 놓고 잠을 이루지 못했었다. 은별이 나이가 스물네살이니 그 나이에 사모하는 남자가 있을만도 한 일이긴 하지만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게 분명해서였다.

생소한 고장에서 아직 안착도 되지 못하였을 은별에게 당장 결혼식을 해야 할 애인이 있다는 것부터가 마음에 켜기였고 그 총각이 산림보호원이라는것자체가 울퉁이같은 의문부호를 수없이 던져주었다.

(새파란 짧은 녀석이 산림보호원을 하다니 ... ?)

은별이가 혹시 그 어떤 환상적인 사랑세계에 빠진것이나 아닌지, 아니면 중시 산골생활에 안착되지 못하고 전전궁궁하다가 자기만의 적당한 총각과 가정을 이루는것으로 위안을 찾자는것이나 아닌지, 좌우간 이래도 근심, 저래도 걱정이라더니 생각마다 불길한것들뿐이었다.

자식들이 부모들의 이런 심정을 알기나 하고 덤비는지, 심학철은 편지에 탁정석이네 공장에서 계획에 물린 고급가구용 목재도 마련해놓았으니 님도 불검 뽕도 딸검 될수록이면 빨리 와달라고 당부했었다...

자정이 지난 깊은밤 방금 열차에서 내린 탁정석은 네온등불빛이 어서 오라 유혹하는 러관 간판은 거들떠보지 않고 곧장 림산마을을 향해 발길을 재촉했다. 실히 20 리길은 걸어야 했다.

하늘은 맑게 개였으나 대기는 서리가 돌힐 정도로 차가웠다.

동해연선 산기슭에는 이미 봄꽃이 피기 시작하였는데 여기 북방의 고산지대 겨울은 아직 기가 꺾이지 않고있는듯싶었다.

변화한 도시에서 툭툭 털며 자란 은별이가 산세험한 이곳의 엄혹한 겨울을 이겨내자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탁정석은 체소한 몸에 한손만으로는 들고 가기 어려울 정도로 묵직한 트렁크의 무게로 하여 눈덮인 얼음길에 몸의 중심을 가가스로 잡으면서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꿈이 아닌가싶게 반가와할 딸과 심학철이를 눈앞에 보는듯싶어 맵짠 추위도 손잡의 무게도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늘 그막 정을 폭폭 쏟아붓는 마누라가 극성스레 꾸러준 트렁크안에는 은별에게 필요한 갖가지 물건들과 심학철이와 회포를 나눌 음료들도 들어있었다. 탁정석은 이정표가 서있는 갈림길 경사밭이에 이르러 아차 미끄러지는바람에 눈앞에 그러보던 흐릿한 장면들이 무수한 별찌로 바뀌고말았다. 그는 선뜻 일어설념을 앓고 하늘을 쳐다보며 제풀에 꺾꺾 웃고말았다. 자빠진김에 쉬어간다고 맵짠 추위에도 기분은 좋았다.

하현달이 푸른빛을 쏟아붓는 고요한 대지에 드러누워 깜박깜박 눈웃음을 보내는듯싶은 은별이의 눈동자같은 별들을 바라보노라니 향촌에 온듯 야릇한 향수가 가슴에 젖어든다. 사뭇 추억에 잠기고싶은 아름다운 밤이다.

탁정석은 수많은 못별들중에서 별로 유정스레 안겨오는 일곱개의 곱성좌를 바라보노라니 연제인이 심학철이가 하던 말이 문득 생각났다.

《우리도 저 곱성좌처럼 영원히 불변궤도에서 살자구.》

그게 언제였던가?...

탁정석이가 체대되어 서북방에 새로 일떠서는 수력발전소 건설장을 찾아갔을 때였다. 퇴색한 배낭을 등에 걸친 체격좋은 체대군인이 홀린듯 정문앞에 높이 세운 대형선전화를 바라보고있었다. 그는 탁정석을 보자 기다렸던듯 《여 친구...》 하고 무릅없이 너나들이로 말을 걸었다.

《저 천리마기수가 아주 인상적인데...》

탁정석은 선전화를 쳐다보았다.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보수주의 소극성을 불사르라!》

선전화의 주인공인 천리마기수가 예리한 눈으로 쏘아보며 손가락총을 쏘고있었다.

《우리더러 전선에서 미국놈을 때려눕히던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라는건데, 여보게. 천리마기수, 벌써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으니 넘려말게.》

탁정석은 배낭을 추출러올리며 장담했다.

《여, 친구. 내가 방금 마음속으로 한 말을 자네가 하누만. 통하는데... 자 어차피 한가마밥을 먹게 되겠는데 벗이 되자구!》

똥보가 술뚜껑같은 큰손을 내밀며 자기 소개를 했다.

《공병출신 심학철이네. 그저 심공병이라 불려도 되네. 어깨에 견장은 없으니 군사칭호는 말하지 않겠네.》

(공병? 계통과 병종치고는 좀 가벼운 친구로군.)

탁정석은 그의 초리 긴 검은눈썹, 큼직한 주먹코, 두툼한 입술, 한마디로 체격에 어울리는 선이 굵은 이목구비를 눈여겨보며 손을 잡았다.

《일구이언을 좋아안하는 땅크병출신 탁정석 일세.》

의외인듯 심공병의 눈이 커졌다. 강기있어보이나 그 몸에 땅크라니, 허세가 아닌가 하는 표정이였다.

탁정석은 보란듯이 손아귀에 힘을 주었다.

심학철은 진저리를 치며 알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작아도 고추라고 탁정석의 손아귀가 여간만 세지 않았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저 대형선전화를 이정표로 하여 새 생활을 시작해보세!》

그날부터 그들의 사회생활이 시작되었고 발전소건설장 요소소소에 인상적인 일화들과 추억들을 심어놓았다.

그중에서도 당시 지방신문에 크게 실린 《무동력삭도》를 만들던 일들이 평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있었다.

적유령산줄기의 골바람에 장독도 얼어터진다는 서북방의 엄혹한 겨울이었다. 모든것이 눈속에 묻히고 얼어붙었다. 난판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가물막이공사를 맡은 탁정석이네 작업중대도 그러했지만 골재를 담당한 심학철이네 작업중대는 더 어려운 고통을 치르고있었다. 연유가 얼어애를 먹이는것쯤은 약과였다. 그러지 않아도 굶이 굶이에 위협표말을 박아놓은 가파로운 구배길에 눈사태까지 덮쌓여 자동차수송은 고사하고 사람조차 다닐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공사장의 곳곳에는 분분한 의견들이 떠돌기 시작했다. 동기공사를 계속할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때에 심학철이가 지난날의 공병다운 기발한 착상을 내놓았다.

채석장 높은 산중턱에서부터 낮은 강바닥 언제 공사장에 이르는 전구간에 관성법칙을 리용한 무동력삭도를 놓자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채석장에 수동권양기를 놓고 경사면을 따라 뺨어내린 쇠바줄에 골재를 실은 삭도바가지를 설치해놓으면 그 중력에 쇠바줄이 흘러내리면서 짐을 부리는 빈바가지는 올라간다는 것이었다. 그 힘을 수동권양기로 조절하면 안전성도 담보된다고 했다.

그야말로 탄복할만한 멋진 혁신안이였다. 그것만 도입되면 골재운반에서 로력절약은 물론 전기와 연유를 쓰지 않으면서도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종전보다 수십배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탁정석은 심학철이와 작업중대는 달랐지만 한호실에서 생활하다보니 그 혁신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고 신심을 가지고있었다.

그런데 그 혁신안에 대한 첫 기술협의회에서부터 아서라 머리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

《착상은 이상적인데... 창고에 쇠바줄은 있지만 산판이 땡땡 얼어붙은 조건에서 한두개도 아닌 삭도기둥을 무슨 수로 세우며 그에 따르는 자재들은 어디서 가져오겠소? 지금 형편에서 삭도바가지를 만들 철관 한장도 가져올데가 없소.》

자재를 담당한 업무부지배인은 물론 시공지도원도 채머리를 떨었다.

협의회에 참가하지 못한 탁정석이였지만 그 말을 듣고는 분개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를 더욱 분격케 한것은 심학철이가 짝사랑에 달떠있는 설계실 《파마머리》 처녀가 한 말이였다.

당시 처녀들은 대체로 래머리를 하고 다녔었다.

발전소건설장에만도 수십명의 처녀들이 있었지만 《파마》한 처녀는 불과 다섯손가락 안팎이였다.

그중의 한 처녀가 그 어느 전문학교를 졸업했다는 설계실 《파마머리》였다.

심학철은 그 처녀에게 여간만 반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제아무리 공병이였어도 슛총각인 그로서는 남달리 우아해보이는 처녀앞에서 사랑의 고백은 고사하고 애정의 눈길조차 보내기 주저하고있는터였다. 그 어쭙은 자제가 되려 감수성이 빠른 처녀들의 민감한 감정을 자극한다는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다름아닌 그 처녀가 협의회에서

《자연을 정복하려는 지향은 좋지만 현실적가능성을 타산 못했군요.》하고 말하더라는 것이였다.

결국 기술협의회는 좀더 연구해보기로 하고 다음날로 미루었다.

탁정석은 그날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무지분을 삭일수가 없었다.

(이곳에 삭도건설에 필요한 지방자재가 있을게 아닌가?)

탁정석은 어둑새벽에 도끼를 찾아들고 산판을 향해 호실을 나섰다. 그가 숲속에서 돌아온것은 기술협의회가 다시 시작되어 한창 갑론을박하고있을 때였다. 눈보라속에서 해종일 숲속을 헤쳐다니 그의 물결은 말이 아니였다. 지칠대로 지친데다가 드러난 얼굴살갓에 얼음이 낀듯 푸른빛을 띠고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일시에 그한테로 쏠리였다.

《자네 어찌된 일인가. 어데 갔댔어?》

용수철 튕기듯 의자에서 일어난 심학철이가 앞뒤를 가려보지 않고 놀란 소리를 내뿜었다.

탁정석은 태연해지려고 애쓰며 말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어떻게 하고있나?》

눈으로 묻는 말이었다.

심학철은 지그시 눈을 감으며 알릴듯말듯 머리를 저었다.

탁정석은 울퉁 어제밤과 같은 결기가 치밀어올랐다. 땅크시창을 내다보는것 같은 그의 눈빛은 부지배인한테서 《파마머리》 처녀한테로 번져갔다.

《모두들 갑시다.》

이윽고 그가 얼어붙은것 같은 입을 열었다.

《내가 보여드릴게 있습니다. 그앞에서 여기모인 사람들스스로가 삭도를 놓을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대답을 하게 될겁니다. 모두들 갑시다!》

탁정석은 심각하면서도 견인력있는 침착한 자세로 자기먼저 출입문을 향해 발걸음을 떼었다. 그앞에서 누구도 섰듯 할말을 찾지 못했다.

탁정석은 건설장 정문앞에 이르러 멈춰섰다.

협의회참가자들은 어리둥절하여 주위를 둘러보았다. 별로 눈에 띄는것은 없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저 대형선전화를 여기다 세웠습니까?》하고 선전화의 주인공인 천리마기수를 가리켜보이었다.

질어가는 어둠속에서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지금 온 나라가 증산과 절약투쟁으로 천리마대교조를 일으키고있는데 우린 뭘하고있는가? 저 숲속에 삭도를 놓을수 있는 술한 자재들을 두고도 조건타발만 하고있지 않는가, 자 보시오!》

탁정석은 정문안락에 무쳐놓은 여러대의 강대들과 싸리와 칙닝쿨단을 가리켜보이었다.

《우리가 저 강대로 철탑형태의 기둥을 세우고 싸리와 칙닝쿨로 큼직한 바구니를 엮어 삭도바가지로 리용한다면 보름안팎에 삭도를 놓을수 있을것입니다.》

일순 굳어진듯 조용하던 사람들속에서 갑자기 바람이 인듯 웅성이는 설레임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옳다. 신통하다. 저 많은 나무를 혼자서 끌고 오다니, 매 사람이 저렇게만 하면 보름이 아니라 열흘안으로 삭도를 놓을수 있을것이다.

《여 탁땅크, 고맙네! 내 진정 자네의 벗이 된걸 자랑으로 생각하네!》

포옹하달실이 탁정석의 손을 부여잡은 심학철이가 목매여 하는 말이었다.

《그게 어디 자네 혼자 일인가. 저기서 설계실 처녀가 보고있네.》

아닌게 아니라 그 처녀가 깊은 상념에 잠긴듯 숙연한 자세로 이쪽을 보고있었다. 선전화를 보고있는듯... 그날밤 심학철이와 탁정석은 품성좌에서 북극성 가까이 나란히 자리잡고있는 두개의 별송이에 우정의 상징으로 공병별, 땅크별이라는 낭만적인 이름을 달아주었다...

《사실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게 흘러간 세월이라더니 그게 벌써 수십여년전일로 되였는가?》

탁정석은 허허 소리내어 웃으며 트렁크를 찾아들었다. 갑자기 온몸이 얼어든듯 오싹 추워났다.

## 2

탁정석은 온몸에 땀이 쭉 내배도록 힘차게 걷고싶었으나 생각과는 달리 벌써 몇번이나 몸의 균형을 잃고 궁둥방아를 찢을번했다. 그것은 산골밤길에 익숙되지 못해서만이 아니었다. 제판에는 정신차려 걷느라고 하였지만 어느결에 잊었던 생각들이 련줄런줄 꼬리를 물고 일어서는 바람에 자신을 잃고 헛걸음을 내짚군해서였다.

(결혼식이라... 산림보호원이란 말이지...)

교원은 직업이 아니라 혁명가라고 하였는데 은별은 교육자로서의 자신을 보여주기에 앞서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건 사랑에 빠져있는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래 그애가 우정의 참뜻이 무엇인지, 사랑의 진가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고 대학교문을 나서기 바쁘게 벗이요, 련인이요 하는가 말이다.

그리고보면 은별이를 자기 머느리로 삼겠다면 심학철이에게도 무엇인가 리해되지 않는것이 있었다. 은별이가 자빠지면 그 누구보다먼저 일으켜세워주고 생활의 궤도에서 탈선될세라 손잡아 이끌어주어야 할 그가 그 무슨 시름이라도 더는것 같이 어서 와서 선을 보고 결혼식을 하자고 하니 친우로서의 도의를 저바리지 않았나 하는 선입견까지 들었다.

(아니, 심학철은 결코 그럴수 없어.)

탁정석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저도 모르게 결음이 떠졌다. 지나온 자기들의 청춘시절이 상기되어서였다. 심학철이도, 탁정석이도 발전소건설장에서 사랑을 맺었다.

기억의 갈피속에 류다른 폐지를 장식한 《과마머리》 그 처녀로 하여 뜻밖에도 두 친구는 합선된 전기선마냥 충돌했었다.

그들은 불과 열흘남짓한 사이에 무동력삭도를 완성했다. 발전소건설장은 하루가 다르게 폭폭 일자리가 났다. 천리마대교조의 그 열풍에 거울이 녹아나고 봄이 온듯 강기슭에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 나날에 탁정석은 여전히 짝사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있는 심학철이를 두고 이만저만 마음을 쓰지 않았다. 휴식참에 옹헤야 출판이 벌어질 때이면 심학철이와 그 처녀가 한쪽이 되어 춤을 추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한번은 심공병이 대담한 용단을 내려 밤을 새워가며 사랑을 고백한 편지를 썼었다. 물론 그 편지도 탁정석이가 전달했다. 그랬으나 처녀의 자세는 여전히 도고했다. 탁정석은 그만에야 울컥하고말았다.

사랑의 감정이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어느모로 보나 빠진데없는 인격자가 자기에게 현혹되어 사랑을 갈구하고있는데 제아무리 코대높은 녀자이기로서니 그럴수가 있는가?

마침 그 어느 휴식일에 그 처녀가 3년간의 전화속에서 새들마저 보금자리를 잃었는데 숲으로 날아든 새들이 마음놓고 번식할수 있게 인공새둥지를 만들어주자고 호소했었다. 건설자들은 너나없이 호응해나섰다.

탁정석이도 처녀의 발기에 감동되어 무려 20여개의 새둥지를 만들었었다. 심학철은 불타버린 산에 나무도 심자고 제기했다.

그리하여 심학철이네 중대는 나무를 심게 되었고 탁정석이네 중대는 인공새둥지를 설치하게 되였다. 삼삼오오 떼를 지어 숲으로 들어간 건설자들속에서 탁정석은 그 처녀를 농칠세라 줄곧 여겨보며 새둥지를 설치해나갔다. 그가 힘들어하면 도와주자는 속심에서만이 아니였다. 이런 기회에 심학철에 대한 처녀의 진심을 떠보고싶어서였다.

그러나 사방에서 나무에 못을 박는 소리가 숲속으로 메아리쳐 가고있었지만 그 처녀와 마주설 기회는 좀처럼 조성되지 않았다.

탁정석은 두루 궁리하던 끝에 제 나름으로 진달래 한송이를 감춰두고 처녀를 불렀다. 구실인 죽은 못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남은것이 있으면 좀 달라는 것이었다. 처녀는 못통을 들고왔다.

탁정석은 못통에서 뿔수록 굵고 큼직한 못을 고르는척하다가 문득 생각난듯 진달래송이를 처녀에게 내밀었다.

《우리 심동무가 마지막으로 보내는건데 받겠소, 안받겠소?》

그야말로 최후통첩이었다.

그런데 귀밑까지 빨개진 처녀의 대답이 가관이었다. 총각이 총각을 소개하는것은 녀성에 대한 모욕이라나, 한마디로 결가마가 먼저 끊지 말라는 것이었다.

《중이 제머리를 못깎는다는걸 모르오?》

《저는 그런 중을 좋아하지 않아요. 알아두세요. 제가 여기로 온것은 그 누구들처럼 대상자를 물색하러 오지 않았다는것을, 그러구 전 아직 그 동무를 잘 몰라요!》

처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그 순간 탁정석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아직? 그래 아직이라고 했어. 그러니 미련은 있다는게 아닌가?)

탁정석은 손에 쥐고있던 못이 살갗을 찌르는 줄도 모르고 무릎을 탁 쳤다. 그리고는 아가가 바쁜 소리를 내질렀다. 처녀도 그 소리를 들은듯 얼핏 일별해보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탁정석은 은근히 원심을 썼다. 그러나 아무리 의도적이라 해도 심학철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수 있는 맞춤형 기회가 생기지 않았다.

봄철체육경기때였다. 탁정석이네 중대와 심학철이네 중대가 일이등을 가르는 축구결승경기에 나섰다. 운동장은 건설자들과 마을사람들로 꽉 들어찼다. 비록 축구문대뒤에 사진기를 목에 건 기자들은 없었지만 분위기는 세계축구선수권대회라도 하는것 같았다.

후반전이 시작된 이후에도 두 팀간에는 득점이 없었다. 기술보다 투지전으로 일관된 공방전으로 하여 손에 땀을 쥔 관람자들의 응원기세가 고조에 달했을 때였다. 3 번위치에서 방어수로 활약하던 심학철이가 어느틈에 발끝에 공을 달고 문지기를 서고있는 탁정석을 향해 단독으로 중앙선을 넘어서고있었다.

《단독이다! 나가라! 돌진!》

《문지기 각성하라!》

온 경기장이 때를 만난듯 끓어번졌다.

탁정석은 긴장했다. 한다하는 전문문지기도 단독앞에서는 꼴을 먹기가 일쑤이다. 볼을 앞세우고 돌진하는 심학철의 기상은 표범을 련상케 했다.

(저 모습을 그 처녀가 본다면, 아니 보고있을게다.)

심공병을 여겨보는 탁정석의 머리속에 불쑥 번개치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동시에 꼴을 넣은 그가 군중들의 열광적인 환호속에 목마를 타고 운동장을 돌고있는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 순간 《슛-!》하는 함성이 터졌다.

탁정석은 엉겁결에 뿔은 보지 않고 심학철이가 몸을 기울이는쪽으로 몸을 날렸다.

《꼴!!》

심학철이가 넘어지면서 지른 공이 그물에 걸렸다. 뿔은 문지기가 섰던 자리로 곧추 날아들었다.

탁정석이가 바짝 정신을 차리기만 했어도 멋지게 볼을 받아안고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을 것이었다.

그날저녁, 상현달이 뜰무렵이었다. 빨래감을 들고 강변으로 나온 두 처녀가 지척에 있는 삭도기동옆에서 당장 큰변이 날것 같이 격해있는 두 사나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동무를 가장 진정한 동지로 벗으로 생각하게 된것은 동무가 생눈길을 헤치며 삭도건설자재를 해결했다는데도 있었지만 숲을 이룬 생나무가 아니라 강대나무만 찍어온 동무한테서 조국의 숲을 사랑하는 티없이 깨끗한 량심을 보았기 때문이야, 그런 자네가 오늘 집단의 명예를 팔아나라는 일개인의 몸값을 높여주자고 했던 말이야. 그건 체육정신에 대한 모욕이며 집단에 대한 우롱이야. 그건 우정이 아니라 위선이란 말이야!》

《뭐라구?》

《동문 우리 우정의 출발점을, 근본을 모르고 있어. 우리가 무엇때문에 저 별들에 땅크별, 공병별이라는 이름을 새겨주었는가?》

《내가 그 근본을, 그 출발점을 모른다구, 이 탁땅크가? 사람을 모욕하지 말라!》

《모욕한다구? 동문 집단의 규탄을 받아야 해. 이제라도 자신의 인간됨을 보여주려거든 자기 집단앞에서, 아니, 발전소 전체 건설자앞에서 사죄하고 비판하라구, 내가 바라는건 그거야!》

《좋아. 비판하겠어. 이 탁정석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겠다 말이야!》

그들을 주시하며 가슴을 조이고있던 두 처녀의 입에서 안도의 숨이 새어나왔다.

《난 저 동무들이 정말 둔우보여, 혁명의 한길에서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맺어진 우정, 얼마나 고상해.》

외태머리처녀가 깊이 감동되어 하는 소리였다. 《파마머리》 역시 이름할수 없는 충격을 받은듯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있다가 불쑥 입을 열었다.

《정미, 내 탁동무를 소개해줄가?》 하고 설레이는 마음을 웃음으로 가리워보려는듯 뚱처럼 말했다.

《그가 나같은걸 보거나 하겠대.》

《알게 뭐니. 자신보다 동지를 더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혁신자로 소문난 정미를 영원한 길동무로 포용해줄지.》

《호...》

두 처녀는 봄향기 풍기는 미풍에 감미로운 웃음을 날리며 강물에 빨래감을 담그었다.

그해 가을, 그들 두쌍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건설자들의 축복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하였다. ...

《아차-》

탁정석은 또 한번 울퉁불퉁한 얼음길 세례를 받을번했다.

가까스로 몸의 중심을 잡은 그는 새삼스레 하늘의 못별들이 눈여겨졌다.

(한생을 불변궤도에서 별처럼 빛나게 살아야 할 자식들이 아닌가.)

아버지들은 피로써 조국을 지킨 병사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한 건설자들이었다.

탁정석은 공장에서, 공원에서, 길거리에서 간혹 옷차림이 바르지 못하거나 행실이 그런 그 나이트래의 청년들을 볼 때면 은근히 걱정을 앞세우곤했었다.

(정녕 행복만을 안고 자란 저 애들이 자기들의 어깨우에 전 세대의 혁명위업이 놓여있다는걸 자각하고있는것일까?)

탁정석은 공장책임일군들의 모임이나 친지들과 마주앉는 기회가 생기면 뜨문히 이런 말을 하곤했었다.

새 세대 청년들에 대한 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겠다고.

(남의 자식들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것처럼 가슴아파하던 내가 지금 어떤 밤길을 걷고있는가?)

탁정석은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눈먼 애무에도 취되어있었던 자신을 깨닫는가싶었다.

### 3

《허어- 그애가 결국 아버지의 진땀을 빼는군...》

탁정석은 전보를 날리지 않고 떠난 자신을 이만저만 후회하지 않았다.

심학철의 집은 텅 비어있었다. 그 역시 자식들을 다 날려보내고 량주가 비둘기처럼 살고있었다. 그런데 오늘이 일요일이라 어제저녁에 은별이가 학생들을 데리고 사업소에서 시오리나 떨어져있는 석계작업소 마을로 올라갔다는것이였다. 심학철이내외도 은별이네들과 함께 갔다고 했다. 난감했다. 그렇다고 언제 돌아올지 모를 그들을 무작정 앉아서 기다릴수는 없었다.

탁정석은 대충 아침요기를 하고나서 손질을 옆집에 맡겨둔채 석계마을을 향해 걸음을 다그쳐댔다. 늦잠을 자고난듯싶은 게으른 산골해가 석

계골수림속에 산만한 빛살을 겨우 뿌려주며 느릿느릿 산정으로 오르고있었다.

해가 퍼지자 봄기운이 완연해졌다. 각양각색의 혼성림이 짙어찬 수림속의 정취는 예이제 아름다웠으나 탁정석의 시야에는 그 모든것들이 안겨들지 않았다. 그저 폐부속을 후련히 적서주는 수림속특유의 싱그러운 공기만을 넋없이 들이켰다. 머리속에는 오직 은별이에 대한 생각뿐이였다.

그는 눈결에 새로 설치한듯싶은 인공새둥지를 보고서야 주위의 산발들에 눈길이 갔다. 초행길이건만 왜서인지 낯설어보이지 않았다. 전후에 자기들이 심은 나무들이 락락장송으로 자라 수림을 이룬것 같았고 새둥지도 방금전에 자기네가 설치해놓은것 같이 느껴졌다.

(은별이가 혹시 석계작업소 수림에 인공새둥지를 설치해주려고 학생들을 데리고 왔는가?... 그랬으면 좋은 일인데.)

그것은 은별이가 이왕 이곳에 온 이상 튼튼히 발을 붙이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기대이기도 했다.

탁정석은 본능적인듯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자식을 어리광으로 키워놓고 《봉황》이 되기를 기대하다니.

그가 은별이네 학생들을 만난것은 석계마을에 채 못미쳐 벼랑을 이룬 바위틈사리들에서 솟구쳐오르는 폭포수가까이 수림속에서였다.

눈석이가 한창인 수림속에서 왁작 떠드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찾아가면 탁정석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고등학교 4~5 학년 연령의 사내애들이 전주대쪽대기에 달라붙은 전공들마냥 나무잡이를 하고 서서 못뽑이로 못을 뽑고있었다. 나무밑에는 인공새둥지를 손에 든 처녀애들이 남학생들이 뽑은 못을 잃을세라 인기척도 느끼지 못하고 쳐다보고있었다.

《애야, 너희들은 여기서 무엇들을 하고있느냐?》

말소리를 듣고 돌아본 귀염성스레 생긴 처녀애가 이 산속에 웬 신사복차림이냐는듯 아래우를 훑어보며 속눈섭을 울롱하니 치켜뜨는것이였다. 보고도 모르겠냐는듯.

《우린 인공새둥지에 박았던 못을 뽑고 대신 참대못을 박아주고있어요.》

처녀애는 흔히 하는 일인듯 범상하니 대답하고는 나무우듬지를 타고앉은 남학생에게 시선을 돌리였다. 어느 순간에 못이 뽑혀나올지 몰라서 인것 같아서였다.

《... ?!》

탁정석은 땡하니 처녀애의 뒤더수기에 달린 나비형 각빈침만 바라보고있었다.

(못대신에 참대못을 박다니?)

아닌게아니라 처녀애가 들고있는 두칸막이 못통 한쪽에는 기름에다 찌낸듯한 참대못이 담겨있었다.

(저런, 철딱서니라구야...)

탁정석은 떡심이 풀려 더는 아무 말도 나가지 않았다.

(저러다 떨어지길라도 하면 어쩔려구...)

탁정석은 은별이도 은별이지만 심학철이가 더 민망스러웠다.

은별이는 아직 먹은 나이가 없어 그렇다치고 환갑고개를 쳐다보는 심학철이가 그해 학교에 필요한 몫을 구해주지 못해 애들이 저런 일을 하는 걸 두고도 수수방관하고있단 말인가...

(몸이 지내 나서 아침마다 산판달리기로 고혈압을 예방하고있다더니 소라껍질을 뒤집어쓴 보신주의자가 된게 틀림없어.)

탁정석은 전선길에서 땅크시창을 내다보곤하던 그 날카로운 눈으로 주위를 휘익 둘러보았다. 틀림없이 이 아근에 심학철이나 은별이가 있을것 같아서였다.

(그러구두 뭐 자기는 《그때처럼 살고있는가》하는 노래가 제일 마음에 든다구...)

마침 저쪽 아릅드리 피나무밑에 교원인듯싶은 젊은이가 나무잡이를 하고있는 학생에게 안전바줄을 든드히 매라고 타이르고있었다.

탁정석은 걸림에 엉클에 발목이 걸릴세라 경정경정 그한테로 다가갔다.

《수고합니다.》

청년은 누구냐는듯 의아스레 돌아보았다.

탁정석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않을수 없었다. 체격도 얼굴도 잘 생긴 형인데 화상을 입은듯 얼굴살갓이 보기 흉할 정도로 이지러졌었다.

(아까운 젊은이가 그렇게 되였군. 피부이식수술을 하면 좀 낫겠어.)

탁정석은 느닷없이 이런 생각을 하며 은별이가 어데 있는가고 물었다.

《탁은별선생말입니까?》

청년은 의외인듯 놀라는가싶더니 얼른 옷매무시를 바로잡고나서 자기가 안내해드리겠다고 선선히 나서는것이였다.

은별이를 찾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제책 알아본것 같았다. 탁정석은 아들같은 젊은 사람이긴 하지만 고마운 생각에서 《클락새》담배갑부터 꺼내들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구 수림속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선생》은 미안한듯 어쭙은 미소를 그리며 점잖게 사양했다.

(어허, 내가 실수했군, 대바른 청년인걸...)

탁정석은 비주름히 미소를 지어보이고는 《선생》이 안내하는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한동안 앞서걸던 청년은 돌아서며 미안한 얼굴을 하고 량해를 구하는것이였다.

《저- 제가 자리를 뜰수 없어 그러는데 미안합니다...》하고는 가까이에 있는 녀학생을 불렀다.

《선옥이, 이분을 탁은별선생님께 모셔다드리라구.》

탁정석은 왜서인지 선옥이를 따라 룡선으로 오르는겨를에도 그 《선생》의 표상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학생, 이자 그 선생은 무슨 과목을 가르치나?》

《예? 호... 그 아저씨는 선생님이 아니라 산림보호원이에요.》

《어영?...》

탁정석은 불에 데인듯 놀라며 눈을 홑떴다.

(그러니 은별이가 사모한다는 총각이 그 사람이란 말인가?)

처녀애는 깜짝 놀라는 낯선 손님을 이상스레 바라보며 머리를 가웃거리였다.

《애야, 어디 좀 자상히 말해보려무나. 여기 그 사람 말고 젊은 산림보호원이 또 있느냐?》

처녀애는 살래살래 고개를 저으며 그 청년이 자기의 친오빠이거나 한듯이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청년은 몸과 얼굴에 화상을 당한 영예군인이였다. 군당에서와 사업소에서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가 편히 실것을 권고하였지만 자기는 숲을 떠나서는 못사는 사람이라고, 자기 한생은 숲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자진하여 산림보호원사업을 맡아보고있다는것이였다.

실로 탄복되는 청년이였다.

탁정석은 심중했다.

(은별이가 그래서 그 청년을 사랑하게 되였는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애가 과연 그 영예군인과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단 말인가?)

누구보다 딸을 잘 알고있는 아버지로서는 심사숙고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가 룡선마루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다.

어느결에 아버지를 알아본 은별이가 금시 었어질듯 숲을 마구 헤치며 달려오고있었다.

《애- 넘어질라...》

탁정석이도 빠른 걸음을 놓으며 뛰지 말라고 손을 내저었다.

선생님이 왜 그러는가 하여 호기심을 품고 지켜보던 학생들이 부녀간의 해후를 흥미있게 바라보고있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는 다 큰 처녀가 아버지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애였다.

《애, 넌 저애들을 책임진 선생인데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

탁정석은 품고있던 의문부터 털어놓았다.

《못이 필요하면 편지라도 낼것이지 애들더러 나무잡이를 시켜 몫을 뽑게 하다니...》

《아버지, 그건 숲을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즐겨하는 일이에요.》

은별이 자랑섞인 어조로 긍지를 가지고 하는 말이였다.

《으흥- 즐겨하다니? 새둥지를 달아주는건 좋은 일이지만 몫을 회수해 쓰겠다고 새둥지에 박

아둔 못을 뽑고 참대못을 박는건 즐거운 일이라 할수 없다. 애들의 부모들이 보면 뭐라고들 하겠느냐.》

《호호호...》

《웃어...?》

탁정석은 일부러 엄한 표정을 지어보이었다.

《아버지, 생각나세요, 제가 고등중학교때에...》

《선생님을 홍보던 일말이나?》

《아이 아버지두, 아직두 그걸 기억하고계세요!》

《허... 네가 험이 들 때까지는 잊지 못할게다.》

《호호호... 이젠 잊어두 돼요.》

《아-니...》

탁정석은 고집스레 도리머리를 저으며 동을 달았다.

《네가 대학을 졸업한 교육자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자기를 모르고있어.》

《예?... 아버지 지금도 제가 우리들에게 행복만을 안겨주려고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어렵게 살아온 전세대들의 그 고결한 뜻을 자기의 녀으로 간직하지 못하고있다는거군요...》

탁정석은 엄한 표정을 느슨한 미소로 풀며 눈을 꿈쩍 감았다뜨는것으로 우수했다.

《그러니 아버지가 이렇게 오신것도 다른 불일도 불일이지만 보다는 철부지같은 이 딸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였군요. 아버지, 걱정놓으세요. 제가 비록 고생을 모르고 자랐지만 우리가 안고사는 행복의 자양분이 무엇이며 그 행복을 우리 자신이 지키고 빛내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도 미래도 없다는것을 제가 왜 모르겠나요.》

(네가 되려 아버지를 위로하려드는구나. 허... 지금 애들은 말로야 무엇이든 다 한다지, 문제는 자기가 어떤 인간이 되여야 하는가를 심장으로 체현하지 못하고있는거야.)

탁정석은 입가에 떠오른 비난섞인 미소를 허...배바람소리로 날려버리며 딸을 이윽히 바라보던 시선을 나무잡이하고있는 애들한테로 던지였다.

허리에 안전바줄을 매고 나무우듬지를 타고 앉은 사내애가 못을 뽑는 일이 기억에 새겨둘 장한 일이거나 한듯 경쾌한 노래가락을 휘파람소리에 담고있었다.

은별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그 심중을 읽은듯 의미심중한 미소를 그리며 아버지 생각나세요 하고 말하려던 고등중학교때의 기억을 펼쳐놓기 시작했다.

대학지망문제로 하여 머리가 산란하던 어느날 아버지를 만나려 공장으로 찾아간 은별이가 제제작업장에 들렀을 때였다.

마침 오랜 기능공인 제재공아바이가 공장에 갓 들어온 애젊은 노동자를 데리고 통나무를 커고있었다. 그때 그들의 작업모습을 지켜보고있는 아버지결으로 다가가려던 은별은 갑자기 아츠러워진 톱날소리와 함께 다급한 웨침에 기겁하여 흠칫 뒤로 물러섰다.

《나무를 빼라!》

그러나 애젊은 노동자는 제재기소리에 아버지의 고함소리를 듣지 못한듯 그대로 안간힘을 쓰며 나무를 들이밀고있었다.

순간, 무엇인가 부서지는듯한 앙칼진 소리와 함께 통나무를 커던 원형톱날이 똑 멈춰서고 전동기에서 비명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전동기가 탄다. 스위치를 끄라!》

은별은 후려치는듯한 새된 소리에 그 무슨 큰변이 난것 같아 본능적으로 얼굴을 싸쥐었다.

현장을 수습하고보니 원형톱날은 더는 쓸수 없게 되었고 과부하를 받은 전동기도 수리를 해야 했다. 까닭은 통나무에 쇠꼬치가 박혀있어서였다. 머리끝까지 성난 아버지는 가차없이 애젊은 노동자를 꾸짖어댔다.

《일을 배우겠으면 채심해서 똑똑히 배워야지...귀가 밝은 젊은녀석이 톱날소리 하나 가려듣지 못해?...》

청년은 짝소리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있었다.

제재공아바이도 죄책감으로 해서인지 통나무만 이리저리 살펴보며 몸둘바를 몰라했다.

《원시림에서 찍어온 나무가 분명한데 쇠꼬치를 품고있다니...》

아바이는 리해가 가지 않는듯 혼자말처럼 중얼거리며 지배인의 눈치만 엿보고있었다.

그날 은별은 난생처음 아버지에 대한 민망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집에서는 그렇게도 자애스러운 아버지가 일을 갓 배우기 시작한 노동자가 아차 실수한걸 가지고 나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것이였다...

《아버지, 제가 이곳에 와서 생활하는 과정에 문득 그때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산림보호원 동무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글썄 그 동무가 나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은별선생, 선생은 정말 훌륭한 교육자입니다. 우리 새 세대들에게 조국의 숲을 사랑하는 정신을 키워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경제적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수림속의 그 어느 나무 한대라도 쇠못을 품고있지 않게 모조리 찾아내여 다 뽑읍시다. 그리고 인공새둥지에는 참대못을 박아줍시다.)



호호호... 그리고는 글썽 자신이 손수 기름가마에 찌낸 참대로 술한 참대못을 만들어놓았더군요.》

얼핏 들으면 은별이가 호들갑을 떨며 자기자랑을 하는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그 산림보호원을 자랑하고있음을 표정만 보고도 력력히 알수 있었다.

탁정석은 딸의 말을 들으면서 지금껏 본의아니게 숨기지 말아야 할걸 숨기고 살아온듯 마음 한구석이 뜨끔해났다. 그 나무들에 자기가 못을 박아놓은것 같이 생각되어서였다. 하긴 지금도 발전소주변 숲속에는 전후에 자기네들이 새둥지를 설치하면서 박아놓은 못들이 적지 않을것이였다.

(나무를 전문 다루는 내가 왜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가?)

《그러니 지금 저 애들이 그 못들을 뽑고있단 말이나?》

《예, 오늘은 일요일이여서 우리 학생들뿐아니라 학부형들도 떨쳐나섰어요.》

하고 은별은 산세가 험한 깊은 산속에는 심학철이가 학부형들과 함께 들어갔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탁정석은 형언할수 없이가슴속이 몽클했다. 새삼스레 은별이가 눈여겨졌다. 갑자기 몸도 마음도 몰라보게 커진듯싶어서였다.

철부지로만 여겨온 저애가 언제 저렇게도 시대의 녀를 지닌 밀림속의 꽃으로 피었는가.

(학부형들도 떨쳐나섰단 말이지... 먼 후날에 가서는 저애들이 오늘을 추억하겠지.)

탁정석은 불쑥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분명 은별이의 애인인듯싶은 그 영예군인의 표상이 우렷이 눈앞에 안겨왔다.

《은별아, 네가 그 산림보호원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게 사실이나?》

《네? ...》

아버지의 느닷없는 물음에 은별은 장미꽃같이 붉어진 얼굴을 어데다 돌지 몰라했다.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말이다.》

은별은 격해진듯한 아버지의 표정을 결눈질해보고는 죄의식을 느낀듯 고개를 떨구었다.

《아버지, 제가 미처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한걸 용서하세요. 사실은 그 동무가...》

자기답지 않게 더 말을 잇지 못하는 은별의 눈에 까담모를 눈물이 고이였다.

말을 생각깊이 지켜보는 탁정석의 마음도 찌릿이 젖어올랐다.

《애야, 사랑이란 일시적인 충동이나 동정의 산물이 아니다. 그 어떤 의무감에 의하여 성립되는것도 아니지, 문제는 네 심장이 어떻게 불타오르고 열렬히 뛰는가에 달려있는것이란단.》

그런 심장을 헤쳐보이기전에는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아버지, 전 자신에 대해 언제나 솔직했어요. 부모님들이 반대없으시다면 저는 그 동무를 위해 나의 모든것을 다 바치겠어요. 그 동문 조국을 위해, 동지들을 위해 청춘을 바쳤어요.》

딸의 절절한 말을 듣고보니 생각은 더더욱 깊어졌다. 이름할수 없는 감동이 한가슴 그들먹이 차오른다.

누가 이애를 이렇듯 인간의 가장 높은 경지로 이끌어주었는가?!

은별이는 어제날의 철부지가 아니였다.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복받은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한송이 아름다운 꽃이였다.

불현듯 가슴이 몽클 젖어들며 망막이 뿌영게 흐려진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눈앞에 환히 안겨왔다.

《은별아, 아버지진 너희들의 앞날을 축복한다.》

《고마워요. 아버지.》

은별은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탁정석은 지난밤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던 생각이 떠올랐다. 우주와 함께 영원히 빛을 뿌릴 그 별들속에 은별이도 보이는듯싶었다.

그랬다. 고마운 제도를 안겨준 어머니당,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속에서 자란 수천수만의 새 세대들이 온 나라 곳곳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아름다운 소행을 꽃피우며 주체의 빛발을 따라 무수한 은별로 빛나고있지 않는가!

생각이 깊어질수록 가슴뜨거워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옆에 심학철이가 없는것이 유감이였다. 그와 함께 지나온 청춘시절의 회역을 더듬으며 자식이 걱정스러워 마음놓지 못해하던 자신의 그 심정을 기꺼이 털어놓고싶어서였다. 그리고 전세대들의 뜻을 유감없이 빛내여가는 그 영예군인과 은별이를 전세대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싶었다.

숲속에는 애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영원한 메아리마냥 하늘높이 울려퍼지고있었다.

그 품을 떠나선 못살아

그 품을 떠나선 못살아...

## 웃는 봉선화

(총련) 김광숙

우리 집 뜨락에 곱게도 피는  
봉선화 봉선화 연분홍 봉선화  
조국을 그리는 내 마음이런가  
이국땅에 피어도 밝게만 피네

내 어린 동요시절 꽃잎을 따서  
손톱에 물들이며 반겨놓았지  
나라 없는 설움을 너와 나누며  
백두산이 솟은 하늘 바라보았지

조국이 없을 땐 울던 봉선화  
조국이 있으니 웃는 봉선화  
해와 별 따사로운 빛발아래서  
오늘은 송이송이 향기풍기네

봉선화 봉선화 우리 나라 꽃  
봉선화 봉선화 너는 내 사랑

## 흐르라 아름다운 물결이어

오필천

출근길에 퇴근길에  
무심히 지나던 네거리초소  
내 레사롭게 보아온 여기서  
그런 위훈이 새겨지리라고  
미처 생각 못했구나

그칠줄 모르고 실려오는 웃음을  
맞아주고 떠나보내던  
이 벽찬 생활이 그리도 귀중했기에  
낭떠러지로 미끄러지는 빠스를  
한몸 육탄이 되어 막아섰던  
못잇을 전사- 조철남동무여

새하얀 둥글모아래  
눈인사도 정답던 그 모습  
사람들은 무심히 보아왔건만  
그렇게 뜨거운 불덩이가  
그 가슴에 꿰고있는줄 몰랐구나

때로는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건늬길을 건네주고  
깊은 밤 집집의 문을 두드려  
나들이온 로인에게 딸네 집을 찾아주고  
말없이 밤길을 웃으며 건넌  
거리의 주인-인민의 안전원

무더운 날 바다가로 우리 떠날 때  
명절날 유원지로 우리 떠날 때  
지휘봉을 들어 길을 열어주며  
눈인사만 보내고는  
한점 까닥없이 서있던 그대

그자리에서 한치만 비켜섰다면  
홍안의 청춘시절  
웃음도 많았고 꿈도 많았던  
그 생을 이룰수 있었으련만

인민의 안전을 맡겨  
최고사령관동지 정해준 초소는  
한치도 비켜설수 없음을  
우리의 심장에 새겨준 동무여  
값높이 바친 영생의 참된 길우에  
행복의 궤도는 뻗어있구나

아 흐르라 생활이어  
흐르라 행복의 물결이어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  
아름다운 물결이 끝이 없음을  
사람들이여 부디 잊지 마시라!

# 3 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중요한 과업

장정춘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어붙이며 90 년대 혁명의 진군길을 대오속에 우리의 공로자랑찬 대오속에 우리의 혁명의 전위들이 3 대혁명소조원들의 모습으로 보인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 대혁명소조원들은 3 대혁명의 전위이며 우리 당의 핵심력량입니다. 해당 단위에서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하는것은 3 대혁명소조원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3 대혁명소조원들은 우리 당이 이 과격한 3 대혁명의 전위이며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투쟁의 기수들이다.

3 대혁명의 불길에 세차게 타 버리고있는 사회주의건설의 어려운 초소마다에 우리 당에 한히 충직한 3 대혁명소조원들이 서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 관철을 위해 자기들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투쟁에 이끌어나가고있는 그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노력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룩한 모든 승리,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사회주의위업의 불패성과 일심단결의 위력,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인민의 갈피갈피에 모든 기적과 위훈의 갈피갈피에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투쟁하여온 3 대혁명소조원들의 높은 충성심과 헌신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3 대혁명수행에서 위훈을 떨치고있는 3 대혁명소조원들의 빛나는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오늘 우리 문학앞에 나선 근본요구이며 중요한 과업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3 대혁명소조원들의 빛나는 형상을 창조하는것이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우리 문학의 근본사명으로 되기때문이다.

주체혁명위업에 이바지하는것은 인간의 자주적인 삶을 위한 투쟁의 문학이며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을 자기의 근본과제로 제기하는것은 문학인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의 근본사명이다.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이 근본사명과 역할을 떠나 우리 문학의 높은 사상성과 혁명성, 고상한 예술성과 형상성 그리고 인민대중에 대한 그의 교양자적기능과 역할에 대해 말할수 없다. 3 대혁명소조원들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3 대혁명들을 힘있게 밀어붙여나가는 혁명의 전위들이다. 따라서 우리 문학은 3 대혁명소조원들의 빛나는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떠나 3 대혁명수행을 추동하는 자기의 숭고한 임무를 다할수 없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에 이바지하는 당적문학으로서의 자기의 근본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없다.

3 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창조가 오늘 우리 문학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주체혁명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을 자기의 본성으로 하는 우리 문학의 필수적요구이라는데 있다.

주체혁명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창조는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의 근본특성이며 생활과 투쟁의 참다운 교과서, 무기로서의 우리 문학의 근본사명이다. 문학의 본성에 대한 문제, 그 사명에 대한 문제는 주인공의 성격창조문제와 직접적으로 련관되어있다. 그것은 결국 그 문학의 중심에 어떤 주인공을 내세우며 어떤 체를 제기하고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가장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는 언제나 그 문학의 중심에 서있는 주체혁명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는 문제와 련관되

여있으며 그에 의하여 그의 모든 정당한 해결이 주어진다. 3 대혁명소조원들은 우리 시대 주체혁명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이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혁명위업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선봉대, 투쟁의 기수들이기때문이다. 우리 시대 3 대혁명소조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의 기본특징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부동한 세계관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한몸바쳐 나서는 혁명전사라는 데 있다.

3 대혁명소조원들의 성격창조 문제, 바로 여기에 주체혁명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시대의 가장 절실하고 의의있는 사회적문제에 올바른 예술적해답을 줄것을 요구하는 우리 문학의 근본특성이 있으며 오늘 이 문학이 중요하게 힘을 넣어 풀어야 할 근본과제가 있다.

오늘의 현실적조건에서 3 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창조를 떠나 우리 문학이 주체혁명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참다운 인간의 본보기로 인민대중을 3 대혁명수행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자기의 사상교양자적 및 동원자적 기능과 역할을 다했다고 할수 없다.

3 대혁명소조원들의 빛나는 형상을 창조하는 문제는 또한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오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의 일시적 좌절과 붕괴를 기회로 반사회주의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으며 특히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위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는것을 막아보려고 발광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상을 일으킴으로써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

정치적생태체로 일심단결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과 사  
회주의의 불패성을 다시한번  
은 세상에 뚜렷이 보여줄 것  
을 철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  
을 일으키며 우리의 사회주의  
위업의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  
하기 위한 근본열쇠는 사상, 기  
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있게 벌리는데 있다. 3대혁명  
소조원들의 형상은 3대혁명의  
수행되고있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들마다에서 원썬  
모든 그 어떤 반사회주의적  
에도 끄떡없이 혁명과 사회주  
의를 끝까지 옹호하고 고수하  
며 빛내여나가기 위해 투쟁하  
는 전결한 혁명가, 공산주의  
의 빛나는 형상이다. 3대혁명  
소조원의 형상, 여기에 제국주  
의자들의 발악적인 공세속에서  
도 사회주의의 기치, 주체의 혁  
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  
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개와 혁명성, 전결성이 빛  
고 있다. 또 여기에 그 어떤 다  
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볼수 없  
는 우리 인민의 강요한 신념과  
의지, 불굴의 정신이 맥박치  
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이미 전  
인민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3  
대혁명의 불길의 세차게 2번  
지고있는 우리의 현실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  
창조문제를 우리 문학의 중요  
한 과제의 하나로 제기하여  
왔다. 우리 문학은 이 생활분야  
의 탐구에서 이미 적지 않은 성  
과를 거두었다.

단편소설들인 《해빛을 안고  
온 청년》, 《혁명소조원 김동  
무》, 《사랑을 안으라》, 《시  
대의 흐름속에서》 등과, 중편  
소설 《생활의 언덕》을 비롯  
한 장편소설들, 서정시 《우리  
소조원은 말한다》를 비롯한  
시문학작품들은 당과 수령께  
없이 충직한 우리 시대 혁명  
소조원들의 전형적 형상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3대혁명  
수행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  
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그러나 지금 3대혁명소조원  
을 형상한 모든 작품들이 다 당  
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사상에  
술적으로 훌륭하게 창작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 문학앞에는 3대혁  
명소조원들의 형상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조하여야 할 중  
요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창조  
에서 우리 문학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옹은  
사상정신세계를 개성화된 생  
동적 인간성격을 통하여 예술적  
으로 진실하게 형상하는것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지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형상의  
핵으로 옹게 잡아쥐고 그 충실  
성의 발현과정을 감명깊게 그  
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성심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뿌  
리내린 혁명적신념이며 가장  
순결하고 뜨거운 사상감정이다.  
특히 당의 친위대, 돌격대라는  
값높은 칭호를 받아안은 우리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있어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첫  
째가는 생명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 3대혁명  
소조원이라는 그들의 존재자체  
를 생각할수 없다. 오직 자나  
나 당과 수령만을 생각하며 기  
쁜 때도 어려울 때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만을 믿고따르는 절대적인 충  
실성, 이것이 그들의 가슴속에  
자리잡고있는 성격적핵이며 그  
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를  
규정하는 기본특성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첫째가는 생명으로 간직하는 3  
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창조에  
서는 그들이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는 과  
정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충실  
성은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한것이라야 가장 공고  
하고 진실한것으로 될수 있다.  
따라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것은 충실성을 제일생  
명으로 하는 3대혁명소조원들  
의 형상창조에서 근본문제로  
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충실성을 신념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만들자면 충실성  
을 신념화하여야 한다. 우리 문  
학은 충실성을 신념화하는 과  
정을 잘 보여주어야 그들이 어  
떻게 추호의 동요와 가식과 변  
심도 없이 강한 의지와 신념  
을 가지고 난관도 시련도 꺾  
이 이겨나갈수 있는가 하는 성  
격적기초와 생활적바탕을 진실  
하게 보여줄수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첫째가는 생명으로 간직하는 3  
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창조에  
서는 또한 그들이 충실성을 량  
심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충실성을 량심  
화한다는것은 당과 수령을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언제 어디서  
나 진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  
려는 깨끗한 마음을 깊이 간직  
한다는것을 말한다.

량심은 사람으로 되게  
하는 중요한 징표로서 인간학  
인 문학의 기본형상과제의 하  
나이다. 사람은 량심을 거울로  
삼고 자기의 모든 행동을 거기  
에 비추어보며 량심에 꺼리끼  
지 않게 살려고 한다. 이로부터  
그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지향으로, 그가 추구하는 인간  
문제의 중요한 한개 탐구령  
으로 되고있다. 따라서 3대혁  
명소조원들의 당과 수령에 대  
한 충실성을 형상함에 있어서  
그의 량심화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는것은 문학적형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  
것은 사리와 공명으로부터가 아  
니라 높은 자각으로부터 사회  
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진실하게 살며 일하려는 그들  
의 마음에 대한 찬가로 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첫째가는 생명으로 간직하는 3  
대혁명소조원의 형상창조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그들이 충실  
성을 도덕화하는 과정을 잘 보  
여주는것이다. 그것은 당과 수  
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의 형  
상을 깊이있게 창조하는 문제  
이며 인간의 도덕적품모가 어  
떤 경지에 이를 때 가장 숭고  
하고 뜨거운것으로 될수 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문제이다.

아무리 성격을 생동하게 형상  
한다 하더라도 그 당과 수령  
을 자기 운명의 그인으로, 어버  
이로 높이 모시고 당과 수령의  
은덕에 거어이 보답하려는  
고한 의리심을 가진 인간으로  
옹게 형상함이 없이는, 다시말  
하면 주인공의 성격을 충실성  
을 도덕화하는 과정으로 진실  
하게 형상함이 없이는 그 성격  
을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훌륭하게 형상할수 없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3대혁명소  
조원의 형상창조에서는 또한  
충실성을 생활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

충실성을 생활화한다는것은  
충실성을 일상생활속에서 공  
화하고 실천활동에 구현한다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3대혁명  
소조원의 성격적품모를 진실하  
게 형상하기 위해서는 생활과  
정에 드러나는 그의 지극한 효  
성과 충성의 마음을 진지하게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일할 때  
나 회의, 학습을 할 때, 걸을  
때나 밤을 먹고 휴식을 할  
때나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당

과 수령을 더 잘 받들어 모시겠다는가 하는 데 대해 늘 생각하는 주인공,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힘과 지혜를 다바쳐가는 주인공의 성격을 잘 그칠려야 한다. 생활화되지 못한 이중성은 빈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첫째가는 생명으로 삼는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창조에서 생활묘사의 필연적 요구를 더욱 강조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창조에서는 이처럼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하는 과정으로 깊이있게 그림 때에만 그것을 그들의 성격적 행여기에 다른 이의 문학적 성격에 비한 3대혁명소조원들의 성격적 충고성의 높이가 있는것들이 지니 모든 사상적인 품모의 아름다움의 원천이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형상문제, 여기에 또한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창조에서 가장 힘을 넣어야 할 중심과제가 있다. 바로 여기로부터 그들의 모든 사색과 활동, 그들의 삶과 투쟁의 모든 문학적형상화, 그들의 개성적성격탐구의 제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흘러나오게 되며 규정되게 된다.

말하자면 3대혁명소조원들이 대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문제, 정치적인지도와 과학기술적인지도 결합시키는 문제, 당조직과 합심하며 일군들을 과학기술적으로 도와주며 그 생활현장에 이 들어가 대중을 실천행동으로 이끌어주며 이신작적하는 문제 등 제반 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형상화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창조에서 중요한 다른 문제의 하나는 그들의 부정과의 투쟁을 진실하게 형상하는것이다.

3대혁명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유물을 청산하고 요구대로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존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높은 단계의 혁명인것만큼 투쟁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그 성과적수행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은 투쟁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투쟁을 떼어놓고

3대혁명소조원들의 활동에 대해 말할수 없으며 부정과의 투쟁은 곧 3대혁명소조원들의 고유한 활동방식의 하나로 된다.

지금 3대혁명소조원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온갖 낡은 사상 잔재는 깃부셔지고 인간개조와 기술개조, 문화개조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적극적인 창조되고있다. 우리 문학은 높은 혁명성과 확고한 당적 원칙성을 가지고 부정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주인공과 그 상대인물들과의 예술적갈등관계속에서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현실생활속에 있는 부정의 본질과 그 형태를 똑바로 파악하고 부정인물의 형상을 그에 맞게 진실하게 설정하고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부정인물을 형상한다고 하여 지엽적이며 우연적인 현상에 매여달리면서 본질을 놓쳐서는 안된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일군들이 기업관리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부리며 패배주의에 빠져있거나 형식주의, 요령주의적으로 일하는 온갖 투쟁을 반대하여 강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우리 문학은 바로 이와 같은 부정과의 투쟁,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방해하는 온갖 부정적현상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우리 문학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창조에서 우리 문학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3대혁명소조원들을 생동한 개성을 가진 인간으로 형상하는것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에 대한 형상에서 성격의 개성화에 대한 문제가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는것은 이 형상이 많은 경우 개년화, 도식화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또 실지 지난 시기 우리의 소설들과 시문학들에서 형성된 3대혁명소조원들의 성격형상들이 일부 도식화되어있었거나 무미건조하게 그려졌던것도 사실이다.

예술에서의 성격은 고유한 의미에서 개성적이다. 비판복적인 개성으로 그려지지 못한 성격은 전형적성격으로 될수 없으며 사람들에게 깊은 사상미학적영향을 줄수 없다. 이것은 3대혁명소조원들의 성격적품위를 떨어뜨리며 그들의 사

상정신적품모로 사람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옹계 진행할수 없게 한다. 인간을 비판복적인 개성으로 그린다는것은 그 인간에게 고유한 특징적인것을 탐구하고 그린다는것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에서 개성은 성격을 그에게만 고유한 생활, 그에게만 고유한 심리, 감정에서 그림 때 깊이있게 형상할수 있다. 3대혁명소조원도 인간인것만큼 그에게만 고유한 생활과 심리, 감정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깊이있게 파고들 때 사람들에게 깊은 예술적감흥을 줄수 있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가의 정치적신념과 강령의 지만 아니라 그들의 리상과 포부, 구체적인 심리와 감정까지도 여러 측면에서 깊이있게 그려야 현실에서와 같이 생동한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할수 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에 대한 성격형상에서도 마찬가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정치적인신념과 강령의 지를 가지고있을뿐아니라 누구보다 아름다운 리상과 포부를 간직하고있으며 구체적인 감정과 심리를 가진 참다운 인간이다. 따라서 3대혁명소조원들의 성격을 그리는데서는 그들의 정치적신념과 함께 다양하고 풍부한 인간적개성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창조한 문학작품에서는 또한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을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생활을 떠난 인간을 상상할수 없으며 사람은 언제나 구체적인 생활속에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3대혁명소조원들의 성격형상을 감명깊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생활을 그려야 하며 생활속에서 발현되는 그들의 성격미를 잘 보여주어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공장, 광산, 농촌, 어촌, 립산마을과 설장 등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초소들 그 어디에서나 살며 일하고있다. 그들이 살며 일하는 보람찬 일터마다에서는 위훈과 혁신이 일어나고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아름다운 생활이 창조되고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이 벅찬 생활을 현실그대로의 진실성을 가지고 깊이있게 묘사하지 않고서는 그 생활을 누리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진실하게 보여줄수 없다. 생활묘사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성격형상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리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며 이 문학의 시

상미학적건인력을 높이며 사람들에게 대한 사상교양자적 및 동원자적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3대혁명소조원형상작품에서 생활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그 생활의 주인공들인 3대혁명소조원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내면생활, 그들의 지향과 념원을 깊이 있고 진실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며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3대혁명소조원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내면생활이 있다. 우리 문학은 3대혁명수행과정에 겪게 되는 그들의 고충과 애로, 그들의 기쁨과 랑만, 다시말하면 그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내면생활을 감명깊게 그리는 데 웅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형상작품에서 생활을 잘 그리기 위한 방도는 또한 인간관계를 옹게 설정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옹은 설정은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고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리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인간관계가 없는데 생활이 있을수 없고 생활이 없는곳에 인간관계가 있을수 없다. 3대혁명소조원을 형상한 문학작품에서 인간관계는 물론 긍정적주인공으로서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을 기본으로 하여 맺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을 기본으로 하여 인간관계를 맺어주어야 3대혁명소조원들의 투쟁에 의하여 변혁되어가고

는 우리의 위대한 현실과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어있는 우리 사회의 참다운 면모를 정당하게 보여줄수 있다. 이것은 긍정적인 것이 기본을 이루고있고 부정이 부차적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사회주의현실에 대한 가장 진실한 반영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관계를 새것과 낡은것, 사회주의적인것과 자본주의적인것사이의 심각한 대립과 투쟁을 반영하는 갈등선에 기초하여 맺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우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막아보려고 그 어느때보다도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그리고 우리 현실속에는 아직도 당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관찰하지 않는 현상,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없고 인민들의 생활에 무관심한 현상 그리고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등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들이 없어지지 않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의 수중에 장악된 무기로서의 우리 문학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나며 온갖 낡은것, 부정적인것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전진한다. 이로부터 3대혁명소조원들을 형상한 문학작품에서는 전형적인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인간관계를 긍정적인것과 부정적인것간의 일관한 갈등선에 기초하여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긍정적주인공으로서의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과 함께 낡은것, 뒤떨어진것의 체현자로서의 부정인물을 설정하고 그와의 관계속에서 긍정인물의 승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 3대혁명소조원인 주인공이 낡은 사상에 오염되거나 동화되지 않고 혁명성과 당적원칙성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다. 또 여기에 3대혁명전위이며 당의 친위대, 물격대인 3대혁명소조원들의 혁명성, 전투성, 견결성, 원칙성을 진실하게 감동깊게 형상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오늘 3대혁명소조원들의 성격형상을 그리는것은 3대혁명수행이 더욱 높은 단계에서 추진되고있는 우리 현실을 더욱 진실하게 반영할것을 요구하는 우리 문학의 중요한 주제분야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을 형상함으로써 3대혁명수행을 힘있게 추동하는 여기에 주체혁명위업에 이바지하는 우리 문학의 중요한 사명이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3대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에 이바지하는 우리 문학의 전투적사명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 영예군인메달

진춘근

내 이름난 혁신자도 아니고  
나라의 영웅도 아니건만  
가슴팍 이 하나의 메달이  
이처럼 크나큰 조국의 사랑을  
다 안고 빛나는가

빼스줄에서도  
어느새 알아보고  
친절한 목소리들 나를 찾네  
-영예군인동무, 먼저 오르시우

극장에 가도  
상점에 가도  
나를 위해주는 뜨거운 목소리들  
-어서 앉으세요  
-먼저 받으세요

송구한 마음에  
내 그려보는 병사시절  
준엄했던 전화의 그날에

이 한몸 다시 세워보며  
깊어만지는 나의 생각

그럴 때면  
그날의 그 격전장이 어려오네  
그날의 그 불구름이 떠오르네  
땅을 차고 일어나 돌격으로  
나아가다  
원췌의 총탄에 쓰러졌던 몸

아, 그날  
승리한 고지우에 가닿지 못한  
나의 발걸음  
내 쥐고 달려던 공화국기발을  
그만 다음 전사에게 넘겨주었  
건만  
그날에 흘린 나의 피  
그 방울방울의 뜨거움을  
조국은 얼마나 값높이 헤아려  
주는것인가

어디서나 사람들의 친절한 목  
소리가  
나를 불러 편한 자리를 마련  
해줄 때  
앞가슴에 무거운  
영예군인메달은  
아 나에게 속삭이네  
이야기하네

언제나 내 서야 할곳  
앉아야 할 자리는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할  
자리라고  
세월은 흘러도 변함이 없이  
혁명군대 로병의 자격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보위  
해가는  
그 앞자리라고!

## 소개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속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공산주의도덕 기풍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혁명적양심을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고있습니다.》**

문학가가 되기전에 인간이 되라.

이 말은 문학을 지향하는 청년들에게 선배들이 들려주던 말이다.

나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며 문학통신원 전순애동무의 서정시들에 담긴 진정을 소개하고싶어 이 글을 쓴다.

얼마전에 나는 전순애동무가 써보내온 서정시 몇편을 받아보게 되었다.

그의 중학시절부터 15년이 넘도록 그의 작품을 대해온 나였지만 이번처럼 매 시편들에 남다른 체험세계가 비끼고 소박하면서도 진정이 넘치는 시를 처음 보게 되었다.

기쁜 마음으로 알아보니 그에게 새로운 생활이 있었고 뜻깊은 사연도 있었다.

지난 6월 18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배천군 문산리 군인가족으로서 문학통신원활동을 하고있는 전순애동무가 자식없는 두 할머니를 데려다 모시고 산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아주 훌륭한 동무라고 남조선출신의 늙은이들을 모신데 방점이 있다고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이 소행을 중앙방송과 신문들에 널리 소개할데 대한 크나큰 사랑을 돌려주시였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런 일인가.

지금 우리 나라 도처에서 기특한 공산주의적 소행으로 꽃피어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화원속에 우리 문학통신원들의 얼굴을 보게 되는것이 더없이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된다.

사람들의 정신활동과 그들의 생활속에서 아름다움을 체험하며 그것을 공감하고 노래하는것보다 그 아름다움을 위해 자기를 바친다는것은 몇갑절 더 험치 않은 일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중학교 소년단지도원으로 일하던 그는 지금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한두해 있으면 그에게도 자기가 모셔야 할 시부모가 있고 홀로 사는 어머니도 그가 돌봐야 한다.

앞으로 아름다운 대가정을 예견하고있는 그였지만 어느날 군관인 남편이 배천읍에서 만나보게 되었다는 자식없이 살고있는 두 할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잠들지 못했다.

양로원에서 몇차례씩이나 데리러 왔지만 그것을 마다하고 나라의 부담을 덜겠다하며 오직 통일의 그날만을 믿고 자매처럼 한가마밥을 먹으며 살아가는 늙은이들이다.

전쟁때 경기도 양주에서 살다가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 여섯자식가운데서 세 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따라 공화국의 품으로 들어오던 길에서 원썬놈들에게 남편과 세 아이를 모두 빼앗기고 혈혈단신이 된 79살의 박영해할머니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어린 외동딸을 남에게 맡겨두고 진격하는 인민군대들의 취사원이 되어 락동강까지 나갔다가 공화국의 품으로 들어온 76살의 조기순할머니들이었다.

오직 조국통일의 그날만을 기다리며 남녘땅이 바라보이는 배천땅에 돌이 함께 생활의 뿌리를 내리운 그들이 어쩐지 남의 부모같지만 앓았다.

우리 부부가 자식을 그리워하는 두 할머니의 그 마음의 빈자리를 지켜주고 여생동안 그들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꽃방석이 되어주자...

이것이 전순애동무와 그의 남편 리종수동무의 합쳐진 결심이였고 그것으로 다소나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근심을 덜어드리자는것이 그들의 의지였다.

다음날 두 로인들을 모두 집에 모셔왔다.

이렇게 되어 남녘땅이 마주보이는 폐성강하구 벽난도 옛나무가의 한 군인사택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꽃피나게 되었다.

식구가 늘어난 첫날 둘러앉은 밥상앞에서 너무도 꿈만같아 밥술을 차마 넘기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할머니들을 보던 그때의 그 심정과 두 할머니를 모시고 찍은 새 가족사진이 신문에 소개되었을 때 사회주의조국의 축복을 온몸으로 느끼며 목이 메이던 그 걱정 그리고 때없이 정을 담아 어머니를 찾으먼 두 로인의 대답이 하나로 울릴 때 가슴이 몽쿨하게 젖어오던 딸의 심정을 꾸밈없이 소박하게 시에 담았다.

참으로 내 어머니 내 딸이 된 뜨거운 혈육의 마음이 그에게 시적감흥을 주었고 웃음넘친 새 생활의 매 순간이 그에게서 시를 낳게 하였다.

...이런 아름다운 새 세대들의 마음의 향기가 가득차흐르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미래는 얼마나 양양한가!

이런 참인간들이 우리 주체문학의 장래를 떠메고나가기에 우리 문학의 화원은 끝없이 아름답게 꽃피날것이다!

나는 우리 문학통신원들이 문학의 키와 함께  
룡성번영하는 우리 시대와 더불어 마음이 숙성함  
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확신과 기쁜 마음으로 서정시 몇편에 담  
긴 전순애동무의 아름다운 마음을 소개한다.

시인 김영근

## 세번째 가족사진 외 2편

전순애

생활의 문을 열고  
벗들의 축복속에 새가정을 꾸리던 날  
우리는 신혼부부 사진을 찍었네  
첫번째 가족사진을,

두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던 날  
행복을 안고 꿈을 안고  
우리는 또 찍었네  
두번째 가족사진을

허나 오늘엔 류다른 기쁨안고  
세번째 가족사진 찍었네  
어두운 남녘땅에 아들 딸 남겨두고  
홀로 늙어오신 백발의 어머니들  
내 집에 모셔온 뜻깊은 날에

어머니들 가슴속 빈자리에  
혈육의 모습으로 자리잡고싶던 마음  
아버이의 마음으로 헤아려주신

친애하는 그이의 뜨거운 축복속에  
신문에 크게 난 세번째 가족사진

새 어머니와  
아들 사랑 딸 사랑  
손자 손녀 사랑이  
한덩이로 엉키고 웃음으로 꽃피어  
우리 가정엔 행복도 큰데

한가정의 이 행복이  
온 마을의 기쁨이 되었네  
나를 위한 행복이  
온 나라의 행복이 되었네

신문에 크게 웃는 가족사진은  
남을 위해 내가 살고  
나를 위해 남이 살줄 아는  
내 나라 사회주의 화목한 대가정의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라네



## 내 어머니 내 딸

직장에서 돌아올 때면  
발길 먼저 마음앞서 부르는  
어머니-  
그러면 두 어머니의 목소리  
나를 향해 함께 울려와요

가정의 기쁜 일이  
나의 웃음이 될 때  
시름잇은 두 어머니의 웃음  
하나로 더해지고 커지니  
합쳐진 웃음은 나의 더 큰 행복

그래서  
지금껏 몰랐던 따스한 정  
새롭게 내 집에 한껏 어려있구나  
먼길 갔다가도 그리워  
어두운 밤길도 주춤없이  
두 어머니 기다릴 요람 찾아오는 마음

그 진정이  
따스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다정한 손길로  
친딸처럼 이 딸을 애무할 때  
더더욱 깊어지던 혈육의 사랑

한 어머니의 사랑조차  
다 받을수 없던 나에게  
두 어머니의 뜨거운 숨결은  
나의 작은 가슴에서 뛰며  
새로운 기쁨과 웃음이 되누나

두 어머니 나를 향해  
살뜰한 사랑을 기울이니  
한마디 말에도 정이 어려  
아래목에 앉아계신것만도  
방안의 온기는 한없이 따스해  
집안의 웃음도 더욱 밝아져...

## 향나무

조수희

10 년만에 옛 초소를 찾아오는 화학공장 미술작관원 허영남은 감회가 새로웠다.

빨간 령장을 달고 처음 배치되었던 설류봉초소가 가까와질수록 길 하나, 나무 한대를 무심히 보게 되지 않는다.

까마득한 산정우에 발사전의 로케트처럼 서있던 삼각시표며 사방으로 뻗어간 전주들, 독수리부리처럼 빼죽 나왔기에 자기가 이름지은 《코대바위》와 맑은 물 흐르던 골짜기... 모두가 옛모습 그대로였다. 이제 산굽이를 돌아서면 자기들만 다니던 길이어서 《병사전용도로》라고 하던 외통길이 나질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부를까? 영남이는 병사시절의 추억을 더듬으며 높낮은 산봉우리를 정겹게 바라보았다. 고향집 문앞에라도 온듯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설레었다.

높은 산마루 양지쪽에 자리잡고있던 자그마한 집이 애뜻하게 눈앞에 떠오른다. 시오리안팎에 인가도 없어 늘 조용하던 평범한 집이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더없이 소중한 군무생활의 보금자리였다. 자그마한 병실과 한명만 들어서면 가득 차던 교환대실, 크지 않은 마당 한쪽에 향나무를 중심으로 꾸려놓았던 휴식터까지 어느 하나도 기억속에 사라진것이 없었다.

초소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의 정다운 동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얼마전에 만났던 분대장 량지호는 진수가 군관학교에 갔는데 지금쯤은 어디서 군관생활을 할것이라고 하였다. 함께 입대했던 진수! 동심한 얼굴에 새물새물 웃는듯한 까만눈을 가진 처녀같은 동무였다. 대학입학통지서를 군복과 바꾸었다면서 공부하는 후에라도 할수 있지만 병사생활은 지나가면 영원히 할수 없나던 그였다.

참말이지 병사시절은 잊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시절에 맺어진 동무들은 세월이 켜 흐른 후에 만나도 여전히 그때의 심정속에서 마음이 통하는것 같다. 자기만해도 제대후 뜻밖에 량지호를 만났을 때 전사시절에 부르던것처럼 《분대장동지》라고 웨치며 무작정 그러안았다. 량지호도 수염이 꺼밋꺼밋한 자기를 《우리 막내》라고 부르며 너무도 반가와 변화한 네거리복판에서 허리를 붙안고 빙빙 돌았다. 잊을수 없는 옛상관이였다.

허영남은 달콤한 추억에 잠긴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였다. 어디선가 자동차발동소리가 들렸다. 걸음을 멈추고 소리나는 등뒤를 돌아보니 《갱생-나》형차 한대가 산굽이를 감돌며 쏜살같이 달려온다. 자세히 보니 파란 보호색칠을 한 고지용 물자운반차였다. 어디로 가는가?

지나칠것 같던 차는 갑자기 곁에 멈춰섰다.

《어디로 갑니까?》

유리창을 뚫아버린 문으로 머리를 내밀며 애 어린 운전사 상등병이 물었다.

《설류봉통신초소로 갑니다.》

《우리 초소에요?》

그는 활짝 웃음을 지으며 어서 타라고 문을 열어주었다. 뜻밖에 차안에는 군관복을 단정히 입은 처녀 중위가 꽃망울이 금시 피어날듯한 화분을 무릎우에 올려놓고 앉아있다가 가볍게 머리를 숙이며 눈인사를 했다. 영남은 열결에 머리를 끄떡했다.

《주십시오.》

허영남은 차에 올라 들고오던 가방을 긴의자 옆에 놓고 분대장이 기념으로 준 화판은 꼭 겨안은채 자리에 앉았다. 운전사가 차를 몹시 아낀다는것이 첫눈에 안겨왔다.

앞유리우에는 노란 금실피가 드리워졌고 보호색차풍 안에는 하얀 비닐을 덧대었는데 자기와 중위가 앉은 긴의자사이 바닥에는 꽃문양 새겨진 연한 밤색비닐이 산뜻하게 깔려있어 환하고 밝았다. 짐을 실은것도 지함에 차곡차곡 넣어서 규모있게 쌓았는데 애자와 전기선 따위의 험한 물건은 맨뒤 두꺼운 비닐을 잔 나무통안에 실었다. 하늘색비닐을 곱게 감은 운전대와 앞유리 중심에 동동 매달린 장난감 참대곰, 차풍을 고정시킨 받침대에 간간히 감은 연분홍색 비닐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정성을 기울이지 않은것이 없었다.

《우리 초소에 무슨 일로 오십니까?》

상등병은 변속을 넣으며 주인답게 먼저 물었다.

《전국 미술작품전람회에 내놓을 작품을 창작하러 옵니다.》

《그러니 미술가동지구만요. 하긴 화판을 어깨에 멘걸 보고 짐작은 했습니다.》

상등병은 운전대를 꼭 잡은채 앞을 내다보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

이 떠올랐는지 자기네 초소를 취재하려고 내려오는 신문사의 기자라면서 중위를 소개해주었다. 날씬한 몸을 긴의자등받이에 기대채 조용히 앉아 있던 그는 다시 가볍게 눈인사를 하며 미소를 지었다.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상등병은 잠시도 가만있지 못했다. 너기자도 흥미있는듯 곱게 생긴 오목눈을 말끄럼히 뜨고 영남이를 건너다보았다.

《원래 좋기는 향나무아래 웅달샘가에서 사격에서 〈우〉를 맞은 전사가 자기 모습을 물우에 비쳐보는 내용을 형상하고싶는데 산꼭대기초소에 샘터는 없으니 두명의 병사가 정성담아 초소를 꾸리듯이 향나무를 가꾸어가는 모습을 그리려 합니다.》

대답을 마친 영남은 어떻게 그림이 될것 같은가고 겸손하게 물었다.

《정서적색갈은 있는것 같습니다.》

상등병은 어딘가 불만족스러워하면서도 마치 작품의 운명이 자기 말 한마디에 결정되길라도 하는듯 아량을 보이며 심중하게 이야기했다. 너기자는 방그레 웃음을 지었다.

《기자동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지성이 느껴져 영남이는 꼭 찍어 물었다.

《저야 뭐 …》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립장은 표명하지 않고 어떻게 되어 이렇게 산중초소에 와서 그림을 그릴 생각을 했는가고 나직이 물었다. 허영남은 인차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 사연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써 다 이야기하랴…

생각은 저도 모르게 1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빨간 전사령장을 달고있던 그 시절, 보슬비가 내리는 어느날이었다.

영남이는 심진수와 함께 통신선로검사를 마치고 《코대바위》 앞을 지나고있었다.

《야 향나무!》

진수의 웨침에 영남이는 걸음을 멈추었다. 어제부터 내린 비때문에 생긴 물사태로 뿌리가 반나마 파헤쳐진 향나무가 찌글찌글하니 자빠져있었다. 그냥두면 뿌리가 말라서 죽을것이 뻔했다.

《떠다가 초소에 심자구.》

진수가 영남의 의향을 물으며 바라보았다.

《이 산골에 흔한게 나문데 그건 왜?》

영남이는 큰일이나 생긴듯이 떠드는 진수가 새삼스러워 그냥 걸음을 옮겼다.

《향나무는 초소에 없지 않니?》

진수가 얼른 따라와 영남이 손을 잡았다.

《누가 볼 사람도 없는 초소에 갖가지 나무를 떠다 심어 원림사업소를 만들겠어?》

영남이는 도리어 진수의 손을 잡아끌며 어서 가자고 했다.

《그러지 말구 떠가자구, 향나무는 독특한 향기를 풍기기때문에 벌레도 끼지 않는 좋은 나무야. 앞으로 세월이 흐른 뒤 초소에 그 나무가 자랄 생각을 해봐. 더우기 지금처럼 그대로 두면 죽을게 아니야?》

영남이는 심진수의 폐질에 그대로 응하고말았다. 삽이 없어 나무꼬챙이를 주어다가 향나무 주변의 흙을 푸지기 시작했다. 비때문에 한쪽 흙이 무너져내려 한결 뜨기가 쉬웠다.

그들은 뿌리가 상하지 않게 주변의 흙덩쿨을 걷어다가 정성담아 싸가지고 킁킁거리며 초소에 저올려왔다.

《향나무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성의는 대단했습니다. 술찌꺼기가 좋다는 말을 듣고 40리가 넘는 군식료공장에까지 가서 가져왔고 하루도 건지지 않고 물을 주었습니다.

참, 기자동지는 물배낭을 저웠습니까?》

《듣기는 했는데 체험은 없어요.》

《이제 올라가보면 압니다. 설류봉초소에서 골짜기아래에 내려가 물을 지고 올라와봐야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그런데 그 아까운 물을 저다가 우리는 향나무에 주었습니다. 정말 물이 아니라 땀을 주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차창밖을 내다보는 영남의 눈가에는 애잔한 추억이 깃들어있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향나무를 그릴 생각을 했군요.》

너기자도 감동에 젖어 조용히 이야기했다.

《추억도 있구… 더우기는 벌레먹지 않는 나무, 깨끗한 향기를 풍기는 나무를 초소를 지키는 병사들의 마음에 비기여 형상하고싶었습니다.》

그러자 너기자와 이야기를 시작한 후에는 듣기만하던 운전사가 문득 미술가동지의 이름이 허영남이 아닌가고 친근하게 물었다.

영남이는 깜짝 놀랐다. 나이로보아 입대한지 얼마 안될것 같은 상등병이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아는가? 너기자도 호기심을 가지고 운전사에게 사연을 물었다.

《초소장동지에게서 들었습니다.》

《초소장?》

《심진수동지가 우리 초소장입니다. 초소장동지는 향나무를 심은 잊지 못할 동무라면서 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간 영남은 가슴이 찢릿했다. 갑자기 허탈에 빠진것 같기도 했다. 오래간만에 옛친구를 만나

보게 되었다는 기쁨과 함께 무엇인가 자기 몸을 속박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헤여지던 마지막시기 그들의 관계는 좋지 못했다. 그것이 누구때문이었던가! 영남이의 그림솜씨를 처음 알아준것이 진수고 그림공부를 하겠다는 자기 마음을 처음으로 터놓은것도 그인 조건에서 마땅히 그들의 관계는 더없이 가까와져야 했다. 그러나 생활은 그렇게 흐르지 않았다.

그날도 영남이는 향나무결에 새로 만든 긴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있었다. 입대전 중학교 미술소조에 다닐 때에는 선생님이 그림을 괜치 않게 그린다고 칭찬을 했는데 입대후에는 어느 하나도 똑바로 되지 않았다. 적진에 멸적의 포화를 안기는 일당백포병들의 장엄한 모습도, 아슬아슬한 칼벼랑을 뚫아오르는 보병의 훈련모습도 억센 주먹타격으로 한아름이나 되는 기와장을 산산조각내는 정찰병들의 모습도 생동하게 안겨오지 않는다.

재간이 부족한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추상과 환상속에 그렸으니 더 진실감이 안겨오지 않는것이다. 허지만 자기에게는 그를 극복할 방도가 없었다. 안타까웠다.

어떻게 할가? 실지 눈앞에 놓고 보이는것은 설류봉초소에서의 단조로운 생활뿐인데 그속에는 군대다운 억센 모습이 없었다. 교환근무, 선로작업, 학습, 단조로운 일과생활… 군복을 입었으니 군대생활이지 군체신소 선로공들이 하는 일과 별로 다름없었다.

영남이는 끝내 손을 멈추고 멍청하니 앉아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무슨 생각을 하나?》

식당근무를 서던 진수가 뜨물바غه뜨를 들고 나와 향나무밑에 쏟아부으며 물었다. 뜨물 한방울도 거름이 되게 하려는 그의 성실한 마음이 안겨와 무엇인가 가슴을 쳤다.

《가만!》

영남이는 손을 들며 좀 기다리라고 한후 연필을 놀리기 시작했다. 잠간사이에 향나무와 바غه뜨를 든 군인이 나타났고 동실한 얼굴과 새물새물 웃는듯한 눈이 살아났다.

그런데 끝내고보니 흥미가 없었다. 애티가 나는데다 군대다운 특성까지 살아있지 않으니 나무심는 중학생에게 군복만 입혀놓은것 같았다.

허영남은 연필을 던지듯이 속사집에 놓고 뒤머리를 긁었다.

《왜 그러나?》

진수가 의혹에 찬 눈길로 물었다.

《마음이 없어그래!》

《마음이 없어?》

바غه뜨를 땅에 놓은 진수는 금방 그린 그림을 펼쳐들고 자세히 바라보았다.

《좀 싱겁긴 하구만. 그렇지만 초소를 사랑하는 병사의 마음이 향나무와의련관속에서 살아나도록 그리면 되지 않을까?》

《이건 절반짜리 그림이야. 향나무야 박우물가에 있거나 사적지나 유원지 등에 있어야 제격인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이 산꼭대기 초소에 있거든. 웅달샘가에 있는 향나무라면 사격에서 <우>를 맞은 병사가 자기 모습을 물우에 비껴보는 모습이라도 그리겠는데 이건 돌꼭대기우에 있으니… 개판이야!》

《그래서 창작이 아닌가? 난 그래두 자기 초소의 향나무를 원형으로 구상을 펼친것이 마음에 드네. 초소에 뿌리를 박은 향나무- 어덴가 종자가 느껴지거든.》

《순진한 전사동지, 좀 머리를 정돈하고 쉬라요.》

영남이는 놀려주듯 말하며 그가 쥐고있는 속사집을 뺏었다.

《난 신문이나 방송, 텔레비죤을 볼 때면 안타까운게 많아. 전군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훈련명령을 받들고 부글부글 끓고있는데 우린 뭘하나? 피가 한동이씩 고인 이 청춘을 조국에 바치겠다고 군복을 입었는데 새소리만 들리는 산중에서 조용히 살거든. 청춘이자 영예구 한생에 제일 값비싼 시절이라구 노래는 부르는데 하는일이 뭔가? 이러다가는 훈련을 성과적으로 마친 자랑을 안고 인민들의 환영속에 부대로 돌아오는 병사의 기쁨도 누려볼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포병, 땅크병, 정찰병 등 요란한것만 그리나?》

《왜 잘못됐나?》

《그럼!》

진수는 심중한 기색을 지으며 꼭 짚었다. 영남이는 픽 쓴웃음을 지었다. 이 생활에 만족해하는 진수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는 측은한 눈길로 진수를 바라보았다.

《내 진심을 한가지 이야기할가?》

진수는 잠시 눈을 껌뻍이다가 영남이 곁에 있으며 나직이 물었다. 영남이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아량있게 머리를 끄덕였다. 허지만 진수는 인차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함께 초소에 온 전사들끼리 뭘그래?》

영남이는 어깨로 진수를 톡 치며 갑자르기만 하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호기심도 나고 들어야 그저 그렇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뜻밖에도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쓰리고 아픈듯한 서글픈 감정이 비껴있는것이 아닌가? 룡조로 무심히 대할 일이 아니였다.

영남이는 속사집을 의자 한쪽에 놓고 무슨 일인가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동무때문에 그래.》

영남이는 너무도 뜻밖의 말에 입을 항 벌리었다. 그러나 진수는 이미 쏜힌 물이라는듯 그를 똑바로 마주보면서 그림을 왜 그리는가고 물었다.

《물라서 묻나?》

어딘가 따지는듯한 그의 물음에 기분이 언짢아진 영남이는 뻥뻥한 투로 반문했다.

《잠시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앞으로 미술가가 되겠다는거겠지?》

진수는 책이라도 읽는것처럼 또박또박 이야기했다. 갑자기 둘사이에는 커다란 공간이 생기면서 서먹서먹한 느낌이 들었다.

《난 그림공불 하는걸 반대하지 않네. 그런데 동무그림에서는 이 초소에 정을 붙인것을 찾아보기 힘들구만. 왜 그럴까?》

따지는듯한 진수의 눈빛은 서늘하였다. 늘 새물새물 웃던 그 까만 눈에서는 엄하면서도 따뜻한 그러면서도 질책이 담겨진 수많은 뜻이 함께 뿜어져나왔다.

영남은 말이 막히었다. 하면서도 그것이 어쨌단 말인가.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잠시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 잘못된가 하는 반발심이 머리를 쳐들었다. 조용하고 단조로운 이곳에서 벗어나야 그림도 성공할수 있고 군사복무도 빛나게 장식할수 있지 않는가.

《그래 내가 교환근무를 안서나 선로검열을 안나가나? 동무들이 휴식할 때 나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잘못된가?》

영남이는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며 나직이 물었다.

《대답은 량심에서 찾아보라구.》

심중한 목소리로 말한 진수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영남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좀처럼 진정할수 없었다. 물론 인간은 깨끗한 량심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것이다. 전사는 전사로서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면 자기 임무를 끝내는것으로 되는것이다. 그렇다면 잠시간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는것이 왜 잘못된 말인가!

영남이는 자기의 량심은 뗏뗏하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허지만 진수가 던지고 간 그 말은 명치끝에 무죽하니 매달려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그들은 분대장과 함께 선로상에 있는 낡은 나무팔(완목)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전주에 연방 기여오르며 새로운 나무팔을 대고 애자에 통신선을 비끄러매나가는 영남이의 머리는 복잡했다. 얼마전 자기의 첫 작품을 주둔리 중학교 미술선생에게 가져다주었는데 그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다 알려주기로 했기때문이였다. 작업이 끝난후에는 늦어지겠고 일감을 앞에 놓고는 떠날수가 없었다. 진수에게 사정하고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개인용무를 분대장에게 제기하기도 쑥스러웠다. 어떻게 할까? 끝내 영남이는 진수에게 분대장이 없는 기회에 슬며시 이야기했다.

《그러니 내가 분대장동지에게 제기해달라는 건가?》

《그래, 좀 도와달라구.》

진수는 대답을 못하고 버릇처럼 손에 쥔 뺨찌만 매만졌다.

《동무가 이야기하면 분대장동지는 승인할거야.》

영남이 부탁은 절절했다. 진수도 그 심정이 느껴지는지 조용히 서서 입술만 감빨았다.

《내 갔다와서 일을 몇배로 하겠어.》

《동문 내가 힘들것 같애 그러는것 같나?》

쫄쫄한 목소리로 진수가 물었다.

《글쎄...》

《난 동무의 마음이 걱정돼서 그래. 만일 동무한테서 미술가로서의 진실한 감정이 엿보인다면 적극 도와주겠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동무의 그림에는 초소에 대한 애착이 없다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 몸은 여기 있어도 정신은 판데 있거든. 난 동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정말 안타깝구만. 자기 초소에 진심을 쏟아붓지 않는 군무생활은 조국에 대한 기만이 아닐까?》

심진수는 피로운듯 얼굴을 찡그렸다. 영남이는 괜히 그에게 부탁했다는 후회가 들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자기를 손아래동생처럼 가르치려는 그가 아니꼬웠다. 제가 알면 얼마나 알고 준비되었다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그사이 심진수는 슬며시 돌아서 다음 전주에 기여올랐다. 정신차리라고 경고라도 하듯이 팡팡망치로 짐봉(나무팔과 전주대를 연결하는 굵은 못)을 박는다.

그제야 영남이는 너무 혼자서 푹푹한체 말라고 한마디 쏘아주지도 못한채 후줄근해 서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주어진 조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것이 잘못된가? 그렇다면 동무도 군대생활은 짧아한때 지나면 못하는것이기에 대학입학통지서 대신 군복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한것이 아닌가?

할말은 얼마든지 있었다. 마음속에서 울분의 웨침은 계속 터져나왔다. 그런데 진수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했으니... 이상하게 자신이 가련하게 느껴졌다.

영남이는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싸쥐었다. 당장 달려가 진수를 전주에서 끌어내리고 따지고싶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몸이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사이 지나온 전주에서 고정선 연결부문에 납땜을 하고 오던 분대장 량지호가 걸음을 멈추며 왜 그러고있는가고 물었다.

《별다른게 아닙니다.》

영남이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서며 나직이 대답했다. 얼굴이 달아올라 머리를 숙였다.

《분대장에게 두 말 못할 비밀이 있소?》

다시 묻는 량지호의 말에 영남은 힐끔 진수 쪽을 돌아보았다. 그는 꿈무늬에 찻던 애자를 바꾸고 있었다.

《어서 말하오.》

영남은 할수없어 좀전에 진수와 있었던 내용을 적당히 얼버무리며 설명했다.

《원 사람들도… 그쯤한걸 가지고 뭘 그러오?》

량지호는 빙긋이 웃었다. 영남이가 미안해서 인차 떠나지 못하자 분대장은 여기 걱정은 말고 어서 갔다오라면서 등을 떠밀었다. 영남이는 눈곱이 뜨거웠다. 전사의 마음을 대번에 이해하여 주는 분대장이 친형처럼 느껴졌다. 분대장을 생각해서라도 미술공부를 기어이 성공하리라 결심이 가슴속에 깊이 들어박혔다.

그일이 있는 얼마후 영남은 군단에서 열리는 미술강습에 참가했다가 그림솜씨가 인정되어 군단직속직관원으로 소환되었다.

설류봉초소에서 신입병사생활은 그의 군사복무전기간에 비하면 순간과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왜서인지 체대되어 10년남짓한 지금에도 설류봉이 못건디게 그리워졌다.

초소앞에 심어놓았던 그 향나무가 아직 살아 있거나 한지?

영남은 진수와 의 어성버성해진 사이를 메꾸지 못한채 헤어졌었다.

지금에도 이따금 떠오르는것은 불쾌한 인상뿐이었다.

그런데 진수는 떠나간 자기에 대하여 전사들에게 좋은 추억만 가지도록 이야기해주고있으며 지금까지도 그 외로운 초소를 지켜서있다. 가슴이 찢르르했다. 이 영남이가 미술작품창작을 위해 찾아온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성공했다는 부러움? 아니면 옛 추억에 대한 반가움? 미묘한 생각이 얹치고덜치며 진수의 모습이 눈앞에 오락가락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영남이의 생각은 너기자의 질문으로 끊어졌다.

《물론 궁지에 넘치겠지요?》

《글쎄… 처음의 한발자국 방향편차가 세월이 흐른뒤 엄청난 공간을 가져온다는 말도 있지만 아직까진…》

영남은 말끝을 맺지 못하고 히죽이 웃었다. 너기자는 이해할수 있다는듯 부드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눈길이었다.

하긴 인간은 누구나 한번밖에 없는 생을 참답고 보람있게 살자고 한다.

그러나 실지 사는걸 보면 저마다 자기나름이다.

능력이 없어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고 삶에 대한 견해상 차이로 빼뺏어지는 사람도 있으며 옳은 길을 알지만 의지가 없어 가다가 주저앉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못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저마다 자기나름의 합리화로 마음의 위로를 가진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간 뒤 각자에게 펼쳐지는 현실은 진실과 허위를 무자비하게 해부하는것이다.

그런면에서 영남은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있었다.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힘의 축적과 리용을 바로하였기때문에 기본상 자기목적에 달성하며 살아왔다. 이제 남은것은 좋은 그림을 몇 점 당선시켜 사회적인정을 받아 중견미술가로서의 확고한 자격을 받으면 더 바랄것이 없었다.

생각에 잠겨있던 영남은 너무도 자기 생각에만 잠긴것 같아 너기자에게 안고가는 화분은 어디서 난것인가고 물었다.

《이거 말입니까?》

너기자는 상긋 웃음을 지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분을 소중하게 안고가는 모습을 보니 옛날 우리가 향나무를 떠가지고 가던 생각이 문득 나서 물었습니다.》

《기자동지가 초소에 빈손으로 갈수 없다면서 집에서 키우던것을 우정 가지고왔습니다.》

운전사가 대신 설명해주었다.

《그래요?》

갑자기 영남은 웅색해졌다. 초소에 처음 찾아오는 기자도 화분을 가지고 오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림그릴 화판만 메고 오는것이다.

《우리 부장동지가 자기초소에 정을 쏟아붓는 동무들이라고 하기에 무엇인가 제마음도 바치고 싶었을뿐이에요.》

너기자는 영남이 심정을 눈치채고 자기가 도리어 미안해하면서 이야기했다. 그것이 영남에게는 더 웅색스러웠다. 고향집 어머니를 찾아온다면 과연 이렇게 빈손으로 떠났겠는가? 하다못해 식당에 걸어놓을 정물화라도 하나 그려가지고 올수 있지 않았는가? 영남은 때늦게 후회하며 차창밖에 머리를 돌렸다.

자동차는 벌써 고지에 꼭 올라왔다. 전에는 볼수 없었던 이팝나무, 잣나무, 삼송나무들이 줄을 맞추어 미끈하게 자랐다. 푸른 잎새를 하늘높이 펼친 숲은 쇠쇄-설레이고있었다.

(언제 이런 숲이 생겼는가?)

허영남은 어리둥절했다. 10여년전엔 바위틈에서 단풍나무와 소나무들이 힘겹게 자라던 이곳이다. 그런데 지금은 옛모습을 찾을수 없었다.

10년동안에 이렇게 달라졌는가?

그동안 초소의 주인들이 많은 일을 했다는것이 알렸다. 너기자도 감탄어린 눈길로 규모있게

자란 나무숲을 바라보다가 모두 군인들이 심은것  
인가고 운전사에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이 설류봉주변을 몽땅 잣나무,  
이깔나무숲으로 만드는데는것이 우리의 목표입니  
다.》

궁지가 넘친 대답이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  
관 **김정일** 동지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보살펴주신  
사랑에 보답하자면 아직 할일이 너무도 많다는것  
이다.

그렇다면 설류봉초소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께서 오셨단 말인가?! 언제? 허영남은 너무도 뜻  
밖의 말에 어안이 벱벱해서 운전사와 너기자를  
번갈아 보았다.

그럼 그것도 모르고 여기에 그림을 그리려 왔  
는가? 그들은 도리어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허영남은 할수없이 초소를 떠난후 자기 생활  
을 고백했다. 본대장이 제대되자 편지거래가 끊  
어진것과 군단에 미술강습갔다가 그곳 직속구분  
대에 소환된것, 그후 다른 초소에서 근무하다 제  
대되다보니 이곳에 대한 소식은 전혀 몰랐다는것  
을 사죄하듯이 터놓았다.

갑자기 자동차안에는 썰렁한 분위기가 돌았  
다. 허영남은 자기가 비둘기속에 끼여든 까치처  
럼 호흡이 다르다는것을 느꼈다. 화분을 가지고  
떠난 너기자와 빈손으로 온 자기가 외형적으로  
갈라지듯이 무엇인가 초소에 자기의 진심을 바치  
고싶어하는 그들과 자기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  
는 쌍곡선이 아득한 차이를 가지고 뻗어있었다.  
자기의것보다 까마득히 높이 솟은 그들의 곡선은  
위압감을 풍기는듯 했다.

허영남은 너기자의 두손에 받들려있는 화분  
만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순결한 그들의 마  
음이 어린듯 붉은 꽃망울이 한들한들 춤을 춘다.

《지금은 이렇게 초소에까지 도로가 생겨 비행  
기를 탄것처럼 산아래를 내려다보며 자동차가 오  
르지만 8 년전 그날에는 사람이나 겨우 다니는  
비탈길밖에 없었습니다.》

침묵을 깨치며 운전사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  
했다.

...4 월의 봄명절을 며칠 앞두고 서해지구 인  
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사단지휘부에 들리신  
것은 한낮이 훨씬 지난 오후였다. 먼저 직속구분  
대 군인들이 생활하는 병실과 식당, 근무초소들  
을 돌아보시고야 사단장방에 들어서신 그이께서  
는 전투임무를 료해하시였다. 사단장은 작전대우  
에 전투문건을 펼쳐놓고 현계선에서의 전투서열  
과 예견되는 적의 행동기도, 그에 따르는 부대들  
의 임무와 기동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렸다.

《전투조직이 잘되었습시다.》

만족하신듯 환히 미소를 지으시던 그이께서  
는 눈에 알려지도 않게 작은 붉은점에서 시선을  
멈추시였다. 상대적높이가 700 메터가 넘는 설류

봉초소였다. 사단장은 사단의 방어지대 중심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있는 고지여서 불가피하게  
통신선이 지나게 된 정형을 말씀드리면서 선로보  
수 및 교환근무를 위해 한개 분대 력량의 초소가  
전개되었다고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는 확대경을 드시고 고지의 생김새를 찬찬히 살  
펴보시다가 군인들의 생활형편을 물으시였다. 사  
단장은 한개 분대 성원들을 위해 천연색텔레비존  
을 보내준것으로부터 사단이 직접 장악하고 후방  
사업을 보장하는데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였다.

《물은 어떻게 리용합니까?》

사단장은 인차 고무로 만든 물배낭을 공급해  
주어 밑에서 저다먹는다고 하였다.

《등짐으로 저다 먹는단 말이지...》

조용히 뇌이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그이  
께서는 물을 넣은후 고무배낭 무게를 알아보시며  
물기는곳까지의 거리는 얼마이고 한번 내려오는  
데와 물배낭을 지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전기는 어디서 끌어왔으며 출판물은  
어떻게 받는가 등을 구체적으로 물으시였다. 사  
단장은 제대로 답변드리지 못했다.

《전방초소에는 다 나가보았습니까?》

얼굴을 붉히는 사단장에게서 말머리를 돌리  
시며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그렇습니다.》

《설류봉초소가 전방초소 못지 않게 중요합니  
다. 주변에 인가도 없으니 그들이 얼마나 외롭겠  
습니까? 아마 겨울에 물배낭을 지고 눈비탈길로  
오를 때면 고향생각이 날것입니다.》

가슴이 아프신듯 천천히 창가에 다가서시여  
저 멀리 푸르스름하게 솟은 설류봉을 바라보시였  
다.

《인차 나가보고 대책을 세워주겠습니다.》

사단장은 친부모의 심정으로 군인들을 거듭  
생각하시는 그이께 죄송스러운 어조로 말씀드렸  
다.

《군인생활의 불편을 놓고 경제적타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병사들은 조국앞에 자기  
가 맡은 초소이기에 생활조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수록 지휘관들은 그들의 불편을 자기의 아픔  
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만일 그 불편을 해결해줄  
방도가 없다면 전투조직을 다시 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돌아서신 그이께서는  
함께 올라가보자고 하시였다. 사단장은 외람된줄  
알면서도 초소에 올라가는 자동차길이 없다고 만  
류하였지만 그이께서는 먼저 앞장서시였다.

험한 비탈길로 땀흘리며 오르신 그이를 산정  
의 초소에서 맞이한 군인들은 감격의 환호와 울  
음을 터뜨렸다. ...

《그때로부터 초소의 군인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어버이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초  
소를 꾸렸고 주변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 초소장동지의 말을 빌면 이제 시작인 셈이지요.》

운전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허영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진수를 무심히 대한 자기가 부끄럽게 느껴졌다. 이 자동차길과 바위 그리고 울창한 나무숲이 갑자기 살아서 숨쉬는 생명체처럼 안겨왔다. 그러한 생각은 초소에 올라가니 더 깊어졌다. 그 옛날 자기가 살던 자그마한 병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아담한 병실이 그곳에 자리잡았는데 수려한 산천의 정서를 한껏 받아 하나의 휴양소를 방불케 하였다.

오늘은 또 산정우에 풍력발전소를 세우고 시운전을 한다는 것이다. 운전사가 가져온 전기자재도 그때문이었다.

성공의 소식인양 만세소리, 박수소리, 고함소리가 잦아들고 나무에서 터져올랐다. 직일병이 얼른 뛰어 들어가 전기스위치를 넣었다. 여기저기에 꽃등처럼 전기불이 켜졌다.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산정이어서 지난 시기에는 눈비 내리고 바람세찬 날에는 전기불도 보지 못하던곳인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하니 이제는 밥하는것은 물론 온돌까지 전기로 하게 되었다고 직일병이 좋아서 손뼉을 치며 돌아갔다.

산양도 오르기 힘들어하는 이 산중초소가 어쩌면 이렇게도 변하였는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자기의 땀이 스민것이라곤 마당 한쪽 쉼터에 잎새를 펼치고 자라는 향나무 한그루뿐이었다.

허영남의 발걸음은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멈춰섰다. 향나무 아래에 박우물이 있었기때문이었다. 흙이 없어 돌쪼에 흙을 퍼다가 쌓으며 향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되어 그밑에 샘터가 생겼는가! 물속에는 산천어들이 꼬리까지 친다. 어디에나 병사들의 알뜰한 마음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너는 이 초소에 무엇을 남겼는가?)

모든것이 자기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묻는것 같았다. 마음대로 앉을수도, 감회에 잠겨 바라볼 수도 없었다. 왜서인지 두려운 생각까지 들었다.

자기는 그래도 추억이 깃든 향나무를 그리면 창작적 흥분과 열정이 더 높아지리라 생각하며 우정 이곳을 택했고 한편 신입병사 시절에 실현 못한 소박한 마음을 화폭속에서나마 펼쳐놓으려고 하였다.

그것으로 초소에 무엇인가 기여를 했다는 위안을 가질것 같아 먼길을 떠나왔는데 현실은 너무도 자기의 창작적환상을 초월하고있었다. 울창한 수림, 산위로 뻗은 자동차길, 향나무밑의 정가로운 웅달샘... 오늘은 풍력발전소까지 설치한 초소다.

허영남은 피롭게 한숨을 내쉬었다.

《영남이!》

진수가 소리치며 달려왔다. 기쁨에 겨워 와락 부어잡고 두손을 놓지 못했다. 운전사가 달려가 알려준 모양이다. 영남이도 반갑게 진수를 얼싸안았다.

《어떻게 이렇게 왔는가 소식도 없이!》

얼마만에야 진수는 향나무 주변에 있는 의사에 영남이를 이끌었다.

《정말 수고했네.》

영남은 서글픈 목소리로 간신히 이야기했다. 진수를 마음놓고 마주볼 수 없었다. 그가 언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동무가 박우물 이야기를 하던 생각이 나서 물탕크에서 배관을 편결하여 인공웅달샘을 만들었더니 병사들이 좋아한다는 설명을 묵묵히 들었다. 지나치는 자기의 말도 잊지 않고 현실로 만들어진 진수. 지금은 이곳에 수많은 통신선로가 더 생긴데다 텔레비존 중계까지 하다니 규모가 큰 독립초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얼마후에는 2중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게 된다는 것이다. 벅찬 이야기였다.

둘이켜보면 병사시절은 인생에 두번다시 차례지지 않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시절이었다.

물론 영남이 자신도 근무생활을 남부끄럽지 않게 했다고 지금까지 자부해왔었다. 그러나 신입병사시절의 자그마한 사건이 이 순간에 와서 커다란 흠집으로 가슴에 마쳐오는것은 뿌리칠 수 없었다.

과연 나는 조국에 병사의 량심을 깨끗하게, 남부끄럽지 않게 바쳐왔던가?

생각을 거듭할수록 신입병사 허영남으로 되돌아가 이 산중초소에서 새로운 발자국을 찍고싶은 마음이 불같이 살아났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거룩하신 자옥이 스며배어있는 이 영광의 초소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싶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기쁘시겠습니다.》

초소를 돌아보고난 너기자가 그들에게로 다가오면서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솔직한 말로 난 꿈에서 깨어난것 같습니다.

말없이 설레이는 저 향나무처럼 진한 향기로 대기를 정화시키며 살아야겠는데 나로 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병사의 량심은 그 어느곳에서나 조국을 위해 빛을 뿌려야 하는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제 그리려는 그림은 생활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정이 넘친 영남의 말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산정에서 좌- 바람이 불었다. 그러자 향나무에서 풍기는 독특한 향기가 슬며시 모두의 가슴속에 소리없이 안겨들었다.



## 사신행차

유성희

(전호에서 계속)

## 4. 뜻밖의 사건

리정에게는 최근에 와서 이전에 없던 버릇이 새로 생겼는데 그것은 자주 어머니를 회상하는 것이다. 한양에 두고온 어머니생각이 무시로 떠오를 때마다 그는 다심한 그 손길이 무뎠 그림기만 하였다.

리정은 오늘도 사관에 행장을 풀자 후원뜨락을 거닐면서 어머니를 그려보고있었다.

석양무렵이다. 푸른 술과 참대를 심고 석등을 깎아세운 후원뜨락은 노을빛으로 불그레 물들었다. 귀뚜라미들의 울음소리는 끊어질듯하다가 이어지고 이어질듯하다가 끊어진다. 리정에게는 귀뚜라미는 그 소리가 태를 묻은 고향의 정취처럼 생각되었다.

방금전에 박유손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사냥을 떠났다. 선비들이 때없이 글장난을 하듯 무인들은 사냥을 떠나 못사는 모양이었다. 그는 고향을 즐기는것은 선비들에게 있는 일종의 병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게 다 부질없는짓일세. 사냥이나 가자구. 그러면 공의 시름이 말끔히 가서질거야.》

이런 번민이 무익한것임을 리정이 왜 모르랴. 단지 그는 것처럼 훌륭한 어머니의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듯싶어 마음이 안타까왔을뿐이다.

그때는 초봄이었다. 왕명을 받고 대궐에서 물러나온 이튿날 리정은 하직인사를 올리려고 집으로 찾아갔다. 룡십고령의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고있었다. 어느때처럼 흰옷을 입었는데 아직도 균형을 잃지 않은 몸매와 단아한 얼굴에는 한창시절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리정이 절하고 뵈자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사신행차가 오늘 떠난다면서?》

《어제 상감마마의 령을 받았소이다.》

《그런걸 왜 진작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나무라듯하는 말이나 어조엔 살뜰한 애정이 풍겼다. 리정은 어머니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는 일년나마 곁에서 돌봐드리지 못하게 되는 자식의 불초함을 용서해달라고 구구히 사죄하였다. 그가 보견대 자식이란 부모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평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부모없는 자식은 앞산이 보이지만 자식없는 부모는 앞산이

보이지 않는다고들 하지 않는가. 어머니는 잠자코 그의 말을 들었다. 그 태도가 어찌나 초연하고 자연스러운지 한순간 어머니는 왜 남들처럼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들 지경이었다.

《그런 잔걱정은 아녀자들이나 할 일이다.》 하고 어머니는 나직이 말하면서 환하게 웃었다. 사내장부가 먼길을 떠나는것은 나라를 위함이니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다.

《왜인들이란 워낙 성정이 교활하구 잔망스러워 상대하기가 조련치 않을거라고 하더구나. 그러나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나라일을 돌본다면 그제 무슨 대수겠느냐. 아무쪼록 몸성히 공세우구 돌아오너라.》

리정은 가벼운 마음으로 처자들과 작별하였다. 그러나 부산진까지 따라온 하인이 배에 오르는 그에게 술 한사발을 부어주며 《외국에 가셔도 우리 나라의 술맛을 잊지 말라고 대부인마님께서 보내주셨소이다.》 할 때에는 그만에야 눈물이 불쑥 솟구쳐올랐다. 그것은 지난해가을 어머니가 손수 빚은 국화주였다. 이때에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아들만이 아니라는것을 알게 되었던것이다...

사관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사신행차가 이곳에 머무른다는 소식을 듣자 예도성중의 문객들은 남먼저 제술관을 만나보겠다고 승벽을 부리며 달려나왔던것이다. 그들은 사관앞 2층루각에 연석을 베풀고 리정을 초대하겠노라고 기별해왔다. 말로는 시회를 가지겠다고 하지만 혹시 제술관의 문장과 언론을 시험해보려는 속심이 아닐까?

바로 이때 어디선가 바람을 일쿠며 날아온 한 자루의 칼이 서슬푸른 빛을 뿌리며 리정의 눈앞을 지나갔던것이다.

(아니?!-)

리정의 온몸은 삼시에 굳어졌다. 그는 재빨리 사위를 둘러보았다. 후원뜨락엔 바람조차 고요하였다.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꿈결처럼 들려올뿐이었다. 리정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다. 자신이 너무도 제 생각에만 골몰하다보니 그만 착각한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몇걸음 떨어진 곳에 서있는 삼나무줄기에 박힌 칼을 보고서는 소스라치듯 놀랐다. 그것은 왜인들이 흔히 허리에 차고다니는 수수한 단검이었다.

담장밖에서 《이놈, 게 썰거라!-》하는 파수군의 고함소리가 울렸다. 뒤늦게야 검객을 발견하고 뒤를 쫓는 모양이다. 어떤놈일까? 리정의 가슴은 느닷없이 뛰놀기 시작하였다. 도적놈이 아닐까? 예로부터 해적질에 이골이 난 오랑캐들이라 사신행차를 한번 털면 한생을 먹고살 재산을 잡을수 있다는 심보로 기회를 노릴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아무리 담이 큰놈이기로서니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때에 사관에 뛰어들겠는가 하는 의혹이 들었다.

그가 객실로 돌아오니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미즈노가 반색을 하였다.

《이제야 돌아오시는군요!》

(이 사람은 아직 모르는것 같군.)

리정은 그에게 검객이 뛰여든 사실을 말해줄가하다가 그만두고말았다. 이제 절로 알게 될테지 ...

《학사어른!-》

미즈노가 웃음을 가무리며 한걸음 다가왔다.

리정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내리웠다.

《무슨 일이오?》

《저어 ...》

미즈노는 눈길을 떨구었다. 제술관이 에도의 문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전에 꼭 해야 할말이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함부로 말을 꺼낼수 없었다. 굵어부스럼이라고 자칫하면 일을 그르칠수 있는것이다.

《황송하오나 소승이 한말씀 올리려고 하오이다.》 미즈노의 얼굴에는 비지땀이 배어났다.

《학사어른이 연로에서 일본문집 여러권을 보셨지만 소승의 집작엔 마음에 드시는게 하나도 없을줄로 아옵니다. 우리 일본의 문장이 어디 조선에 비길것이 되오이까?》

그는 이 말을 하고 한숨을 내그었다. 마치도 자신이 일본의 문예때문에 이처럼 심취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지어내는듯한 한숨이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모리 마레스께같은 사람도 문집을 내놓았지만 그의 시문을 보면 조선의 삼척동자도 웃을만큼 졸렬한게 아니오니까. 부끄러운 일이올시다. 그러하오나 그들로서는 천신만고해서 겨우 얻어낸 글귀가 아니겠소이까.》

《?!...》

《아시겠지만 에도에서 나온 사람들은 너나없이 글을 해보겠다고 하는 문인들이올시다. 그들중엔 일본문집의 평을 듣고싶어하는자들도 있을겁니다. 다들 관심이 높으니까요. 한데 학사어른이 만일 ...》

《그러니까 문집을 좋게 평해달라는 말이지오?》

《아니, 아니올시다.》

미즈노의 눈에 야릇한 빛이 번쩍이고 지나갔다.

《그런 말이 아니올시다. 소승의 부탁은 그저...그들을 팔세치 마시구 좋은 말로 어루만지고 고무해주셨으면 하는... 성미 고약한자들은 붓대를 꺾어버릴수 있을테니까요.》

리정은 부지중 웃음이 나갔다.

《허허! 그만합시다. 이러한 사이에 문객들이 지쳐버리겠소.》

그러나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난 리정은 생각이 깊어졌다. 그는 학문밖에 모른다. 왜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적었던만큼 천태만상인 사람들을 이모양저모양으로 갈라보는데는 그다지 능한 축이 못된다. 그러나 사신행차가 에도성밖에 이른 오늘 미즈노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꺼내는것은 어느모로 보나 미심쩍었다. 그가 진실로 일본의 문예를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에도문객들의 환심을 사려는것인지?

미즈노는 매우 평리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다. 식견도 있고 재주도 있어 가끔 사랑이 가는 글귀도 찾아내는데 아마도 그것은 부산진에 드나들면서 책도 얻어보고 귀동냥도 한 덕인것 같았다. 사신행차가 감나무밑을 지나갈 때면 잘 익은 감들이 데롱데롱한 가지를 꺾어 교차안에 넣어주면서 어서 맛을 보라고 친절히 권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람이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속모양을 감추고 살수는 없는것이다. 그는 불가에 매인 몸이지만 술도 고기도 꺼리낌없이 먹었고 녀인들을 곧잘 희롱하군한다. 극락에 가려고 중노릇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도에는 쇄통 생각이 없고 속세와 다름없이 먹고 자고 들고 하는 그가 과연 언제 성불하여 왕생극락하겠는지 알수 없는노릇이었다.

(도대체 미즈노는 어떤 사람인고?)

밖에서 말발굽소리가 났다. 사냥터에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박유손이 한달음에 달려온 모양이다. 미즈노를 꾸짖는 욕지거리가 들려왔다. 교활한놈들... 무례하기 짝이 없는 오랑캐놈들!...

한바탕 떠들고서야 직성이 좀 풀려 방으로 뛰어들어온 그는 다급한 어조로 물었다.

《어디 상하지는 않았나?》

《걱정놓으라구, 별일 없으니...》

리정은 안심하라는듯 웃어보였다. 그러나 박유손은 그를 세워놓은채 한바퀴 빙 돌아보고서야 숨을 후 내쉬었다.

《제길할, 그놈을 놓치다니?》

그는 분한듯 입을 다시었다.

《그 늙다리가 공에게 한을 품고 복수하려는게 아닐가?》

《무어라구?!》

《오랑캐놈들이 어떤 족속이란걸 나보다 공이 더 잘 알지를 앓소. 오늘은 허를 뽑아줄듯하다가

도 수만 틀리면 칼을 빼들고 덤벼들이가 첩경이지. 공이 늙은객의 성의를 마다한게 아무래도 심상치 않거든.》

《교작 한다는 생각이… 그럼 한나라 사신인 내가 늙은 왜인의 환심을 사야 한단 말인가?》

리정은 화를 냈다.

《공의 말이 옳아.》

박유손은 한풀 꺾인듯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내가 왜 공의 마음을 모르겠소. 그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지. 공에게 아차 실수라도 있고보면 나 역시 나라일을 그르치는것으로 되는데, 그래 무심할수 있단말인가? 내 생각엔 오늘 저녁 연회에 나가지 않는게 좋을상싶소.》

《응?!》

《불행이란 쌍으로 온다지 않소?》

《원 못하는 소리가 없구려, 하지만 이제 다 나라일인데 죽음이 두려워 물려서란 말인가. 부디 나를 막지 말게.》

《공은… 신통히도 춘부장어른을 닮았구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있었다.

## 5. 그날밤

그날밤 2층루락에서는 연회가 열렸다.

왜인들은 저마다 앞을 다투며 시문을 청하였다. 리정이 붓을 달려 시를 써내는데 그 빠르고 민첩함은 전장에 내닫는 준마에 비길만 하였다. 몇편의 시를 써주었는지 그자신도 모른다. 시중하는 아이는 먹갈기에 그만 지쳐 왜통사(통역)가 대신하게 하였다. 시짓기가 끝나자 이야기들이 벌어졌다. 역대 문인들의 문장을 론하고 고사를 나누었는데 리정은 말도 류창하게 하였다. 어떤 질문이든지 그는 얼음에 박을 밀듯 단숨에 대답을 주곤하였다. 과연 듣던바 그대로라고 왜인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연회에서는 정말 일본에서 간행된 문집에 대하여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중의 장삼같이 길고 소매폭이 넓은 검은옷에 세모진 관을 쓴 사나이였다. 리정이 인차 대답을 하지 않자 그 사나이는 얼굴에 웃음을 바르더니 《소생은 그저 학사어른의 고견을 듣고싶어 물었소이다.》 하는 말을 덧붙였다.

《공은 어떤 문집의 평을 듣고싶습니까?》

리정은 그의 호기심어린 눈을 마주 바라보며 물었다.

《모리 마레스께만큼 알려진 문인이야 없을테지요.》

(그러니 모리 마레스께의 문집을?!)

리정의 머리에는 아까 미즈노가 그의 이름을 거들면서 《아무쪼록》 하고 당부하던 말이 얼핏 상기되었다.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나이는 그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더니 말을 꺼냈다.

《대대로 관백을 섬겨오는 대단한 가문의 자식이올시다. 나라에서 쓰는 장문(보고문)이니 부첩(공문)이니 서간(편지)이니 하는따위의 문장들은 죄다 그의 가문에서 나오니까요. 언젠가 그 사람은 일본천하에 자기를 따를자가 없을거라고 큰소리 쳤다더군요.》

《아마 취중에 한 말일테지요.》

중이 옛가마를 들여다보듯 기회를 노리던 미즈노가 말에 끼여들었다. 그 말이 못마땅한듯 사나이의 눈썹이 푸들거리고 얼굴이 이그러졌다.

《취중 진담이라고 그가 어찌 속에 없는 말을 했단 말지요.》

리정은 무심중 이 괴상한 사람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을 꼭 다물었다. 부귀를 가지고 남에게 교만을 부리는것은 원래 좋은 일이 아니거니와 학문을 가지고 거들먹거리는것 역시 옳은 처사라고는 할수 없는것이다. 한데 이들 두사람은 무엇때문에 서로 눈을 흘기며 얼굴을 붉히는지 알수 없었다. 그것도 문집에 대하여 말하기도전에… 그는 이런 좌석에서 말꼬리를 붙잡고 다투는것은 점잖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해주리라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사나이가 무슨 김새를 차렸던지 어색하게 웃으며 먼저 말하는것이였다.

《우리 일본사람들두 근간에 와서 글에 대한 열의가 대단히 높아졌소이다. 그래서 가끔 서로 다툼질이지요.》

그렇게 아니다!- 하고 리정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것은 글을 놓고 우열을 다투는것과는 전혀 비슷지도 않은 류다른 다툼이다. 그는 이런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긴장되었다. 뜻밖의 일이 닥쳐올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순간적으로 가슴을 파고들었던것이다. 그는 천천히 앞에 놓인 차잔을 손에 들었다. 그리고는 더운 김을 훌훌 불어 조금씩 마시면서 이제 모리 마레스께의 문집을 평하면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가 하고 가늠해보았다. 미즈노의 말처럼 너무도 실망해서 붓대를 꺾어버릴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저러나간에 글이란 천하가 보는것이여서 평은 언제나 공정해야 하는것이다. 또 에도로 말하면 왜국의 도성이라 별의별 잡놈들이 다 있을것이다. 그들중에 공연히 턱을 잡아가지고 사신들을 욕보이려고 들 주체념은자들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글을 론하는거야 나쁠게 없지요.》

리정은 차잔을 놓으며 아무렇지 않다는듯이 미소를 띠었다.

《자고로 이름난 문장가들에게도 장단이 있어 후세 사람들이 그걸 교훈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리 마레스께의 시와 잡문을 좋다거나 또

는 나쁘다거니 하고 한가지로만 논할수는 없지요.》

수군거리던 말소리는 일시에 잦아들었다.

《무릇 시를 짓는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시를 알기는 참으로 어려운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글에 서로 다른 평이 나오는데이지요. 일개 선비로서 감히 내 소견을 말한다면... 모리 마레스께의 글을 보니 소문에 들던것보다는 훨씬 못하더군요. 글하는 사람으로 마땅히 자기의 독특한체를 만들어야 할것이외다. 글을 어찌 남과 똑같은 틀에 매달려 쓰겠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그에게서는 흔히 이 답습의 병에 빠져있음을 볼수 있더군요. 서툴고 속됨은 일일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공들도 글하는 사람인데 그만한것이야 가려보지 못하겠습니까?》

사나이는 놀라운듯 고개를 쳐들었다. 그의 두눈이 가늘어지면서 알릴듯말듯 웃음이 피어올랐다. 그는 갈증을 느낀 사람처럼 침을 꼴깍 삼키며 말했다.

《설마 그렇게까지야...》

《허허! 사람이 어찌 자기 글을 모르겠습니까? 모리 마레스께가 서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글로 문집을 간행한데는 정말 놀랐습니다.》

《놀랐대구요?!》

사나이는 그 말이 진정이라는것을 알자 그만 예야 고개를 젓히며 《으하하하!》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참으로 통쾌하고도 즐거운 웃음이었다. 이구석저구석에서도 킬킬거리는 소리가 났다. 리정은 그바람에 어리둥절하였다. 사나이는 인차 웃음을 거두고 뇌까렸다.

《제가 그래도 제일이라구?! 늑다리같은게-》

《나니 낭다포? (뭘뭐라구?)》

그와 마주앉았던 할머니 왜인이 주먹을 부르짖며 소리쳤다.

《모이찌도 샤프테미로!(다시 한번 그 말을 해봐라!)》

《낭다포 모쪼도 기모 쓰까와즈.(왜들 이래, 점잖치 못하게.)》

《다레가 스루 고토오 하나스르노자! (누가 할소릴 지껄이는거야.)》

리정의 귀속은 왜인들의 지껄임으로 웅웅하였다. 취흥이 도도한 그들은 저마다 샷대질을 해가며 욕질이다. 살진 볼파귀를 실룩거리고 눈을 부라리며 이를 부득부득 가는것이 무슨 살인이라도 칠 기세였다. 그의 가슴은 마침내 억제할수 없는 노여움으로 끓어올랐다. 뒤늦게야 이 왜인들은 글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것때문에 싸운다는것을 알아차렸던것이다. 이 새로운 발견은 그를 무등 놀라게 하였다. 그의 머리속에는 이 며칠사이에 있었던 불쾌한 일들이 회오리쳤다. 그는 마음속으로 무심히 대할수 없다. 레물도 겹객도 이란장판도...

그때 누군가 《다마레쿠소! (닥치지 못해!)》하고 상을 탕!-내려쳤다. 아까부터 입을 앓다문채 앉아있던 미즈노였다. 사나이를 노려보는 그의 눈에는 광기가 번뜩이고있었다.

떠나갈듯 소란하던 루각은 금시 조용해졌다.

리정은 오한을 느낀 사람처럼 부르르 몸을 떨면서 뭐라고 입속말로 중얼거리는 미즈노를 의아한 눈길로 지켜보았다. 쇠-하고 숲이 설레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바람이 터진 모양이다. 그러나 리정은 너무도 긴장한탓인지 그 소리도 듣지 못했다. 돌덩이처럼 굳어진 한순간이 지나가자 미즈노는 《야꾸도노 야쓰라!(악당들같이나라구!)》하고 왜말로 쌍욕을 퍼부으며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좌중을 돌아보다가 리정의 눈길과 부딪치자 실망한듯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모든것이 끝장이다, 무엇을 더 바라랴 하는듯한 한숨이었다.

리정은 씨근덕거리며 루각을 내리는 미즈노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입을 꼭 다물었다.

×

밤이 깊었다. 삼라만상은 어둠속에 자취를 감추고 생기없는 별들이 밤하늘에 떠있다.

미즈노는 아무 생각없이 무작정 걸음을 옮겼다.

사관옆에 자리잡은 절간에 이르렀을 때에야 그는 자신이 부처를 찾아왔다는것을 알았다.

법당안에서는 중들이 목탁을 두드리며 념불을 외우고있었다. 그들은 잔뜩 성이 난 미즈노를 보자 겁에 질린듯 비실비실 꿈무늬를 뻗다.

《빌어먹을!...》

미즈노는 제풀에 증을 내며 불상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련꽃무늬 대좌우에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를 지은 석가모니가 앉아있다. 가늘게 반쯤 뜯은 자비로운 눈이며 술진 눈섭과 아래로 흘러내린 코, 야무지게 단겨진 입, 처질사한 볼... 미즈노는 향불을 피우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앞에 꿇어앉았다. 부지불식간에 눈물이 피어오른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하늘이 마련한 운수가 소승한테론 돌아오지 않사옵니까!...

미즈노는 찌시마에서 나서자랐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장사질하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재물을 굶어모으는 권모술수를 배웠다. 그러나 사람이란 재물 한가지로만 살수는 없는것이다. 그는 권세자들앞에 고개를 숙일 때마다 염통에 불이 이는것같아 참을수 없었다. 드디어 부모들이 남겨준 재산으로 코아래진상을 하고 찌시마부중에서 일을 보게 되었으나 하찮은 벼슬이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때마침 천재일우의 기회가 생겼다.

조선사신을 안내하여 오사까에 이르렀을 때 뜻밖에 모리 마레스께의 심복줄개가 그를 찾아왔

던것이다. 마레스께는 모리가문의 맏아들이었다. 일본의 관직은 세습적이어서 그는 장차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팔자를 타고났었다. 그러나 운이 좀 나빴던가싶다. 칠십고령인 늙은 모리는 맏이보다도 둘째를 더 좋아하였는데 아마 글재주가 나아보였던 모양이다. 서로 쌍벽을 이룬 모리형제는 개와 고양이처럼 앙숙이 되어 만날 서로 으르렁거리곤하였다. 그통에 가문이 두조각난것은 물론 에도의 문객들도 두 패당으로 갈라져 날마다 물고뜯고하는 형편이었다.

《지금의 내 처지에서…》

하고 마레스께는 보잘나위없는 미즈노에게 레절을 차리며 편지를 썼다.

《제술관의 도움을 받을수밖에 없소. 그가 만일 내 문집을 좋게만 평해준다면 아버지는 당장 마음을 돌리실게요… 일이 잘되면 결코 공의 수고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리다…》

편지를 읽고난 미즈노는 펄듯이 기뻐다. 그름 받처럼 캄캄하던 눈앞에 실낱같은 빛이 보이는듯싶었다. 그의 생각엔 리정의 마음을 움직이는것쯤은 얼마든지 가능할것 같았다. 재물이면 귀신도 부릴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그 모든 꿈은 오늘밤으로 결단이 나고말았다. 그는 복통이 터지도록 분했다. 그의 눈앞에는 미칠듯 성이나 으르렁거리는 모리 마레스께의 모습이 떠올랐다. 죄는 천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는다 고 칼을 물고 나한테 덤벼들지나 않을가? 미즈노는 몸서리를 쳤다.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이 지글지글 가슴을 끓인다. 그렇다. 모든것은 도고한 리정때문이다. 레물도 위협도 회유기만도 그만은 꺼꾸러뜨리지 못한다!

(죽여버리고말레다!)

미즈노의 눈에는 일순 야생적인 빛이 번뜩이고 지나갔다.

(남의 눈에 눈물을 내었으니 네 눈에 피를 내봐라. 쓰시마에 돌아가… 네놈을… 네놈을…)

먼 숲속에서 밤새의 울음소리가 청송맞게 울려왔다. 미즈노는 석가모니를 쳐다보며 허아래소리로 중얼거렸다.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 6. 마지막대결

이튿날 아침.

리정은 에도를 향해 걸음을 재촉하였다.

박유손과 미즈노가 여러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의 뒤를 따른다. 그들은 사신행차보다 한 발 앞서 왜인들이 새로 꾸렸다는 사관을 돌아보려고 먼저 떠났던것이다.

여기서 에도성중의 사관까지는 불과 삼사십리- 숲속에서 뛰어나온 말 한필이 푸르르- 코투

레질을 하며 행길우에 뛰어오른다. 도망치는 산토끼를 잡으려고 박차를 주었던 미즈노였다. 어제밤의 일을 감감 잊어는지 그는 무관한 태도로 웃고 떠들었다. 오히려 여느때보다 더 활기있고 명랑해보인다.

리정은 묵묵히 교자에 앉아있었다. 사모를 쓰고 것이 검은 관복우에 각뿔을 두른 그의 풍채는 자못 림름하고 수복한 눈섭아래 꿈벅이는 두눈은 광채를 뿌리고있다.

먼지이는 행길은 무던히도 고요하였다.

점차 인가들이 즐비해졌다. 길가에 웅기종기한 집앞에는 행차를 구경하러고 나온 왜인들이 누덕누덕한 삼베옷차림으로 서있다. 언젠가 탐학무도한 이에마쓰라는 관백이 있어 《천인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것은 신분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가차없이 목을 베라!》고 령을 내린까닭에 그들은 좋은 옷이 있어도 감히 입지 못한다고들 한다.

해가 한발만큼 더 올랐을 때에야 일행은 사관에 이르렀다. 사관은 경치좋은곳에 자리잡았다. 분장한 담벽너머로 푸른 로송과 참대들이 쭉쭉 빼여났고 그사이로 푸른 기와를 올린 지붕들이 보일락말락한다.

전갈을 받았는지 여러명의 왜인들이 《시청》이라는 현관이 걸린 건물앞에서 기다리고있었다.

리정이 교자에서 내리자 석장을 짊고선 늙은 중이 여러 중들을 갖추 거느리고 허리를 숙이였다.

《소승들이 관백의 령을 받아 대령하고있소이다. 오시는 길에 별고 없었는지요?》

《덕분에 무고합니다.》

마주 인사를 하던 리정은 눈길이 굳어졌다. 부한 몸집에 부석부석한 얼굴, 남을 넘보는듯한 눈표정… 서화를 들고 찾아왔던 늙은 문객이었던것이다!

《놀라지 마시오이다. 소승이 바로 모리 마레스께올시다.》

리정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늙은 문객이 아닐가 하던 자기의 짐작이 너무도 신통하였던것이다. 그의 시선은 금실을 수놓은 황색장삼과 한쪽 어깨에 걸친 붉은 가사며 석장을 거쳐 다시 부석부석한 얼굴에 멈춰졌다. 능글맞은 웃음이 입가에 떠돌고있다. 그는 후안무치한 모리의 태도에 격분을 느꼈으나 반가운듯이 웃어보였다.

《그러지 않아도 여기서 공을 만날줄 알았습니다. 귀한 문집을 보내주어 잘 보았습니다.》

모리는 만면에 부끄러운 기색을 띄우며 어색하게 웃었다. 리정은 성미급한 박유손이 칼을 뽑으려는것을 만류하며 위엄있게 말하였다.

《사관으로 안내하오.》

《아니, 차를 좀 드시지 않으시구요?》

(교활무쌍한 늙마같이니라구!)

경련같은 반감이 리정의 가슴속에서 꿈틀거렸다. 이 로회한 오랑캐가 무엇때문에 유명처럼 자기 주변에서 어슬렁거렸는지 알수 없었다. 어렵풋하던 그 어떤 모습이 불현듯 자태를 드러냈다. 그제야 그는 미즈노가 이해할수 없는 이 늙다리와 한동아리라는것을 알았다. 곰살궂은 그의 언행은 꿀을 바르고 분칠한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검객도 모리의 심복줄개가 아닐까. 그는 날카로운 눈매로 모리를 마주보았으나 그속까지 꿰뚫어볼수는 없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럼… 할수 없군요.》

모리가 먼저 눈길을 떨구며 중얼거렸다.

《어서 돌아봅시다.》

여러채로 된 사관건물은 깨끗하고 화려하게 꾸려져있었다. 금병풍과 비단휘장을 쳐놓은 방들과 붉은전(털로 짠 융단)을 깔아놓은 랑하며 후원뜨락에 둥그렇게 파놓은 연못과 그 한가운데 만들어놓은 섬으로 오가게 된 무지개다리, 기이한 꽃들과 이상한 풀들, 백옥같이 흰 자갈…

리정은 그 모든것들을 어떻게 돌아보았는지 기억할수 없었다. 사관뜨락으로 다시 돌아왔을때야 자신이 런꽃무늬모양이 새겨진 화려한 단청들과 붉은 기둥들, 병풍과 비단휘장들이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치가 지나쳐 오히려 역겨움을 느꼈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의심이 실린 눈으로 다시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키높이 자란 느티나무가 비자루같은 그림자를 뜨락에 그려놓았다. 알릴듯말듯한 바람결에도 나무우듬지는 좌-설레며 락엽을 뿌린다.

문득 리정의 눈길은 뜨락 한가운데 자리잡은 사관건물에 가 멎었다. 조선식으로 지은 건물의 처마밑에는 그리 크지 않은 현판이 걸렸는데 《시청》이라는 글발이 뚜렷이 새겨졌다.

《〈시청〉이라구?!-》

현판을 읽어보던 리정의 검은 눈썹이 푸들쩍 튀었다. 말그대로 《시청》은 이 집, 또는 옹은 집이라는 뜻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첫 《시》자를 이루는 한자들을 뜯어보면 《일, 하, 인》으로 되니 결국 《시청》이란 《일본하인의 집》이라는 말이다. 하마트면 오랑캐놈들의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 곤욕을 당할번했다. 리정은 노기가 북받쳐 고향을 질렀다.

《너 이놈! 누가… 누가 저걸 썼느냐?》

모리 마레스께는 대번에 겁에 질리어 얼굴이 새파래졌다. 아무런 응대가 없자 리정은 다시 어성을 높였다.

《어느놈이 저따위 글귀를 생각해냈는지 당장 아뢰지 못할가?》

분위기는 사뭇 험악해졌다.

모리 마레스께는 부르르 몸을 떨며 리정을 흘끔 쳐다보았다. 노기등등한 그 얼굴과 이글거리는

눈은 소름이 끼치도록 험악하였다. 일이 여의치 못함을 눈치챈 그는 어깨를 푹 떨구었다.

《저… 미즈노… 미즈노가…》

《뭐 뭐라구?!-》

아닌보살하고 서있던 미즈노는 그야말로 초풍할 정도로 놀랐다.

《내, 내가… 글귀를 생각해냈다구?!-》

《네가 줄개를 보내 귀뜸을 하지 않았단 말야?》

《거짓말 말아, 개자식!-》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도 용감해지는 경우가 있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 더는 빠질 구멍이 없게 되었다는것을 알게 된 미즈노는 주먹을 부르짖고 덤벼들었다. 모리 마레스께도 만만치 않았다. 서로 치고 박고 차고… 란투가 벌어졌다.

박유손은 눈이 화등잔마냥 커졌다.

《도대체 웬일인가 응?》

리정은 입가에 쓰거운 미소를 그리었다.

《공은 현판을 보았나? 이 발칙한놈들이 글세우릴 육보이려구…》

《뭐 〈일하인청〉?!》

그제야 오랑캐놈들의 잔꾀를 알아본 박유손은 여간만 흥분하지 않았다. 그는 염라왕의 분부나 메인듯이 《이놈들!-》 한마디 벽력같은 소리를 지르며 나는듯 말에 올랐다. 사관밑에 이르러 가라말이 쟁충 네굽을 안고 뛰어오르는 순간에 그는 번개같이 칼을 휘둘렀다. 눈깜박할사이에 두 조각이 난 현판은 사관뜨락에 나뒹굴었다. 그는 빼여든 칼을 그대로 꼬나든채 당황망조한 모리 마레스께한테로 말을 몰아왔다.

《이 룽실할놈아!-》

《으악!-》

모리 마레스께는 눈알을 뒤집으며 까무라쳤다. 대경실색한 오랑캐들은 놀란 새떼마냥 와하니 사방으로 흩어졌다. 미즈노는 어쩔줄을 몰라 헤덤비다가 사관밖으로 줄행랑을 놓는다.

《저놈을 잡아라!-》

리정이 소리를 가다듬어 호통을 뽑는다. 와르르 달려간 군사들이 미즈노를 잡아 뜨락에 얹어놓자 그는 엄한 소리로 꾸짖었다.

《이놈! 감히 누굴 속여보려구 잔꾀를? 네 죄를 자상히 아뢰지 못할가?》

《아이구!-》

미즈노는 머리를 땅바닥에 조아렸다.

무시무시한 정적이 뜨락에 깃들었다. 미즈노는 어깨를 들추며 눈물을 짜기 시작하였다. 이 사실이 막부에 알려지는 날에는… 그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칼부림밖에 모르는 관백이 그들을 용서할리 만무하다. 그는 혼비백산할 지경이 되고말았다. 살고싶었다. 권세고 재물이고 저승살이에서야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아 부처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베푸시옵소서…

《학사나으리!》 미즈노는 리정의 발밑에 엎드린 채 흐느낌소리를 섞어가며 떠듬거렸다.

《실은 모리 마레스께가 학사어른의 힘을 빌어… 그런데 학사어른이… 그 양갓음을 하고저 현관을…》

《그뿐이란 말이나?》

《저, 그리구… 쓰시마에 가서 학사어른을… 없애치우라구… 그러면 소송을 용서하구…》

미즈노는 말끝을 여물구지 못한채 또다시 눈물을 비틀어짖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동정을 불러일으킬만큼 가슴을 울리는 흐느낌이었다.

리정은 심사가 꼬이였다. 하지만 이제와서는 아무것도 말하고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말이란 원래 상대가 되어야 통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 몇 달동안 못된짓을 업으로 삼아온 그를 그냥 내버려둘수는 없었다.

《그래두 난 너를…》 하고 리정은 나직하면서도 엄격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보통의 왜인들과는 좀 다르려니 생각하였다. 한데 이렇게 간특하고 너절한놈일줄이야! 그리두 권세가 부러워 몸살이 나더란 말이나? 너같은놈에게 나지래기 벼슬이 차례진게 다행이지. 만일 권세를 주었다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번했느냐?》

《학사어른! 제발… 용서해주옵소서…》

《밝은데는 왕법이 있구 어두운데는 사령이 있어 굶어살피는법이다. 부처님이 아무리 자비스러운데 너같이 불충무상한놈을 어찌 용서하겠느냐?》

《어허이구?!…》

미즈노는 머리를 떨구며 눈물을 쏟았다. 누렇게 황이 들어 거목의 버림을 받은 느티나무잎들이 미즈노의 잔등에 떨어져내린다.

인생도 그런것이다.

리정은 말머리를 돌렸다. 등뒤에서는 미즈노의 흐느낌소리가 죽어가는자의 마지막신음처럼 맥없이 울려오고있었다.

×

그날 오후,

조선사신행차는 위풍당당히 예도성에 들어섰다. 오색기발은 바람따라 펄럭이고 창검은 해빛에 번쩍인다.

《둥둥! 둥둥둥…》

의장병들이 울리는 군악소리가 호기차게 울린다.

정사, 부사, 종사관들은 금관옥패에 붉은 관복을 차려입고 상아홀(의식때 손에 드는 패쪽)을 든채 교자를 타고 품계에 어울리는 관복을 펼쳐입은 제술관과 호위무관, 서기들, 역관들, 군사들이 차서있게 그뒤를 따른다.

위낭소리, 목패소리, 벽제소리…

씩씩한 군사들의 발걸음소리는 지축을 울린다.

성문으로부터 사관에 이르는 로상에는 사신행차를 보려고 달려온 남녀로소들이 빼곡하니 들어찼다. 길가에 혹은 2층으로 혹은 3층으로 된 루각우에도 사람들이 무리를 지었다.

사관이 가까와올수록 리정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빠근해올랐다. 수륙 5천리를 이어온 그 나날들이 감회깊이 돌이켜진다. 고달프면서도 보람있는 나날들이였다.

고국에 돌아가면… 리정은 그날을 생각해본다. 어머니에게 달려가 어린아이처럼 그 품에 와락 안길것이다. 기다리기에 지쳤을 어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피고 눈물이 쏟아질테지. 그다음엔… 그렇지. 어머니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죄다 말씀올리구… 술맛을 잊지 않았다는것도 말씀올리구. 기뻐하실거야. 어머니는 술방구리를 안겨주며 《어서 실컷 마셔라!》 하고 다정히 말씀하실테지…

《공은 들었나?》

박유손이가 속삭이듯 묻는다. 그는 우립(새깃을 꽂은 모자)을 쓰고 비단도포우에 칼을 차고서 화려한 안장우에 기결스럽게 앉았는데 위풍이 자못 당당하다.

《뭘?!》

《방금 음독자살을 했단유만.》

《누가?!》

《누군 누구겠소. 그들 두 오랑캐지-》

리정은 웃다 말고 옛사람이 남긴 시구가 불쑥 떠올라 조용히 읊조렸다.

사람의 한평생이란 덧없어

바람앞의 초불같아라

물어보자 부귀 누리며 잘사는 사람들

죽을 때 그대 마음 흡족하였는가를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껄껄 웃었다.

《에라꺼라 물러꺼라》 하고 전배사령들은 행차를 막아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일부러 눈을 흘기고 멧을 부리면서 채찍을 휘두른다.

《조선사신행차시다. 쉬- 길을 내여라, 쉬-》

사관이 점점 가까와오고있다.

리정의 눈에는 사관차마밑에 새로 써붙인 현관의 글발이 금시에 보이는듯싶었다.

《승선당》

조선을 승배하는 집이라!- 리정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두눈을 스르르 감았다.

(취하도록… 그대 취하도록 마셔야지. 그다음엔 꼭 자구…

어머니는 늦잠을 잔다구 조금도 나무람하지 않을거야… 조금도…)

-끝-

# 위원장어머니

제 3 부

문병의

## 군당책임비서의 방

《구천산을 점령하자만 말이지요?》 책임비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쏘파에 앉아있던 은정이 그를 쳐다보며 나직이 말한다.

《아직은 저 혼자의 막연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학교개축공사도 그래, 군중문화회관, 농촌문화주택 60세대가 벽체만 쌓아놓고있는데 무슨 방도가 있어 아하지 않겠습니까?》

《구천산이라...》 책임비서가 혼자말처럼 외우며 방안을 거닌다.

《어렵겠는데... 하여간 위원장동무,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타산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산림경영소동무들하군 토론을 해보았습니까?》

《아직...》

《하긴 무엇보다 우리 책임일군들의 결심이 중요하지요. 위원장동무, 우리 한 이삼일후에 다시 만나 토론합시다.》

《알겠습니다. 책임비서동지.》

은정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 구천산의 전경

하늘끝에 닿은듯 구름속에 반나마 가리운 봉우리들이 아득히 높이 바라보인다.

## 구천산 초입

잡관목들이 짙 들어찬 산비탈길을 세사람이 힘겹게 뚫아오르고있다.

전투가방을 메고 한손에 손도끼를 들고 맨 앞장에 선 청년이 산림보호원 영철이이고 그 뒤로 가버논 등산복차림에 지팡이를 든 은정과 배낭을 등에 진 운전사 태봉이 따라섰다.

손도끼로 잡관목들을 툭툭 치며 앞서 걷던 영철이가 뒤를 돌아본다.

땀이 비오듯 흐르는 벌겍게 상기된 은정의 얼굴.

영철이가 한숨을 쉬며 너럭바위에 털썩 주저앉는다.

《위원장동지, 여기서 좀 쉬어서 갑시다.》

은정이 가쁜 숨을 쉬며 팔을 내젓는다.

《아니... 좀더 올라가자구.》

《지형도를 좀 봐야겠습니다.》

영철이가 지형도를 꺼내며 뒤에 선 태봉에게 눈을 꾹꾹해보인다.

《좋아, 그럼 이번엔 나때문에 쉬는게 아니예요? 태봉이. 나물...》

은정이 아무렇게 주저앉아 땀을 흠치며 맹렬히 손부채질을 한다.

《물을 자주 마시면 땀이 더 납니다.》

《땀이 날 땐 나더러두 마셔야겠어요. 빨리.》

《차 위원장동지두 참...》

태봉이 할수 없는듯 물병을 벗어준다.

영철이가 은정을 보며 난처해한다.

《위원장동지, 제발 태봉동무를 데리고 내려가십시오. 원시림이 있다는 암사자봉까지는 아직도 까맣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십시오.》

《산림보호원동무, 그걸 걸어넣으라구. 동문 지형을 보겠다구 쉬자구 하더니 나를 또 설복하자는거구만. 걱정말아요. 오르다 채 못오르면 도중에서 자구 래일아침에 마저 오르면 될게 아니예요. 이 태봉동무 배낭에 천막두 먹을것두 다 있어요.》

《야, 하여간 위원장동지 고집엔 정말 두손 바짝 들었습니다.》

《체, 그제 없으면 우리 위원장동지가 아니지뭐. 참 영철동무두 한번 겪어봤지? 동무 잔치날말이야.》

《에 말두 마십시오. 난 그날 위원장동지 운전소동무네 어머니출 알구 차를 탔수다.》

《글쎄 그런 식이라니까 핫하...》

《하하...》

《호... 이 사람들이... 저희네 위원장을 앞에 놓고 그렇게 평가할대기를 해서야 쓰나요?》

태봉은 이때라고 손세를 써가며 말한다.

《위원장동지, 젊은 사람들 말두 좀 들어야 합니다. 아니 글

쎄 군에 술한 일군들이 있는데 구천산 꼭대기엔 꼭 위원장동지가 올라가 보셔야 한다는게 어데 있습니까? 이거야...》

《그래서 고집쟁이로친네라... 태봉동무, 물론 동무의 말대로 다른 일군들을 시켜서 구천산 답사를 할수두 있지. 하지만 구천산은 지금껏 사람들에게 오를수 없는 험하고 무서운곳으로 알려져있는데 나이 많은 이 위원장이 올라갔다 와보라구. 사람들의 인식이 대번에 달라질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구천산은 벌써 우리 삼일군 사람들의 손안에 든거나 다름없거든. 안그래요. 산림보호원동무?》

영철이 머리를 긁는다.

《글쎄 리치는 그럴듯한데... 모르겠습니다.》

《흥 엉큼한 사람. 모르긴 뭘 몰라!》 은정이 그의 등을 철썩치며 일어선다.

《자. 또 걸자구.》

영철과 태봉이 어쩔수 없다는듯 마주보며 웃는다.

## 산골짜기

참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찬 음침한 골짜기이다.

은정이가 잡관목가지에 가까스로 의지하며 골짜기에 내려서는데 다래넝쿨속에서 노루한마리가 와닥닥 뛰쳐달아난다.

《이크!》 하며 은정이 그자리에 폴짝 주저앉는다.

《아이구 가슴이야, 고놈의 노루새끼 사람을 놀래우는구나.》

앞서가던 영철이가 급히 달려온다.

《위원장동지, 몹시 놀랐습니까?》

《아니 괜찮아. 그놈두 녀자를 아는 모양이야. 동무가 지나갈땐 가만히 었던것임이... 싱거운놈...》

태봉이 다가오며 말한다.

《이거 골짜기가 꽤나 음침한데요...》

《여긴 도토리나무가 많아서 이따금 곰두 나타나곤하지요.》

《곰이요?》



이때 어데선가 바작바작 하고  
마른 나무 꺾이는 소리가 난다.  
태봉이 폴짝 주저앉으며 사방  
을 두리번거린다.  
은정이 긴장해서 영철을 본다.  
《곰이 나타나게 아니예요?》

《글쎄요...》  
멀지 않은곳에서 두런두런 하  
는 말소리가 들린다.  
《사람입니다.》 하며 태봉이  
눈이 둥그래서 바위뒤에 가서  
숨는다.

《위원장동지, 여기 오십시  
오.》

모두 바위뒤에 몸을 숨기고  
긴장해서 앞을 주시한다.

이때 바로 그들의 앞 둔덕에  
적위대복장을 한 4~5 명의 사  
람들이 나타난다.

《아니 군당책임비서동지입니  
다!》

영철이가 먼저 알아보고 소리  
친다.

《군당책임비서동지가?!》

반가움과 놀라움에 굳어지는  
은정.

둔덕우에서 책임비서가 이쪽  
을 보고 반기며 달려내려온다.

《아니 행정경제위원장동무가  
여길 어떻게?》

《책임비서동지!》

《위원장동무!》

책임비서가 은정의 손을 뜨겁  
게 잡는다.

은정은 책임비서의 굵고 터  
진 바지가팽이와 신발을 보며  
뜨거운것을 삼킨다.

《책임비서동진 우리보다 한발  
먼저 구천산엘 왔구만요!》

《행정경제위원장동지 구천산  
을 점령하자고 제기하는데 군당위  
원회두 자기의 결심을 가져야  
할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참모성원들을 데리고 이렇게...  
위원장동무, 구천산은 벌써 우  
리의 손안에 든셈입니다. 하하  
...》

호탕하게 웃는 책임비서를 쳐  
다보는 은정의 눈곱에 뜨거운  
것이 맺힌다.

《위원장동무, 군내 로동적위  
대를 총동원하면 한주일내로  
압사자봉까지의 공격로는 개척  
될것 같습니다.》 하며 책임비  
서가 로동적위대복장을 한 일  
군에게서 지형도를 받아 은정  
의 앞에 펼친다.

《보십시오. 우리가 초보적으  
로 타산한데 의하면 압사자봉  
에서 여기 이 선바위까지는 무  
동력삭도를 놓고 그 아래는 경  
사는 좀 급하지만 깊은 골짜기  
가 없는 조건에서 소발구와 인  
력으로 통나무를 끌어내리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할것  
같습니까?》

《무동력삭도를 놓자면 쇠바줄  
이 있어야겠군요.》

《위원장동무가 결심이 서면  
공격신호를 올리십시오. 군당  
위원회는 적극 뒤받침을 하겠  
습니다.》

《책임비서동지!》

**달리는 렬차식당**

량수환과 남철이 앉아있는 식  
탁우에 접대원이 음식그릇을  
날라다 놓는다.

러행가방안에서 고급술병을  
꺼내면서 량수환이 기분이 떠  
말한다.

《자네가 석탄공업부 지도원으  
로 꼭 배치되길 바래서 우리 한  
잔 하세.》

《아니 전 못합니다. 술은 한잔  
만 마셔두 숨이 차구 얼굴이 새  
빨개지는데요워. 대낮에 공연  
히...》

《그래?... 그럼 이걸 하자  
구.》 하며 량수환은 고급술병  
을 되놓고 이번엔 깡통맥주를  
꺼낸다.

《차, 부위원장동진 간단치 않  
구만요. 언제 이런것을 다...》

《내 친구들이 넣어준거야. 이  
량수환이는 비록 촌구석에 박  
혀있지만 옛날에 나하구 같이  
소년빨찌산하던 친구들은 다  
평양에서 한자리씩 한다네. 내  
그래서 이렇게 군에 걸린 문제  
가 생기면 자주 평양에 올라가  
군하지. 남철이랑 그제 이런거야.  
친구들끼리 서로 돕기두 하구  
또 도움을 받기두 하구. 하하  
...》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자주  
반달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  
습니다.》

《부총국장이 석탄공업부에서  
함께 일해보자구 했다면서?》

《글쎄 일전에 만나서 그 아저  
씨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머니  
하구 토론해보라구 했어요.》

《그럼 이번에 부총국장을 만  
나면 어머니두 동의했다구 하  
지 뭐.》

《그렇게야 어떻게...》

《하하... 남철인 생각하는게  
아직 너무 천진하구만. 응? 자  
네 어머니야 아직은 군행정경  
제위원장지니까 체면두 있구  
해서 군에 내려오라구 하지만  
자네가 일단 석탄공업부에 배  
치 받으면야 마음속으로 대견  
해하지 될그래... 그리구 또 남  
철이가 이제 총국에 틀구 앉아  
서 우리 삼일군 석탄문제만 쫓  
쫓 물어보란 말이야. 그제 바루

고향사람들을 위해서 한몫 하  
는게지 다르게 있는가.》

《글쎄 그건 그런데...》

《그런데가 아니라 그런거지  
뭘 하하... 자 어서 들라구.》

량수환이 맥주통을 따서 그의  
앞에 밀어놓는다.

《아니 더 따지 마십시오. 전  
하나면 됩니다.》

《왜? 맥주야 청량음료인데 일  
없이 뭐.》

《전 인차 내려야 하지 않습니  
까.》

《하긴 남철인 이제 부총국장  
을 만나야지. 자 그럼 밥맛이나  
돋구게 한개씩만 들자구.》

량수환이 단숨에 맥주통을 비  
운다.

《가... 거 오늘은 맥주가 별맛  
인걸...일이 될려면 묘하게 맞  
아 떨어진단 말이야... 우리 그  
라제탄광말이야, 내 이번에 올  
라가서 알아보니 때마침 계약  
기일이 지나서 우리가 그걸 내  
놓아두 누구두 시비할 사람이  
없게 되었던란 말이야. 그러니  
위원장인 자네 어머니 체면두  
깎일게 없구. 게다가 남철이까  
지 석탄공업부에 들어왔게 되  
었으니 이거야말로 누가 일부  
러 딱딱 맞물려놓은것 같질 않  
나. 하하...》

량수환이 한창 너스레를 떠는  
데 덜컥당 하고 기차가 멎는다.

남철이가 차창밖을 보더니 덤  
비며 일어선다.

《부위원장동지, 전 내려야겠  
습니다.》

《영?... 벌써 다 왔는가?》

량수환이 밖을 보다가 나가는  
남철을 부른다.

《가... 가만 이 사람 남철이,  
있지 말구 부총국장한테 동발  
목은 우리가 실어가야 한다구  
꼭 말을 해야 하네... 하...이거  
안되겠다. 아무래두 내가 내려  
가서 부총국장을 직접 만나야  
겠군.》

량수환이 급히 식탁우의 맥주  
통들을 러행가방안에 쑤셔넣는  
다.

**은정의 사무실**

《으하하... 하하...》

은정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한방 가득찬 협의회 참가자들  
이 허릴 제끼고 웃어댄다.

은정이가 말을 계속한다.

《그래서 나두 바위뒤에 숨었  
지요. 그런데 여기 이 태봉동문  
량준에 돌은 들었는데 다리는  
그냥 사시나무 떨듯하는게 아  
니겠어요.》

《체 머리칼이 다 뺏뺏이 서는  
통에 위원장동지가 언제 내 다  
리 떠는걸 볼 경황이 있었습니  
까?》

태봉이가 우습강스레 말하는 바람에 방안엔 또다시 폭소가 터진다.

《하하...》

《그거 정말 십년감수했겠습니까.》

《그러나 책임비서동지를 만나니 정말 눈물이 다 납니다. 내가 왜 오늘 동무들한테 이 말을 하는가?... 나나 여기 모인 우리 일군들이 군내 인민들과 한 약속을 위해서라면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놓아야 한다는 사상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떨쳐나선다면 구천산이 아무리 높고 험하다구 해도 점령 못할 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전투를 벌려봅시다!》

《해봅시다. 위원장동무!》

모두 흥분되어 호응해나선다. 은정이 방안의 일군들을 둘러 본다.

《도시경영과장동무, 이번 전투에선 동무네 파에서 말은 무동력작도가 기본이예요.》

《과장이 엉겨주춤 일선다.》

《목재 몇몇방때문에 이거... 하여간 해봅시다.》

《해봅시다가 아니라 무조건 해내야 합니다. 그러구 교육과?》

《예...》 하며 안경을 낀 중년 부인이 일어서나.

《군내 각 중학교들에서 취주악대를 몽땅 동원시켜야겠어요. 군당책임비서동무가 군내 전체로 농적위대원들을 비상동원해서 3 일안으로 구천산 암사자봉까지 길을 개척할 결심을 했는데 거기에 발을 맞춰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전투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벌리는 거나 다름없는데 웅당 동원되야지요.》

《다음 상업과장동무?... 아 그렇지. 상업과에선 벌써 조직사업을 하려 나갔습니다. 자 그럼 오늘 협의회는 이만합시다.》

모두 일어서 나가는데 녀성지도원이 들어온다.

《위원장동지, 탄광에서 경비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탄광에서?... 알겠어요. 전화를 여기로 돌리라고.》

《네.》

나가는 사람들을 일별하고 은정이 수화기를 든다.

《네. 리은정이 전화 받습니다. ...아 병수동무예요? ... 뭐예요? 석탄공업부 부총국장동무가 내려와서 탄광을 다른데 넘겨주란대요?... 아니 병수동무, 동무넌 왜 탄광계약기일이 지난걸 모르고있었어요? ... 량부위원장동무가 지금 거기에

있어요?... 알겠어요. 내 곧 그리로 가겠어요.》

은정이 격하여 수화기를 광놓는다.

### 멀리 보이는 탄광전경

승용차 한대가 탄광정문을 지나 갱입구가 건너다보이는 사무실건물앞에 가서 멎는다.

차에서 내리는 은정.

사무실안에서 남철과 량수환이 급히 나온다.

《어머니...》

은정이 의아해서 남철을 본다.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에 와있느냐?》

《부총국장아저씨 만났려구...》

《부총국장을?...》

량수환이 이때라고 나선다.

《부총국장동지가 남철일 석탄공업부 지도원으로 출려는것 같두만요.》

《...》

《어머니만 동의하면 그렇게 제길 하겠대요.》

량수환이 은정의 옆에 바싹 다가서며 말한다.

《아 우리 삼일군을 위해서두 그렇구 남철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두 그렇게만 되면 좋지요.》

은정은 그의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묻는다.

《그런데 부위원장동무, 우리 탄광을 다른데 넘겨주게 되었다는건 무슨 소린가요?》

《글쎄말입니다. 제가 그만 계약기일이 석달이나 지난걸 모르고있어나니...》 하며 량수환이 난감한 표정을 한다.

《그럼 총국에선 부위원장동무한테도 사전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가요?》

《왜요. 그러루한 얘기가 한번 있었지요. 그런데 내가 그 버겨보이라때문에 뛰여다니다니니 그만... 까짓거 차라리 잘되었지요. 위원장동무, 아무 소리말구 이번에 아예 넘겨주구 맙시다.》

은정이 그의 말허리를 꺾는다.

《부총국장동문 지금 어디 있어요?》

《방금전에 막장을 돌아보겠대구 지배인동무랑 같이 갱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갑시다. 위원장동무.》

《막장에 들어가서 부총국장동물 만나구 오겠어요.》 하며 은정이 갱안으로 들어간다.

남철이 주저앉으며 볼부는 소리를 한다.

《제길 일이 별나게 쌍알이 저가지구...》

《그러게말이다. 위원장이 여기까지 올줄은 생각지두 못했구나. 음...》

량수환이 투덜대며 은정의 뒤를 따라간다.

### 강도 휴계실

긴 앞상을 마주하고 은정과 주영준이 서있다.

얼굴이 별정계 상기된 은정이 격하여 말한다.

《그러니 부총국장동문 우리 삼일군사람들을 위해서 선심을 쓰신다는건가요?》

주영준이 난처하여 웃는다.

《허허... 이거 위원장동무가 뭐가 단단히 오해하고있구만요. 우린 사실 동무네 부위원장동무가...》

《부총국장동무, 똑똑히 알아두세요. 우리 삼일군 사람들은 그런 녹거리 동정은 바라지두 않습니다.》

《가... 가만 위원장동무, 지내 흥분하지 말구 내 애길 들어보십시오. 위원장동무두 알지만이 주영준이두 삼일군 실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까놓고 말해서 옛날과는 달리 지금 우리 군들의 경제토대가 비할바 없이 커진 조건에서 자기 고장에 석탄이 없는 군들에서야 열문제가 긴장한건 사실이 아닙니까? 게다가 동무네 군에선 시도하던 버겨보이라까지 운영중지를 당하구 기름공장이 멎어있다니...》

《부총국장동무, 동무가 우리 삼일군실정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 군사람들은 벌써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가스로 밥을 해먹구 운수난방화를 실현해줄걸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래 총국에서 그 많은 석탄을 당장 보장해줄수 있습니까?》

《아니 그야...》

《왜 섣뚱 대답을 못합니까? 나라의 석탄문제를 책임진 일군이라면 웅당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요.》

《물론 그 말은 옳습니다. 하지만...》

《부총국장동무, 우리 군은 결정적으로 버겨보이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이 공산주의로 갈 때 우리도 함께 갈수 있습니다.》

《아니 그야 다른 문제이지요. 국가에서 석탄을 받아쓰면서두 ...》

《별개의 문제가 아니지요.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구 석탄의 부족을 느끼지 않는다면야 누가 섣뚱 대용연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글타글 애를 쓰겠습니까? 전 부총국장

동무가 석탄만을 캐는 일군이 아니라 나라의 연료자원을 책임진 참된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지나쳤다면 용서하세요.»

은정이 말을 마치자 총총히 돌아서 나갔다.  
《아니 위원장동무...》

### 깡도 입구

은정이 깡에서 나와 승용차에 오른다.

뒤미처 깡에서 나온 주영준이 멀어져가는 승용차를 덤덤히 바라본다.

생각깊이 서있는 그의 시야에 은정에 대한 회상화면이 펼쳐진다.

### 물길공사장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이 한데 어울려 물길공사를 하고있다.

여기로 군인들을 만재한 두대의 화물자동차가 달려온다.

그들을 뜨겁게 맞이하는 농장원들과 지원자들.

군인들이 작업에 착수하자 물길공사장은 더욱더 기세가 오른다.

소좌의 견장을 단 주영준이 운전칸에서 내리는데 관리위원장이 다가온다.

《제 여기 관리위원장이우다.》하며 주영준의 손을 덥석 잡는 관리위원장.

《이제 바쁜 대목마다 군인동무들이 이렇게 와서 도와주니 정말 힘이 납니다.》

《군대가 인민을 돕는거야 응당한 일이지요.》

《군인동무들이 또 지원을 나왔다면...》하며 작업복차림의 은정이가 황황히 달려온다.

주영준이 그를 알아보고 거수경례를 한다.

《군위원장동무, 안녕하십니까?》

《어마나. 아니 이게 누구예요?! 동무가 어떻게...》

《하하... 제 주변 부대 후방부련대장으로 임명되어왔습니다. 은정동무가 당의 배려에 의해서 군위원장사업을 한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습니다.》

《일할줄 모르다나니 그저 이렇게 무사분주하게 뛰여다니답니다.》

《그새 벌써 10년세월이 흘렀는데 위원장동문 그저 여전합니다.》

《인제야 뭘 로친네가 다 되었지요 뭐 호호...》

《하하...》

옆에서 보고있던 관리위원장이 호기심을 가지고 묻는다.

《아니 위원장동문 소좌동무와 이미전부터 잘 아는 사이인가요?》

은정이 웃으며 대답한다.

《네. 전후시기 제일 어려운 때에 지금처럼 이렇게 우릴 도와주었습니다.》

《에...(머리를 끄덕이며) 거군민일치의 력사가 꽤나 깊구만요.》

《력사까지야 뭘...》하며 주영준이 웃는다.

이때 소년단넥타이를 팔랑거리며 어린 남철이가 《어머니!》하고 달려와 은정의 품에 안긴다.

은정이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무란다.

《너 숙제 안하구 여기엔 왜 또 나왔냐?》

《우리도 물길공사지원 나왔는데 뭘. 어머니 위원장이면서 그것도 몰라? 저기 봐요.》

남철이가 손짓하는쪽에서 학생들의 한무리가 떠들썩 고아댄다.

《아들입니까?》 주영준이 물었다.

《네. 남철아, 군대아저씨한테 인사해라. 우리 물길공사를 도와주러 나오셨단다.》

《군대아저씨 고맙습니다!》하며 남철이 소년단경례를 한다.

귀여운듯 주영준이 그를 껴안는다.

《허허... 그 녀석 푹푹한데. 그래 아버지 뭘하시냐?》

《우리 아버지 전사했어요.》

《전사?...》 주영준이 묻지 말아야 할것을 물었다는듯 은정을 본다.

《전사두 몰라? 승냥이 미국놈들과 용감하게 싸우다 희생되었단 말이요. 히히...》

하며 남철은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은정에게 달려간다.

은정은 그자리를 피하려는듯 주영준에게 말한다.

《전 학생들한테 또 가봐야겠어요. 남철아, 어서 가자.》

은정이 자리를 뜨자 주영준이 관리위원장에게 묻는다.

《아니 위원장동문 첫 남편 두 결혼한지 사흘만에 전선에 나갔다가 희생되질 않았습니까?》

관리위원장이 한숨을 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담배를 붙여 본다.

《저엔 부모없는 고아라우. 군자위대장을 하던 사람의 아들이지요. 구천산에 숨어있던 반동놈들을 일망타진하는 싸움에 동원되었는데 저 애 아버지가 희생되었는데 어머니마저 산후탈로 잘못되었지요. 남은지 두

달밖에 안되는 피덩어릴 데려다 위원장이 키웠다우.》

《그렇습니까?! ...》

### 다시 깡도 입구

주영준이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 서있다.

그의 심중의 목소리.

《은정동무, 용서하오. 동무를 도와주자는것이 또 이렇게 길

이 어긋났구만...》

남철이가 다가온다.

《저기 가는데 우리 어머니 아니예요?》

《음...》

### 삼일군 읍거리(밤)

거리의 한쪽에서 붉은 화염이 밤하늘에 솟구쳐오른다.

다급한 경적을 울리며 읍거리를 달리는 병원구급차.

### 량정사업소

보이라건물 주위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간다.

승용차 한대가 정문을 거쳐 그곳에 가뒀는다.

사색이 되어 차에서 내리는 은정.

《이게 대체 어떻게 된거예요?》

보이라공이 한숨을 쉰다.

《위원장, 버려보이라가 폭발했습니다.》

《뭐라구요?... 그래 인명피해는 없어요?》

《평양서 온 식료연구사가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연희가요?!》

《에... 지배인이랑 모두 거기

엘 갔습니다. 헛참 일두 원...》

《운전수동무, 빨리 군병원으로.》

### 삼일군인민병원 복도

위생복을 어깨에 걸친 은정이 병원원장과 함께 바삐 걸어오고있다.

《소생실》이라고 쓴 유리문이 열리며 녀의사가 나온다.

원장이 걸음을 멈추고 묻는다.

《어떻게 됐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원장과 은정이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 소생실

얼굴에 붕대를 한 연희가 산소마스크를 끼고 의식없이 침상에 누워있다. 그의 팔에는 링

게르그무판이 련결되어있다.

그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선 탄실과 방인철.

방안에 들어선 은정이가 엎어

질듯이 침상으로 달려가 연희의 어깨를 잡고 흔든다.

《연희! 연희동무,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연희, 나... 나 위원장이야. 어서 눈을 뜨라구. 응?》

그를 보기가 괴로운듯 탄실이 돌아서 눈굽을 짖는다.

원장이 은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다.

《위원장동무, 그만하십시오. 가스질식으로 의식을 잃은거니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의식을 회복합니다.》

《그럼 일없을가요?》

《글쎄요. 아직은 어떤 후유증을 일으키겠는지 가늠할수 없습니다. 지금 전면적인 검사를 진행하고있으니까 검사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 전 그럼...》

원장이 은정에게 눈인사를 하며 나간다.

탄실이 눈물이 글썽하여 은정의 손을 잡는다.

《위원장동무,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글쎄 평양에 있는 연희연구사의 부모들이 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흑... 흑흑...》탄실이 얼굴을 찡찡한다. 은정이가 그를 엄하게 질책한다.

《눈물을 거두라요. 연희는 죽지 않아요.》

《그래두 시집두 안간 처녀가...》하며 더욱 흑흑 느끼는 탄실.

간호원이 은정을 돌아보며 난처해한다.

《여기서 이러면 안되겠는데요...》

《응. 알겠다. ... 나가요.》은정이 탄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간다.

방인철도 머리를 푹 숙인채 그들의 뒤를 따라 나간다.

먹물을 뿌린듯 캄캄한 밖은 아무 일도 없는듯 고요하다.

## 복도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창 의자에 앉아있는 은정과 탄실은 조는듯 눈을 감고있다.

방인철만이 복도 창가에 서서 안절부절하고있다.

이윽고 소생실문이 열리며 간호원이 기쁨에 차서 나온다.

《위원장동지, 환자가...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뭘 그게 정말이냐?》하며 은정이 자리에서 화닥닥 일어난다.

《방금 눈을 떴습니다.》

《그래?! ...》

은정과 탄실이 급히 소생실로 들어간다.

## 다시 소생실안

간호원이 산소호흡기를 거두는데 연희가 주위를 살피며 묻는다.

《여기가 어디예요?》

그의 팔을 잡고 지켜보던 은정이 다정히 묻는다.

《연희, 나 위원장이야. 알겠니?》

《아니 위원장동지가 어떻게... 여긴 병원이구만요.》

《응. 병원이다. 그래 지금 어데가 제일 아프냐? 응?》

《아픈데 없어요. 참 방인철연구사동무 어떻게 되었어요?》

《아무 일도 없다. 봐라. 여기와 있질 않니... 지배인동무랑...》하며 은정이 뒤에 선 방인철과 탄실을 가리킨다.

《아이 바쁘실텐데 왜들 이렇게 다 오셨어요? 전 일없어요.》

《연희!》탄실은 뜨거운것이 치밀어 또다시 눈굽을 짖는다.

《아이 왜 그래요? 지배인동지.》

《응... 응 아무것도 아니다.》하며 탄실이 얼굴을 돌리는데 방인철이 나선다.

《연희동무, 정말 안됐소. 나때문에...》

《아이 전 일없어요. 참 보이라에 불을 지피군 함께 료양소에 가자고 했는데 어머니가 기다리겠어요. 래일아침에 동무 혼자서라도 가보세요. 제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은 하지 말구요. 꼭 가지요. 네?》

《응. 가겠소...》방인철은 무엇인가 더 말을 하려다말고 터져오는 오열을 참을수 없는듯

손으로 얼굴을 뺨 문대며 방에서 뛰쳐나간다.

은정이 연희의 손을 잡은채 귀가에 대고 다정히 묻는다.

《집에다 전보를 칠가?》

연희가 머리를 가로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위원장 어머니... 아이 이렇게 불러두 일없지요?》

《응. 일없구말구. 어서 말하라구 연희.》

《우리 아버지 제가 나약한 사람이 되는걸 제일 싫어해요. 참. 위원장어머니 제가 어떻게 돼서 첫 논문의 실험대상지를 여가 삼일군으로 택하였는지 아직 모르시지요?》

《그럼, 연희가 말해주지 않았으니 어떻게 알겠나...》

《우리 아버지가 정해주셨어요. 훌륭한 과학자가 되려면 자신보다 먼저 제가 나서자란 고향땅과 고향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바칠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원장어머니한테 가서 배우라고말이에요.》

《아이 너희 아버지가 누군데?》

《저... 아이 우리 아버지 제가 논문을 성사시켜서 은을 내기 전엔 절대루 아버지가 누구이란걸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뭘?...》

《우리 아버지 한때 이 일대에서 군사복무를 했어요. 전쟁때랑. 그 이후에도... 그래서 위원장어머니 잘 아신대요.》

《전쟁때랑 그 이후에도?... 가만 네 이름이 주연희라고 했지?...》하며 잠시 생각을 더듬던 은정이 그만 깜짝 놀란다.

《아니 그럼 네가 주영준동무의 딸이로구나!》

《애개개 이걸 어찌니...》하며 탄실이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는다.

연희의 손을 꼭 잡은 은정의 손이 가볍게 떨린다.

(다음호에 계속)

## 청춘시절이란 무엇인가 외 2 편

오재신

사람들 말하더라  
내 나이를 두고  
나의 젊음을 두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좋은 때를 두고  
참 좋은 시절이라고

북받치는 힘  
열정을 어데 쏟아야 할지  
때로 다는 몰라도  
그래도 좋다더라  
한창때라고

그렇더라 나는 청춘  
좋은 때를 만났거니  
세상이 온통 내것이구나  
정말이지 내 못할 일  
세상에 없구나

리수복이도 내 나이였지

김광철이도 한영철이도  
그리고 분단의 장벽을 넘고간  
저 림수경이도

그래, 세계의 그 어떤 영웅 렬사도  
그 시절을 떠나  
빛내인 한생이 있었더냐

오, 격랑이런듯  
폭풍이런듯  
순간을 살아도 한생이 남는 시절  
끓지 않고선 불타지 않고선  
사랑도 명예도 위훈도 없는 시절

바치면 한생이 길이 남고  
아끼면 한생을 잃어버리는  
아아, 그것이 친애하는 그이를 받드는  
우리의 청춘시절!

## 청춘시절은 언제 끝나는가

청춘시절이여 너는 언제 끝나는가  
파란만장 헤쳐온 세파속에서  
눈가에 잔주름 느는 때 끝나는가  
덧없는 세월이 없어준 흰서리  
머리칼 오리오리 희여갈 때 끝나는가

알수 없노라 청춘시절이여  
너 언제 어느날 어떻게 끝나는지  
잠시도 안정을 몰라  
안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절  
갈길이 바빠서 더 좋은 시절  
할 일이 많아서 더 좋은 시절

그렇구나  
열정은 바쳐 탐구의 열매로 주렁지고  
위훈은 빛나 창조의 대기념비로  
달려온 그 길에 무성하리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해  
값있게 바친 청춘시절은  
세월과 함께 흘러가지 않으리라

열정의 불씨가 살아있고  
위훈의 갈망이 숨쉬는 한  
끝나지 않으리라 청춘시절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으리라!

## 청춘과 바다

해쫄는 바다가에서 나는 물노라  
열정의 바다여 너 누굴 닮았나  
그러면 바다는 가슴헤쳐 대답하네  
내 너를 닮았노라 주체시대 청춘이여  
너를 닮아 이렇게 불타고있노라

달빛어린 바다가에서 나는 물노라  
서정의 바다여 너 누굴 닮았나  
그러면 바다는 조용히 대답하네

내 너를 닮았노라 당의 청춘이여  
너를 닮아 이렇게 아름답노라

격랑 이는 바다가에서 나는 물노라  
용맹한 바다여 너 누굴 닮았나  
그러면 바다는 소리높이 대답하네  
내 너를 닮았노라 조국의 청춘이여  
너를 닮아 이렇게 두려움 모르노라

# 버드나무, 네가 설레이는 소리… 외 1 편

리영

저 하늘 끝까지 자라면  
머슴살이도 끝나려나-  
꿀집 멘 소년의 애절한 소망이  
너를 심어 가꾸었다고

내 고향 동구길에 실하게 아지 펼쳐  
버드나무, 네가 설레이는 소리…

잎은 지고 다시 돌아  
아지마다 새들이 찾아올적에도  
고역에 눌리워 등이 굽어든 그는  
차라리 두견새라도 되어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고싶어했다고

내 모내는 기계 물며 들을 누벼갈 때도  
버드나무, 네가 설레이는 소리…

기구한 그 운명도 모자랐던가  
종살이 꿀집을 또 저야 했던 그 아들은  
락엽이 떨어지는 황혼 짙은 저녁이면  
차라리 나무같은 비자루라도 되어

저주로운 세상을 쓸어버리고싶어했다고  
내 김매는 기계 물며 벼포기 가꿔갈 때도  
버드나무, 네가 설레이는 소리…

아, 그네들은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한뼘기 제땅이 없었던 탓으로 하여  
머나먼 세월의 한끝에서  
우리의 피줄은 너무도 괴롭게 이어져왔다고

내 이삭의 바다위에 수확기 물고갈 때도  
버드나무, 네가 설레이는 소리…

가슴 울린다 이 가슴을 친다  
모진 운명이 걸어온 그 기슭에서  
나의 생명은 태어나지 않았어도  
바로 이 땅의 복된 주인인 나 자신도  
머슴의 아들이었다고

이 땅을 가꿔가는 환희로운 나날에조차  
버드나무, 네가 자꾸만 설레이는 소리…

## 내 가꾸는 땅

귀기울이면  
들 어데선가  
어릴적 애명으로 날 부르는 소리  
금시 들려올듯한 이 땅

땅아 정다운 내 고향땅아  
별많은 이런 밤엔  
두령을 베고서 잠들고도싶고  
구성지게 우는 뜰부기처럼  
너를 위한 노래도 지어부르고싶다

여기선 눈을 감아도  
벼포기와 돌피를 골라 잡을수 있기에  
저기 채등너머 뽕기밭 이랑까지  
하나하나 세여갈수 있기에

흙을 주물러보아도  
살결처럼 부드러운 하구나  
주절대는 논물소리 들어도  
고운 꿈 피우는 자장가만 같구나

내 이 땅을 밟고선

안일과 해이는 몰라  
땀젖고 물에 젖고 흙에 발묻고…  
그렇게 이 몸을 다 맡겨야  
오히려 마음 후련해지거니

진정 미끄러운 두렁길 즐겨 걷지 않고  
쓸어보는 이 땅에 성실한 자옥이 없다면  
들바람 이렇게 달수 있으랴  
보도랑에 내려앉아 춤추는  
저 별들 이처럼야 정다울수 있으랴

아 행복이 꼭 들어찬 내 가슴처럼  
기쁨이 무르익는 이 땅엔  
빈자리가 없으리  
내 가꾸는 이삭속엔 쪽정이가 없으리

눈비 내려도  
한생 정들어 가꾸는  
아, 내 고향땅아  
그 어디 보아도 다 둘러보아도  
너에겐 골라 디딜곳 따로 없구나

# 직포기소리

문인숙

나를 찾는 어머니 목소리도 아닌데  
애인이 부는 휘파람소리도 아닌데  
어이하여 정답게만 들려오는걸가  
직포기소리야

다는 몰라  
허나 직포기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은 하냥 즐거워  
우리 수령님 비오는 날이면 비오는 날이어서  
비를 맞으시며 우리 공장을 찾으셨던  
못잊을 그 사랑 속삭여주는것만 같고

진달래꽃 피는 봄철이면  
가실곳도 많으시련만  
다시 우리 공장을 찾아오시여  
터갈린 방직공들의 손을 잡아주시던

그 사연 가슴속 깊이 들려주는것만 같아  
때없이 정답게 듣는 직포기소리

천짜는 직포공이 친딸처럼 대견해  
어깨를 다독여주시던  
아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에  
끝이 없는 보답의 노래인가  
위훈의 노래인가

낮이나 밤이나 울리는 직포기소리  
너는야  
아버이수령님 우러러 달려가는  
방직공 우리들의 발자국소리  
수령님 기쁨속에 귀기울여 들어주실  
아 비단폭포소리로구나

# 화장품과 속삭이네

리광숙

내 정성다해 만드는 화장품  
퇴근길 오를 때면 키높이 쌓여  
날보고 다정히 이야기하는듯  
가던 길 돌아서 나는 속삭이고싶네

연분홍 분이며 크림이며 빨간 연지  
눈송이같은 새하얀 물크림  
내 땀이 어린 제품속에서  
다정한 이들의 밝은 얼굴이  
수고했다 날보고 방긋 웃는듯

연분홍 분크림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속으로 가만히 물으면  
해별에 구슬린 농장원치녀  
가볍게 불우물 지으며  
좋아요! 하고 속삭이는듯

분앞에서 내 또 조용히 물으면  
란전의 전차공 어여쁜 처녀의 맑은 소리  
정말 좋아요 좋아요  
그 향기를 막장깊이 안고가네

빨간 연지가 마음에 드세요  
아기를 안은 새 엄마에게 물으면  
입술엔 금방 진달래가 피어나며  
참말 좋아요

날은 저물어도 시간은 가도  
정녕 떠나고싶지 않아요  
화장품 쌓아가는 이 일터를,  
이 가슴에 넘쳐요  
인민의 기쁨을 보태가는 이 영예

내 바친 땀들이  
아름다운 향기 되어  
내 만든 화장품에서 풍겨오거니  
정말 이런 멋에  
이런 재미에 살아요

로동에서 한없는 기쁨을 찾는  
화장품과 나는 속삭여요  
영원히 한모습 충성다해갈  
불타는 맹세를 속삭여요

## 허바닥을 한번 봐야겠네

리영백

여보게 김영삼씨  
자네의 허바닥을 한번 봐야겠네  
아무래도  
자네의 허바닥은 정상이 아닌것 같네

원래 사람의 허바닥은  
제속에 품은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  
이리저리 굴리는건데  
자네것은 정반대가 아닌가

자네 허바닥은 《민주》를 공약했지만  
로동자들이 생존권을 요구해나섰을 때  
학생들이 범민족통일행진에 나섰을 때  
총칼로 짓몽개라 날름거렸지

자네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펴겠다고 뇌까렸지만  
제 배속 채우는데만 골몰했지  
관자촌 빈민구제를 한번인들 했었나

이제보니 자네의 허바닥은  
바른말 하게끔 돼있질 않네  
자랄 때부터 제 리속 위한 속임수를 배우며  
권모술수의 세 포로 증식된 그 허바닥

사람의 허바닥은 세치인데  
때로는 여름날의 개처럼 축 늘어져  
능글스럽게 널름널름  
때로는 먹을걸 찾는 뱀처럼 날름날름

권세욕과 배속을 한껏 채워보려고  
젖먹은 힘 다해 얻어쓴 《대통령》 감투라  
제 속심을 그대로 내뽐았다간  
당장 쫓겨날 자네의 그 신세

제 진속을 감추기 위해서만 필요하고  
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감쪽한 여우도 찢쳐먹을 그 허바닥에  
큰 기대를 걸고있는것 같은데

천만에!  
그 얇은 허바닥은  
기울어가는 자네 운명을 지켜줄만큼  
그렇게 든든하지 못한것 같네

거짓말도 한두번이지  
그것으로야 그자리를 어떻게 부지하겠나  
자네가 믿는 그 허바닥때문에  
자네는 인민의 모두매에 들거네